

피노키오만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1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사



청소년활동기상청 **활동기**

피리산방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1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사

초판 1쇄 발행 2013년 9월 1일

펴낸 곳  청소년활동가상징 **활기**

이메일 hwalgy@daum.net

전화번호 070-4228-190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ife2010>

가격 1질 전5권 100,000원

파란만장했던 6년의 발걸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발간하며

우리는 오늘, 이제는 역사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간 한 조직의 파란만장했던 숨결과 발걸음을 담은 기록물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한국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자부심,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실천과 고민의 흔적들이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운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유산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 책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 돛을 올렸던 2006년의 뜨거웠던 여름,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나서며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담긴 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구절만큼 네트워크의 처음과 끝을 함께 밀어왔던 활동가들, 네트워크라는 함선에 잠시라도 승선했던 활동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도 가장 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소년 인권 의제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을 형성해내고 말겠다는 다부진 욕심으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인권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란(波瀾)을 준비하자, 사회가 청소년을 설명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청소년인권론을 만들고 더 큰 파란을 조직하지는 마음으로 네트워크는 6년간 힘차게 노 저어 왔습니다. 때로는 주춤했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이자 ‘파란을 만들어내는 장’(파란만장)이었고, 청소년운동의 한 전선(front)을 확장해온 개척자였으며,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만들어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2012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항해를 멈추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성장과 함께 네트워크의 소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청소년 단위로 옮겨가기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마감은 네트워크의 후신(後身)이라 할 ‘활기’의 시작과 함께 결정된 일이기에 서글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운동의 밑불이 될 것이기에 뜨거운 안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떠나보낸 지 1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서야, 늦었지만 네트워크의 역사와 활동을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한 백서를 내놓습니다. 백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네트워크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도움닫기 워크숍을 거쳐 네트워크가 결성된 2006년 3월부터 ‘활기’로의 전환을 결정한 2012년 3월까지 이어진 활동과 조직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권은 학생인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전국행진에서부터 청소년 거리행동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광장에서의 움직임, 폐쇄적 학교를 뒤흔든 스쿨어택(School Attack)과 청소년 저항 지원 활동 등 긴장감과 신선함이 가득했던 사건들의 현장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3권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여론의 포화 속에서 일구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역사를 되짚다 보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갖가지 고비를 넘겨온 활동가들의 놀라운 역량과 끈기, 그리고 그 고단했던 숨결을 함께 맞볼 수 있습니다.

4권은 학생인권 이외에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의제와 실천을 발굴하면서 남긴 유산을 묶었습니다. 청소년인권과 반(反)차별감수성의 만남을 시도했던 십대 여성주의(걸 페미니즘) 팀, 2008년 촛불정국을 통과하면서 본격화된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린 보호주의팀, 청소년이 말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을 일구어내고자 했던 노동(빈곤)팀의 다채로운 시도가 남긴 결실이 이 한 권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네트워크가 시도했던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과 연대활동 관련 자료들의 꾸러미입니다. 청소년인권캠프, 청소년활동가대회, 잊힌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재발굴한 연구사업 등을 다룬 자료들을 따라 읽다 보면,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 이론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제 가고 없지만, 청소년을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인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운동을 조직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또 네트워크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의 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1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팀



1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걸어온 길	9
	2006년 3월, 첫 뜻을 올리다	11
	2007년, 파란을 조직하다	12
	2008년, 새로운 도전과 모색의 한 해가 닥쳐왔다	14
	2009년, 활동가들의 연대체로 새단장하다	15
	2010년, 네트워크 바깥에서 불을 지피다	17
	2011년, 네트워크 간신히 숨을 쉬다	18
	2012년, 네트워크의 전환을 결정하다	20
2부	자료편	21
	배경내, 「광장에 나온 청소년 - 학생·청소년 인권운동 본격 시 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5 인권보고서』 미발표자료집, 20 06.3.	23
	인권운동사랑방 외,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 청소년인 권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6.2.19.	29
	인권운동사랑방 외,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 청소년인 권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 워크숍」 토론 사진, 청소년인권활동 가네트워크 소장 사진, 2006.2.19.	35

김이정민, 「청소년 ‘선도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 : 청소년인권 운동 오늘과 내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6.2.21.	36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결성 제안서」,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후속모임 자료, 2006.3.19.	3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깃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장 사진, 2006.10.17.	41
배경내,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2007.02.	42
정혜규,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터넷뉴스 1318바이러스, 2006.12.30.	47
양돌규,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함성, 그 평가와 전망」,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강연원고, 2006.12. 16.	52
양돌규, 「민주화 20년...아직 오지 않은 청소년들의 1987년」, 『전태일통신』 62호, 2007.1.17. / 프레시안, 2007.1.16.	60
전누리, 「청소년운동의 흐름과 과제」, 『교육생각』 2010년 봄호, 학벌없는사회, 2010.3.17.	63
안수찬 기자, 「10대 정치, 엄숙함 벗고 발랄 진화 중」, 한겨레21 807호, 2010.4.23.	83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오답승리의 희망 공동사무실 개소식 초대 웹자보, 2010.10.25.	88
공현, 「[특집] 전환기의 청소년운동: 청소년, 그들의 저항 그리고 정치 - 청소년 활동가가 본 청소년운동의 역사」,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1-2월호(통권 54호), 인권재단 사람, 2012. 1.19.	89

한날 외, 「[특집] 전환기의 청소년운동: [좌담] 청소년 활동가들의 운동 안팎을 향한 투쟁」,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1-2월호(통권 54호), 인권재단 사람, 2012.1.19.	96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프로젝트 <활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간담회 웹자보와 진행안, 2012.3.29.	117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프로젝트 <활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간담회 자료집, 2012.3.29.	118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해산/전환에 부쳐」, 공현의 블로그 『창틀에 걸린 꿈들』, 2012.5.27.	142

3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연혁	145
4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람들	189

1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걸어온 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걸어온 길

■ 2006년 3월, 첫 뜻을 올리다

1996년 PC통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청소년인권 단체인 ‘학생복지회’가 탄생한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청소년 참여위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2000년 인터넷을 기반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면서 청소년인권이라는 의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청소년 노동, 청소년 선거권, 학내 종교자유, 정보인권, 학생회 법제화 등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반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2005년 상반기 두발자유운동이 인터넷에서 일어나와 광장에서 펼쳐졌지만, 청소년들의 고양된 분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단위가 부재한 조건에서 그 열기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다.

2006년 2월 개최된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은 바로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장기적 계획을 도모하기 힘든 한해살이 운동 △인론이 만들어낸 스타(혹은 영웅적 인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만 주목받는 운동 △구심이 없는 뿔뿔이 운동 △청소년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 하나 없는 외톨이 운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달려있는 위원회 중심의 운동 △그리하여 돌아보면 제자리인 되돌이표 운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청소년인권운동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된 첫 시작의 자리였다.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였고, 그 자리에서 후속모임이 제안되었다. 3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열린 후속모임에서 마침내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의 평등한 연합을 꿈꾸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공식 결성됐다. △청소년 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 강화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과 현안 대응 △청소년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과 연구 작업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형성 등을 일구어내기 위한 조직적 틀이 되는 것이 공동의 합의였다. 또한 보통 연대체들의 조직체계를 따르지 않고 3명의 코디를 두어 내부 소통의 활성화와 구심력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결성과 동시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 양동중학교 학내 시위와 보복성 징계 저지 활동을 시작으로 스쿨어택, 거리집회, 전국행진, 인권캠프,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름은 네트워크였으나 하나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동성과 집중력을 발휘하며 초기 1년의 활동이 전개됐다.

초기에는 단체 담당자 중심의 네트워크였으나, 집회와 전국행진 등을 거치면서 청소년인권활동에 뜻을 둔

개인 활동가들이 다수 네트워크로 결합하면서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변모되었다.

- 조직 형태 : 단체들의 상설 연대체로 출발, 개인활동가의 결합
- 참여단체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1기 코디(2006년 3월~9월) : 전누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유윤중(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2기 코디(2006년 9월~2007년 2월) : 전누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박조은미(청소년 다함께), 효민(개인활동가), 찬욱(이수나로)
- 조직 체계
 - 공동연구팀(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
 - 교육팀(파란만장 인권캠프 개최)
 - 공동사업팀(두발자유운동/학생인권법 제정 운동/학내저항 지원 등)

■ 2007년, 파란을 조직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7년 2월 ‘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 와글난장 짓다’ 개최를 시작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두 해째 항해를 시작했다. 첫 해에 함께 했던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는 모임이 흔들리고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네트워크 소속단체에서 빠지게 되었다.

2007년 네트워크 조직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근활동가의 등장이었다. 학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 요청에 좀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네트워크 활동 전반과 소통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상근활동가(전누리가 휴학하고 상근을 결의했다)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한 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상근 공간을 마련하였고, 네트워크 전화도 개설했으며, 재정 마련을 위한 CMS 후원제도도 도입했다. 상근자의 등장으로 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졌으나, 상근자에게 실무가 집중되어 코디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하반기에는 각 팀의 담당자를 따로 두어 팀별 사업을 챙기기로 했다.

2007년에는 2006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담은 백서의 발간, 학내 저항 지원, 학생인권침해 집단 진정,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거리집회, 소수자 운동과의 연대 모색, 국기에 대한 맹세 법제화(국기법 제정) 반대운동, 전국 순회 간담회, 인권학교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2007년은 서울 중앙고, 서울 광양중, 서울 세민정보산업고, 울산 옥동중·신정중 등 두발자유나 체벌 등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한

해였고, 그만큼 학내 저항 지원과 징계 철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발걸음도 빨라져야 했던 한해였다.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고 외부의 연대 요청도 많아짐에 따라 2007년은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큼 바쁘게 흘러갔다.

그 와중에 7월 17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열린 국기법 제정 반대 시위로 인해 네트워크 활동가 다수가 연행되면서 네트워크도 큰 고비를 맞이하였으나, 다행히 벌금형 정도에 그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이켜보면 2007년은 두발자유, 체벌 등 전통적인 학생인권 의제를 뛰어넘어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소수자 운동과의 만남,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정치적 권리 등 새로운 의제와 폭발적으로 만났던 한해였다. 2006년 전국행진 때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조직하라’는 구호를 내걸었었는데, 2007년은 그 구호에 충실히 답하는 한해였다.

- 조직 형태 : 단체와 개인의 상설 연대체
- 참여단체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사(‘전북청소년인권모임’이 개명),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개인활동가들
- 상근활동가 : 전누리, 상근자는 코드를 겸하지 않음. 소식지 발간, 사건 상담과 지원 업무 중심.
- 3기 코드(2007년 2월~8월) : 이슬(인권운동사랑방), 만성(이수나로), 박조은미(청소년 다함께)
- 4기 팀 담당자(2007년 9월~2008년 2월) : 병현(이수나로), 헤민(개인활동가)
- 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2007년 5월 첫 발간. 2010년 2월까지 총 11호 발간

- 조직 체계
 - [상반기]
 - 학교팀 : 학내 저항 매뉴얼 제작, 학생인권법 제정운동, 스쿨어택 등
 - 소수자팀 : 청소년인권 의제와 연대 확장을 위한 경계 넘기 간담회 개최
 - 교육팀 : 다른 팀 활동 지원 역할, 청소년인권활동 안내서 제작, 인권학교 개최 등
 - 공동연구팀(상반기까지 운영) :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
 - [하반기]
 - 학교팀, 소수자팀, 교육팀을 기본 체계로 하면서, 비상설적인 팀으로 대선팀과 지역연대팀 신설. 정세에 따른 기획사업을 고민하기로 함.
 - 대선팀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관위의 청소년 정치 UCC 금지), 정당 청소년 정책 견인 등
 - 지역연대팀 : 전국 청소년인권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 활성화

■ 2008년, 새로운 도전과 모색의 한 해가 닥쳐왔다

2008년은 네트워크의 조직 형태에서도, 활동의 조건에서도 많은 변화가 찾아온 한해였다.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가운데 활동이 거의 없거나(전북지역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원래 담당자들이 소속을 바꾸는 변화(‘인권교육센터 들’의 창립으로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들’로 소속을 옮겨 갔다)가 생기면서 새롭게 등장한 인권모임들(성남지역 청소년인권모임 인지인(인권을 지키는 사람들), 오답승리의 희망 편집진 등)을 네트워크로 적극 초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편으로는 네트워크가 하나의 강력한 조직인지 연대체인지, 단체와 개인의 연대체인지, 아니면 개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지, 위상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는 청소년운동의 특성(단체의 불안정성, 가입과 탈퇴의 느슨함 등)이 반영된 탓이기도 하고, 청소년운동 안에서 네트워크가 갖는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네트워크가 단체들의 연대체라는 기본 틀을 갖고 있는데도 2007년에 다양한 외부 연대체 활동이 전개되면서 내부 공유는 느슨해지고 외부에서는 하나의 단체로 인식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는 소속 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연대체인 네트워크가 다른 연대체에 들어가는 일은 자제하고, 대신에 네트워크 차원의 독자적 기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이른바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0교사, 심야보충, 우열반 금지 조치 등이 폐지되고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자율에 맡겨지는 한편, 일제고사마저 부활하면서 대정부 대응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5월 첫 불을 지핀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허용 조치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미친 교육’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고, 그해 7월 최초의 민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애초 네트워크 차원에서 기획된 활동보다는 새롭게 열린 공간 안에서 제기되는 활동이 많아진 한해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네트워크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인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청소년인권 영역의 발굴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 결과 여성주의팀과 보호주의팀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2008 청소년 인권선언’ 활동은 네트워크의 축적된 역량을 총결산하는 기획활동이기도 했다.

- 조직 형태 : 단체와 개인의 상설 연대체(그러나 단체의 결합인지, 개인의 결합인지, 단체가 계속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모호함과 다투어야 했던 한해)
- 참여단체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지인, 개인활동가들
- 상근활동가 : 따로 두지 않음. 대신에 네트워크 전반적 운영을 살피는 역할별 코디를 두기로 함
- 5기 코디(2008년 2월~10월) : 박조은미, 파이루, 공현
 - 두리번 코디 : 정세를 살피고 연대활동을 관리

- 소통 코드 : 네트워크 내부 소통과 활동가 참여 독려
- 활동지원 코드 : 각 팀의 활동 조율과 지원, 재정 관리

○ 6기 코드(2008년 10월~2009년 1월) : 소통 코드(바람), 활동지원 코드(공현), 두리번 코드(누리나 그루로 추천되었으나 공식 상태)

○ 조직 체계

[상반기]

- 학교대응팀 : 학내 저항 사례 정리, 학생 당사자 조직화, 시안 대응 등
- 교육팀 : 청소년인권놀이터 <빨강 물고기> 개설
- 노동팀 : 청소년노동인권 기획 활동,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연대 강화

[하반기]

- 학교·교육팀: 학생인권과 교육정책 공동 대응, 대정부 정책 대응 강화
- 보호주의팀: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한 관점 정리, 섯다운제 등 대응
- 노동·빈곤팀 : 빈곤과 노동을 열쇠말로 청소년 당사자 조직화
- 소수자(여성주의팀) : 청소년 소수자 활동의 첫 시작으로 10대 여성주의 사업 기획. 안티 크리스마스 거리행동

* <빨강 물고기>는 각 팀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하기로 함

■ 2009년, 활동가들의 연대체로 새단장하다

2008년부터 이어진 네트워크의 위상에 대한 고민의 결과, 네트워크는 2009년 2월 개인 활동가들의 연대체로 새롭게 위상을 정리했다. 2009년에는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청바다)라는 기획사업 준비를 위해 반상근 활동가를 새롭게 두었고, 역할별 코드를 따로 두는 새로운 실험도 단행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청바다’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축소되면서, 여성주의팀 사업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이 집중됐다.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초중등교육법의 초라한 개정으로 막을 내린 이래 지방자치체 조례로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네트워크의 학생인권 역량이 상당부분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자 했던 다짐은 여성주의팀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팀별 활동이 많아지면서, 팀들 사이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 네트워크가 초기부터 담당해 왔던 학교별 대응이나 학생 당사자 조직화의 역할 역시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역할로 주로 맡겨지면서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네트워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일년 내내 지

속되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고민은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밖에 없었던 외로운 시대를 지나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여러 단위가 생겨나게 된 반가운 변화와 함께 생겨난 것이기도 했다.

- 조직 형태 : 개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 반상근활동가 : 청.바.다 사업 진행을 위해 엠건을 반상근활동가로 모심(6월~2010년 1월)
- 7기 코디(2009년 1월~8월) : 활동지원 코디(엠건), 두리번코디(누리), 소통 코디(정훈)
- 8기 코디(2009년 9월~2010년 1월) : 전 멤버의 코디화
 - 어울림 코디(한날), 맞장구 코디(개굴), 아~코디(바람), 잔소리 코디(공현), 소식지 코디(엠건), 댓글 코디(난다)
- 조직 체계
 - [상반기]
 - 학교·교육팀: 일제고사, 상벌점제 대응, 학내 사안 대응
 - 보호주의팀: 청소년 보호주의 담론 정리하고 상반기 해체
 - 노동·빈곤팀 : 거리 캠페인, 노동절 퍼포먼스, 내부 세미나 등
 - 소수자(여성주의팀) : ‘페미니즘in걸’ 연재, 선전전 등
 - * 기획 사업 :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청.바.다) 강좌사업
 - * <빨강 물고기>는 각 팀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하기로 함
 - [하반기] 사업별 담당자 체제로 재구축
 - 학교·교육팀 : 상벌점제_그린마일리지 대응,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대응, 자립형사립고 등 MB교육 정책 대응, 일제고사 대응, 학생인권실태조사 등
 - 청.바.다 사업팀 : 8월 강좌사업, 후속모임 여성청소년 영상팀 ‘미정어’ 운영
 - 여성주의팀 : 인권교육, ‘페미니즘in걸’ 연재, 안티 크리스마스 거리행동 2탄, 여성주의 교사모임과의 간담회 등
 - 교육정세연구팀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
 - 노동·빈곤팀: 청소년노동에 대한 내부 세미나

■ 2010년, 네트워크 바깥에서 불을 지피다

2010년 네트워크는 느슨한 코디제도를 대신하여 별도의 ‘운영팀’을 두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안별로 일시적인 대응단위들이 만들어졌다 소멸하는 상황, 의제별로 활동과 문제의식이 파편화된 채 굴러가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만의 독자적 위상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강화된 운영팀의 역할이 요구됐기 때문이었다. 운영팀의 역할 강화와 함께 네트워크 내부에 집중하는 반상근 활동가를 두기로 했다.

청소년운동 안에서 네트워크만의 독자적 활동을 찾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청소년 활동기반조성 프로젝트, 활기’였다. 담론 형성, 새로운 의제 개발과 함께 청소년운동 자체를 고민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합의 때문이었다. 2009년 12월 말부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좀더 정돈된 형태의 공개적 제안은 2010년 2월에 이루어졌다. 청소년활동의 경제적 기반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였지만, 학생인권 탄압과 일제고사·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활동가들이 증가하는 상황은 새로운 변화지점이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과 함께 대안적 학습체계 마련이 활기의 과제로 떠올랐고, 네트워크는 활기 프로젝트 담당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활동가대회 ‘챗’(Chat), 후원행사, 저공비행 학습과정 준비 등으로 활기는 바쁜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한편 2009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도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처음에는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의 계기로 삼자는 정도로 출발하였으나, 교육감 선거 이후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들이 다수 등장하고 서울의 경우 더욱더 상징적 의미가 큰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이 하반기 집중 과제로 떠올랐다. 활성화와 정체를 반복하던 노동·빈곤팀은 상반기 ‘알리바바’ 사업을 통해 호기롭게 출발했다가 6월 이후 또다시 정체 상황에 놓였다. 여성주의팀 역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의제의 고갈, 운동방식에서의 고민 등으로 점차 활력을 잃었다.

결국 네트워크 내부에 등지를 튼 팀들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네트워크 외부에서 연대체 형식으로 등장한 활기와 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로 활동이 집중되어 간 것이 2010년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네트워크에만 집중하는 활동가의 부재가 조직의 주요 고민으로 남게 됐다.

2010년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수나로와 네트워크, 오답승리의희망 세 단체가 함께 쓰는 사무공간(현 나뭇아지트 공간의 시초)의 마련이었다. 10월초 문래동 후미진 골목, 낡은 건물 한 층에 등지를 튼 이 공간은 청소년운동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독자적 사무공간이기도 했다. 이 공간의 안정적 운영 역시 네트워크, 특히 활기 프로젝트의 과제로 남은 한해였다.

- 조직 형태 : 개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 반상근활동가 : 난다를 반상근활동가로 모심(2월~12월)
- 9기 운영팀(2010년 2월~8월) : 코디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운영팀을 둬.
조직 운영·연대활동(난다), 소통·소식지 발간(한날), 회의 운영·회원 관리(엠건). 운영팀이 촉진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기로 함.
* 전체회의 전 앞풀이 토르크를 통해, 팀간 문제의식과 활동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
- 10기 운영팀(2010년 9월~12월) : 발새, 공기, 난다, 공현, 한날, 어쓰
- 네트워크 소식지 이름을 『파란만장』에서 『청심환』(청소년(청)의 마음(심)을 담은 환, 감쪽감쪽 놀랄 일만 아주 평평 터지는 세상에서 저희 네트워크가 드리는 ‘청심환’ 하나 드시라는 의미)으로 개명. 2010년 4월 첫 발간. 2012년 1월까지 총 4호 발간.
- 조직 체계
 - [상반기]
 - 활기팀(외부 단체들과의 연대 프로젝트팀): 청소년활동가 기반조성(경제적 기반, 학습기반)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준비
 - 소수자(여성주의팀) : ‘페미니즘in갈’ 연재, 여학교 앞 선전전, 공부모임 등
 - 노동·빈곤팀 : 알리바바 사업(월1회 직접 행동, 소식지 발행, 노동법 공부, 최저임금 인상 요구 활동 등
 - 학교·교육팀 : 교육감 선거 대응,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 [하반기]
 - 활기팀(외부 단체들과의 연대 프로젝트팀): 후원행사, 저공비행 강좌 운영
 - 소수자(여성주의팀) : ‘페미니즘in갈’ 연재, 여학교 앞 선전전, 공부모임 등
 - 노동·빈곤팀 : 활동이 거의 없었음
 - 학생인권조례팀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집중

■ 2011년, 네트워크 간신히 숨을 쉬다

2011년 상반기는 무산 위기에 놓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청소년활동가들이 총집중한

시기였다. 5월 주민발의의 성공, 6월 추가 서명까지 이어진 고도의 활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경험으로 남았지만, 그 후과도 컸다. 무엇보다 서명운동 종료 이후 활동가들의 피로감이 하반기 내내 지속됐고, 조례 운동에 결합하지 않은 활동가들도 생활조건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면서 다른 등지를 찾아 떠나간 해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2011년 새롭게 신설한 워크숍 기획팀은 11월 학생인권 상담 워크숍 정도를 준비하는 단위로 겨우 유지됐고, 차별연구팀은 거의 활동을 일구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존재 또는 전환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고민을 발전시키고 정리하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한 해가 흘러갔다.

한편 활기 프로젝트 역시 상반기 ‘저공비행 시즌2’ 학습 프로그램을 꾸려나간 것 이외에 기금조성 등 애초의 취지에 맞는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활기 프로젝트의 정체 역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상황, 담당 활동가 개인의 조건과 인식 변화라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의회 접거 농성까지 갖가지 난관을 뚫고 마침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는 기적을 일구었으나, 활기는 정체되고 네트워크는 위기를 맞은 채 2011년이 저물었다.

- 조직 형태 : 개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 반상근활동가 : 어쓰를 반상근활동가로 모심(1월~12월)
- 11기 운영팀(2011년) : 어쓰, 공현, 둠코, 엠진

- 조직 체계
 - [상반기]
 - 워크숍 기획팀: ‘청소년인권활동가’ 되기를 지원하는 교육,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한 ‘학생인권상담 워크숍’
 - 차별연구팀: 여성주의팀의 고민을 확장하여 반차별, 소수성,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재, 학교의 차별 공식 등을 미시적으로 연구
 - * 활기 프로젝트팀은 네트워크 외부 단위로 성격이 점차 진화
 -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역시 ‘조례본부’ 중심으로 외부에서 굴러감

 - [하반기]
 - 사실상 팀이 굴러가지 않고 학생인권 상담 심화워크숍,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 대응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번역 활동 정도가 이루어짐

■ 2012년, 네트워크의 전환을 결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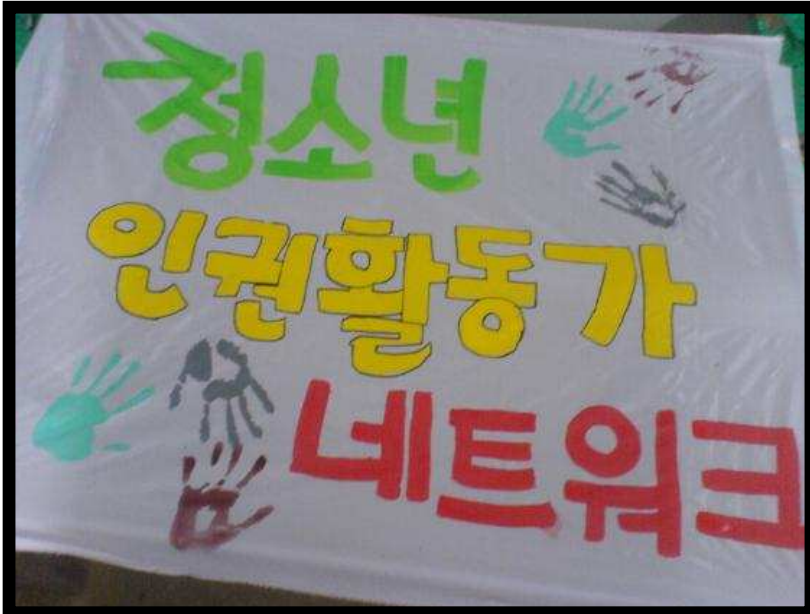
2011년 말부터 본격화된 네트워크와 활기의 운명에 관한 논의 결과, 2012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청소년활동기반 조성 프로젝트, 활기’를 통합하여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담당해 왔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왔고(이는 네트워크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인권운동은 이수나로와 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로, 교육사업은 활기로 분화·발전되었기 때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는 새로운 활동가들을 모아내기 어려운 상황적 변화가 있었고 △활기가 하고자 했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활기의 남아 있는 구성원이 대부분 겹쳐 논의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활기 역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는 네트워크가 담당해왔던 역할 가운데 △청소년인권운동 담론 형성 역할은 활기의 ‘청소년운동 월 간담회’와 ‘계절 간담회’로 이어나가고 △활동가 역량 강화와 인권교육 역할은 활기의 강좌 사업(재정 강좌, 법(法) 강좌 진행, 청소년론 강좌 준비 중)으로 이어나가고 △활동가 네트워킹 역할은 활동가대회, 메일링리스트 운영 등으로 이어나가고 △정책보고서 작성, 연구사업 등은 수행 단위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2006년 3월 닷을 올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12년 3월 ‘활기 간담회’ 준비를 끝으로 여섯 해 동안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항해를 마쳤다. 네트워크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던져왔던 물음표는 남아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이어지고 있다.

2부

자료편



배경내, 「광장에 나온 청소년 - 학생·청소년 인권운동 본격 시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5 인권보고서」 미 발표자료집, 2006. 03.

광장에 나온 청소년 - 학생·청소년 인권운동 본격 시동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두발자유 불꽃으로 학생인권 요구 본격화

2005년은 학생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주체적 저항이 조직적으로 분출된 한 해였다. 그 정점에는 두발자유 외침이 자리잡고 있었다.

1) 온라인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광장으로

“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없다. 2000년 노컷운동이며, 어게인!” “2005년을 두발자유 원년으로!” 2005년은 2000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던 두발자유운동이 본격적으로 재기동된 한 해였다. 2000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두발자유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당시 교육부는 단위 학교별로 학생 의견 수렴하여 규정을 마련하리면서 단위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 두발규제라는 폭력은 변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 2005년은 2000년 운동의 한계를 닫고 두발자유를 새롭게 열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흐름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새학기에 들어서자 먼저 온라인에서부터 두발자유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서명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아이두넷이 개설한 노컷(No-Cut) 게시판에는 3월에만 1만2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온라인을 달군 두발자유 요구는 학내 시위로 옮겨붙었다. 3월 분당 대진고등학교에서는 “인권의 공동묘지 대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O CUT” 등 두발자유를 외치는 락카 시위가 있었다. 이어 4월에는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천 명이 넘는 지지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4월 9일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주최로 열린 두발자유 청소년 대토론회에서는 많은 청소년들과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2005년을 두발자유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후속모임으

로 제안된 ‘두발자유 학생운동본부’는 5월 청소년 거리집회를 준비하기로 결의한다. 5월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개학 바로 다음날 학생 150 명이 집단적으로 강제 이발을 당해야 했던 서울 송파공고 학생들은 5월 19일 두발자유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학내시위를 벌였고, 26일에는 성남 풍생고에서 1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와 두발자유와 학생 존중을 외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잘려나가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이라는 자각 속에 학내 시위는 징계의 위협을 뚫고 이처럼 여러 학교로 번져 나갔다.

한편, 개별 학교에서 간헐적, 개별적으로 일어나던 저항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 요구가 거리에서 조직적으로 분출되기도 했다. 5월 7일 내신등급제 등 입시경쟁 과열로 희생당한 자살학생 추모 촛불문화제가 교육당국의 징계 압력과 생활지도교사들의 대규모 동원으로 살벌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지 일주일 뒤, 14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두발자유와 학생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6백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다녀갔고, 대구에서도 같은 행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두발자유 학생운동본부는 행사에 앞서 12일 분당과 서울 10여 곳에 흩어져 홍보 게릴라전을 펼쳐 청소년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5월 7일과 14일 거리집회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예방하라는 지침을 내놓았고, 6일 서울시교육청도 집단행동 예방지도팀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교육당국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거리집회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생활지도 교사들과 장학사들이 운집한 가운데에서도 당당히 행사를 열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두발자유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운동본부’ 역시 행사 준비를 지원하고 참가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시도를 막아내는 데 조직적 힘을 보탤고, 그 결과 대량 징계와 자퇴가 속출했던 2000년 두발자유운동에 비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경남 진주에서는 이미 4월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거리 캠페인과 교육청 앞 1인시위를 벌였고, 여름 방학을 맞은 8월에는 전주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청소년들이 두발자유와 차별에 반대하는 거리집회에 나섰다. 전주의 거리 캠페인은 전북청소년인권모임이 결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처럼 2005년 상반기는 청소년들의 저항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나간 시기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저항은 6월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학기에 들어서자 아예 소강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물론 청소년들의 저항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의 대사회적 요구를 밝히는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어 19일에는 수원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두발자유 거리 캠페인과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1학기에 폭발적으로 분출됐던 열기를 이어나가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기대와 체념, 자율과 자유 사이

이처럼 청소년들의 저항이 사그라진 이유에는 교육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와 국가인권위의 실효성 없는 권고가 기대와 체념 사이의 혼란을 부채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14일 거리집회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생 두발 지도시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 방법은 지양하고, 학생회의 두발 관련 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할 때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 참고 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강제 이발을 분명히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2000년 두발자유운동의 결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라는 교육부 권고에 비해 한 단계 나아간 것임에 분명했지만, 여전히 단위 학교별 규정 마련이라는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교육당국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담을 회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강제이발이 금지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저항을 무마하는 효과를 일정 정도 발휘했다.

이어 7월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두발 제한이 교육목적 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단위학교별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말해 두발규정 자체의 폐지를 분명히 요구하지 못한, 어정쩡한 입장에 머물렀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생생활규정은 교육청에 지도감독책임이 있다고 미루고, 교육청은 다시 단위학교의 재량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유아무아했다.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애매한 입장은 결국 학교라는 영역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학교가 개정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고 규정을 개정한 학교도 미미한 변화에 그쳤다. 9월 국정감사에서 구본회 의원(열린우리당)이 2005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가운데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 요소를 개정하지 않고 상관없는 내용을 고치고서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가 46개 학교,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 매우 미약한 학교가 90개에 달했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57.3%가 학교생활규정이 나아진 게 없다고 답해, 결국 2005년 상반기 운동의 불꽃은 구체적인 학교의 변화를 낳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강제 두발단속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강제이발을 자행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육청 지침은 문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형국이였다. 현실은 이처럼 강고했다. 그만큼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청소년들의 체념도 확산됐다.

또한 운동 주체들 사이에서도 두발자율과 두발자유를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내용을 겪었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교육당국과 국가인권위의 발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현재의 학교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두발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과 두발규제는 그 자체로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인권침해이므로 폐지를 얻어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계속된 것이다. 실제 5.14 집회 때 발표된 학생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전교생 설문조사,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학생 재투표, 개정절차 공개, 학생회 법제화 등은 세밀하게 규정하면서도 두발규정 자체를 없애라는 명시적 요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부 입장 차이 속에서 두발자유 쪽으로 명시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비롯이라도 하듯, 9월 국정감사 시기 구노회 의원이 학생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학교의 냉혹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구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학생들이 학급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학교생활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14.9%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학생 의견을 수렴해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부하면 그만인 현실이 바뀌지도 않았다.

3) 성과와 한계

2005년은 두발자유를 기치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요구를 조직적으로 펼친 한 해였다. 강제이발을 중단하라는 교육청 지침,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끌어낸 것 역시 청소년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낳은 성과였음에 분명하다. 또한 예년에 비해 청소년들의 집합적 저항 이후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의 운동은 여전히 많은 한계 속에서 마무리됐다. 우선 2005년 두발자유 합성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온라인에서의 서명 참여를 제외하면,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은 서울과 몇 개 도시에서만 머물렀다. 둘째, 운동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뒷심이 부족했다.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타올랐던 청소년들의 분노를 하반기까지 이끌어내갈 수 있는 준비된 계획과 운동주체가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5.14 집회를 준비했던 학생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운동본부는 애초 계획했던 후속사업들-학교별 상황 분석, 토론회 개최 등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해체 선언도 없이 유명화됐다. 그 결과 단위 학교의 변화를 감시하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학내 저항을 이끌어내거나 지원할 수 있는 운동단위를 만들지 못한 채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셋째, 두발자유와 두발자유 사이의 미묘하면서도 거대한 긴장이 운동주체들 내부에서 해소되지 못한 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인권운동진영이라고 부를 만한 이렇다 할 운동 주체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논쟁이나 체계적 계획 없이 해마다 비슷한 이슈의 운동이 반복되고 별다른 성과없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한계를 다시금 확인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주체들이 끈끈한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뿔뿔이 운동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이 같은 청소년 인권운동의 고질적 한계는 2005년 5월 21일, 9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로 열린 ‘청소년 인권운동, 미래를 본다’ 토론회에서도 짚어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2006년의 과제로 남겨졌다.

2.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인권문제 가시화

2005년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인권운동의 흐름이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문제에까지 확장한 해였다.

1) 실업계고 청소년, 청소년 이반 인권문제 제기

2004년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 결성됐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8월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실업계고 청소년들이 현장실습과정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3개월간의 자료 조사, 현장실습생과 실업계고 교사 심층면접 등을 거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2월 14일,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는다. 네트워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를 통한 현장실습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을 명분으로 실업계고 청소년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착취하고 있는 기만적 현실을 폭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고용 현장실습생들은 실습장소와 실습조건도 모른 채 중간업체를 끼고 실습을 나간 뒤, 야간 불법노동과 시간외수당 착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노동 강요, 쉬는 시간 박탈, 성희롱, 위협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상 파견이 금지돼 있는 업종에 불법적으로 파견되고 도저히 실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조건에도 교육이 아닌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단위학교에서는 여과과정도 없이 학생들을 내보내기에 바빴고 사후 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교육당국 역시 현장실습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현장실습생을 무권리 상태로 등떠미는 교육당국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지도감독의 강화,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 등을 대책으로 내놓는 한편,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사 결과는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자체 실태 점검과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은 이듬해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게 된다.

2005년에는 청소년 이반이 당면하고 있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5월에 열린 9회 인권영화제 사전제작 지원작으로 만들어진 <이반검열>이라는 작품은 학내에서 청소년 이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문화방송 <뉴스투데이>가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묘사하는 등 청소년 이반에 대한 혐오와 무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에 같은 달 25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41개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방속 측의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를 요구했다.

2) 남은 과제들

청소년 인권운동이 점화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폭력과 차별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다행히 인권운동 진영 내부에서 청소년 소수자 인권문제를 책임지고 제기할 만한 운동주체가 일부지만 형성된 것은 2005년이 낳은 뚜렷한 성과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운동의 흐름은 미미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소수자 당사자들의 참여와 조직화가 학생인권 이슈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은 이 운동이 안고 있는 무거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아직도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이슈들도 많다. 소년구금시설이나 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장애청소년, 복출신 이주 청소년 등의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청소년 인권운동의 중심 이슈였던 학생인권 내부에서도 학생 청소년들의 경험을 독자적으로 제기하는 운동 흐름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인권운동 내부에서 반차별의 감수성을 불어넣고 운동판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그 외에도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었을 겁니다.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흐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한계 탓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 워크숍

- 때: 2006년 2월 19일(일) 오전 9:30~오후 6:00
- 곳: 노동사목회관 6층 온돌방(6호선 보문역 7번출구, ☎924-2721)
- 누가: 청소년인권을 고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과 비청소년
- 참가비: 청소년 3천원/ 비청소년 5천원(점심 제공)
- 주최: 다산인권센터/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이수나로

[1] 왜 모이나?

- 청소년 인권운동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 누가 누가 있나 얼굴 한번 보자.
-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해 맘껏 수다를 떨어보자.
- 각자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보자.
- 청소년 인권운동, 을 한해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생각을 모아보자.

[2] 누가 모이나?

- 이미 청소년인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인권에 관심있거나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개인들
-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3] 어떻게 진행되나?

시간	주제	진행방식
----	----	------

9:30	등록/ 이름표 만들기	
10:00	몸 풀기 마음 열기 - 네 마음을 보여줘!	얼음을 녹이는 놀이 프로그램
10:30	<1부> 최근 청소년인권운동 의제별 평가 : 두발규제반대/학생회법제화/학내종교자유/체벌/18세선거권/청소년노동인권/입시교육정책(내신등급비평준화수능) 등	각 의제별로 얘기하고픈 모둠을 찾아가 토론→ 신호등 토론 →전체 공유 (참가자가 얘기하고픈 인권의제 추가 제안 가능함)
12:30	맛있는 점심	점심 제공
13:15	몸 풀기	노곤함을 깨우는 놀이 프로그램
13:30	<2부> 청소년 인권운동, 현재를 본다 : 청소년 인권운동을 고민하면서 답답했던 점들 나누기 (예) ▶ 한해살이 운동: 장기적 계획이 없다, 오래 운동하는 청소년이 없다 ▶ 스타언론 중심성: 언론이 만들어내는 스타 중심으로 운동이 취약파락된다 ▶ 뿔뿔이 운동: 구심이 없다 ▶ 외톨이 운동: 함께 할 친구가 없다, 학교는 꿈쩍도 안 한다 ▶ 정부 주도성: 각종 정부 위원회가 '청소년 인권'을 주도해 나간다 ▶ 청소년과 비청소년 : 둘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맺기가 원치 모호하다	참가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고민을 먼저 적고 주요 논점 뽑기 → 모둠별 토론 → 발표와 전체 토론
15:30	잠깐 쉬	
16:00	<3부> 청소년 인권운동, 미래를 기획하자 : 청소년 인권운동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 모색	청소년인권운동의 과제와 극복방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기차역 토론 → 발표 → 참가자 추가 제안
17:20	종합 토론	
18:00	뒷풀이	뭣 다한 이야기 풀기

[4]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고근예 (017-214-3550, 010-2434-1671)

-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이수나로> 조상신 (017-354-1217)
-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전누리 (016-297-9803)

[5] 오시는 길



<워크숍 참고 자료>

워크숍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소년인권운동' Tip!

청소년인권운동이란?

- '청소년 선도운동'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청소년인권운동'

오늘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은 많습니다. 그 모든 운동들을 청소년운동이라고 지칭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선도운동입니다. 청소년선도운동은 대체로 관변단체나 혹은 기성단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주도되어온 운동으로, 청소년을 이 사회의 객체이자 성인보다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보호·훈육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 운동은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하고 지도하려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운동의 예로 바로 순결서약운동이나 청소년10시 이전에 귀가시키기 운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박탈하려고 하는데 있으며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의식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선도운동과 대비되는 관점에서의 운동이 바로 ‘청소년인권운동’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선도운동과는 다르게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을 억압하는 국가 혹은 학교의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의 비인권적 제도와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크게 두드러지며 탈학교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청소년, 청소년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억압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청소년인권운동의 한 맥락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들이 권리를 얻기 위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선도운동과 대비됩니다. 두발자유운동과 종교자유운동, 학생회법제화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왜 시작됐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의 청소년들은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발제한과 체벌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했고, 0교시와 강제야자로 점철되는 입시주의로 인해 매일매일 숨통조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온갖 무시와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처참한 현실 앞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불만을 품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들은 이내 한숨소리와 함께 체념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적 조건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심각한 모순을 느꼈고, 자신들의 기본권이 짓밟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청소년을 제약하는 논리의 허구를 발견했고 인권유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나쁜 원인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이 갖는 정당성과 사회·학교의 개혁을 곳곳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소년인권운동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청소년이 자신들의 인권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벌이는 노력, 즉 빼앗긴 인권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간 청소년인권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주체적인 조직화, 연대, 개인적 투쟁, 기성 시민 단체의 조력, 등 수많은 운동들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보다 성숙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위해 운동의 방법과 전략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바로 그런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왔나요? (약사)

- **1995년** : 최우주 군 강제야간자율학습 **헌법소원**제기 의사표명
 - ◎ PC통신 학생복지회 결성. 학내 인권유린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
- **1998년** : 송과공고 학내 두발자유 종이비행기·풍선 시위로 두발자유화.
- **1998년** : 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 본격적인 ‘학생인권’ 개념의 도입과 대두
- **2000년 3월** :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학생연합**)’ 결성
 - ◎ 학생인권보장과 학교민주화를 필두로 하는 청소년 주체 대중조직표방
- **2000년 5월~12월** : **두발자유화** 운동 전개
 - 온라인 서명운동 14만명 돌파(청소년 웹연대 with)
 - 학생인권&학교민주화 선언 및 오프라인 두발자유화 시위(학생연합)
 - ◎ 교육부의 학교별 자율방침에 반대하여 ‘인권운동’의 의의를 수호
- **2001년**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운동 (학생연합)
 - ◎ 학내 운영 결정의 학생참여를 통한 형식적 학교민주주의 주장
- **2001년** : ‘**교칙을 찾자! 인권을 찾자**’ 캠페인 (인권운동사랑방, 학생연합)
 - ◎ 200여개 중고교 교칙분석결과 보고서 발표. 학생인권침해 규정이 거의 모든 학교의 교칙에 명문화되어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 **2002년** :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정책관련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합법화에 반대
 - ◎ 인권의 측면에서 체벌을 반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함.
- **2002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캠페인 (행동하는 젊음 ‘와’)
 - ◎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노동권리 인식의 확산
- **2002년** : 학교비판 글 개재로 인해 부당퇴학 당한 **허성혜** 학생의 복학 투쟁
 - ◎ 학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내부고발 등.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싸움.
- **2003년** : **18세 선거권** 운동 (18세 선거권 낮추기 연대 등)
 - ◎ 학교 내 억압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얻어 내고자한 운동.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깨기 위한 시도
- **2003년** : **NEIS반대** 운동 (청소년의 힘, 민학연, 학생연합, 아이두, 고슴도치 등)
 - ◎ 정보인권 개념의 등장과 확산.
- **2003년 11월 3일** : 학생의 날 ‘**청소년 10대 요구안**’ 발표(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2004년 :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1인 시위 및 단식투쟁 & 대장정 (로이 등)
 - ◎ 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의 1인 시위를 통해 촉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구조를 이용한 미션스쿨의 파행적 종교강요 행위가 알려짐
- **2005년 : 학생회 법제화** 운동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등)
 - ◎ 유명무실한 학생회의 실질적 권한회복을 위해 법제적 대안제시.
- **2005년 3~4월** : 포털사이트 DAUM의 ‘아고라’에서 **두발자유**를 위한 서명운동시작, 락카시위 등 각 학교에서 산발적 두발자유화 시위 발생
 - ◎ 2000년 자율화방침이후 달라진 게 없음. 학생들의 산발적인 저항발생
- **2005년 5월 7일 : 입시과열로** 숨진 학생추모대회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 내신등급제에 대한 고1들의 불만 등 경쟁적인 입시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판이 동시에 맞물려 많은 수의 청소년이 참가
 - ◎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매체의 도움으로 청소년의 대중적 투쟁이 촉발됨
- **2005년 5월 14일** : 두발자유를 위한 거리축제 개최
(캠페인 - 학생인권운동본부, 거리축제 - 두발자유를 위한 운동본부)
 - ◎ 두발자유화가 아닌 학생참정권 하의 학교별 재조정인 두발자율화를 주장
 - ◎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학교별 재조정 자율화방침 지시
두발제한을 인권침해라고 발표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이 나옴.
- 2005년 5월~6월 송파공고, 풍생고 등 두발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시위발발
- 2005년6월~11월 서울,전주/진주,11월 수원 등지 두발자유 관련 소규모 집회, 캠페인 진행.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행동하는 청소년, 수원여고, 이수나로 등)
- **2005년 12월 14일** : 간접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실업계 현장실습 실태고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노동철폐위원회)
 - ◎ 소외된 실업계 학생들이 현장실습장에서 당한 인권침해와 노동권침해 고발

김이정민, 「청소년 ‘선도운동’ 에서 ‘인권운동’ 으로 : 청소년인권운동 오늘과 내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6. 02. 21.

청소년 ‘선도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

청소년인권운동 오늘과 내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이정민

지난 19일 노동사목회관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청소년인권운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가 워크숍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가 개최됐다. 다산인권센터,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가 공동 주최했다. 워크숍에는 청소년운동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주로 참석했다.

몇 년 전부터 두발자유화, 학내 종교자유,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 등 청소년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전까진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청소년 ‘선도운동’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 운동들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진보적 청소년운동’으로 주목 받아 왔다. 지난 해 5월에 있었던 두발자유를 위한 거리축제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낡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워크숍을 공동 주최한 ‘아수나로’의 조상신 활동가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인권운동이 권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별 활동 외에 전반적인 활동 공유 등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으며, 3~4년 전에 비해 오히려 관련 활동이나 네트워크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청소년운동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워크숍은 최근 청소년인권운동의 의제별 평가에 이어 현재 운동의 주요 고민들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의 부재, 이전 활동의 자료화 부족은 매년 반복되는 운동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됨에 따라 계속해서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운동 ‘1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활동가들과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워크숍에선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청소년 운동의 현재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상설 네트워크를 마련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료화하는 작업과 인권지침 가이드북 발간 등이 향후 과제로 논의됐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의 제약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이 많은 만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좀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발이나 교복, 종교 자유 등에 대해 불만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이들은 많아도 선뜻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사회의 지배 담론이 ‘청소년’을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을지 훈계나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찾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운동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토대나 자원 마련을 위해서도, 기성 세대의 성숙한 시각이 필요한 때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결성 제안서」,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후속모임 자료, 2006. 03. 19.

청소년인권활동가워크숍 후속모임 논의 안건

* 때: 3월 19일(일) 오후 12시

* 곳: 인권운동사랑방 3층 회의실

순서

[참가자 소개]

[논의 안건]

1. 후속모임 제안 배경 공유
2. 참가단위별 2006년 주요 사업계획 공유
3. 청소년인권활동가 상설 네트워크 결성
 - 1) 네트워크의 주요 역할
 - 2) 2006년 네트워크 공동사업과 주요 일정
 - 3) 네트워크 운영 방식 - 회의체계/ 재정/ 코디
 - 4) 네트워킹의 범위/ 참가 절차
 - 5) 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 여부

<자료>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결성 제안서

2006.3.19

인권운동사랑방

1. 결성 취지

- 지난 2월 19일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에서는 청소년 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으로 활동가 상설 네트워크 결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워크숍에서 네트워크 결성까지 결의되지는 못하였고, 3월 중으로 후속모임을 갖고 네트워크 결성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당시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인권운동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로서 △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기반의 부재) △빨빨이 운동(구심점의 부재) △정부 주도성(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미형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인권운동에 있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바람직한 관계맺기가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 오늘 후속모임에서 결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바로 앞에서 지적된 청소년 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자료/현안/활동/고민 등) 강화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 △청소년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형성 등을 일구어내기 위한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초기 걸음마단계에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이 네트워크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된다.

2. 네트워크 주요 활동 제안

1) 공동 사업

① 기획사업

- 2006년 청소년 인권운동의 정세를 고려하면서 네트워크가 힘을 모을 1-2가지 공동사업을 정하고 굵직한 운동 흐름을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 주제에 맞게 캠페인/ 집회/ 이슈페이지/ 온라인 서명/ 직접행동/ 대안논리 개발 등의 공동 활동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예] 학생인권법안/ 2006 두발자유 다시 한번!/ 교육불평등 문제 등

② 현안 대응 사업

- 주요 현안이 제기될 때 네트워크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조직하는 등 공동 활동을 펼쳐 나간다.

2) 교육

- 청소년 인권운동에 입문하고자 하는 신입 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 인권운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캠프가 필요하다.
-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캠프를 개최하여 교육과 네트워킹의 계기로 삼자.

3) 공동 연구 작업

- 청소년 인권운동의 이론화 과제 결정→청소년 인권운동 워크숍 혹은 캠프에서 공유→보완→자료집 등으로 외화하는 방식으로 공동 연구 작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론화의 첫 과제로 청소년 인권운동 역사 정리를 제안한다.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는 지금껏 제대로 정리되지도 공유되지도 못해왔다. 역사는 오늘 운동의 거름이자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개돼 왔던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를 공동으로 기획,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 인권운동의 미래를 다시 여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한다.

3. 회의 체계

1) 일상적 소통과 회의를 위한 온라인 소통마당 개설

- 카페나 홈페이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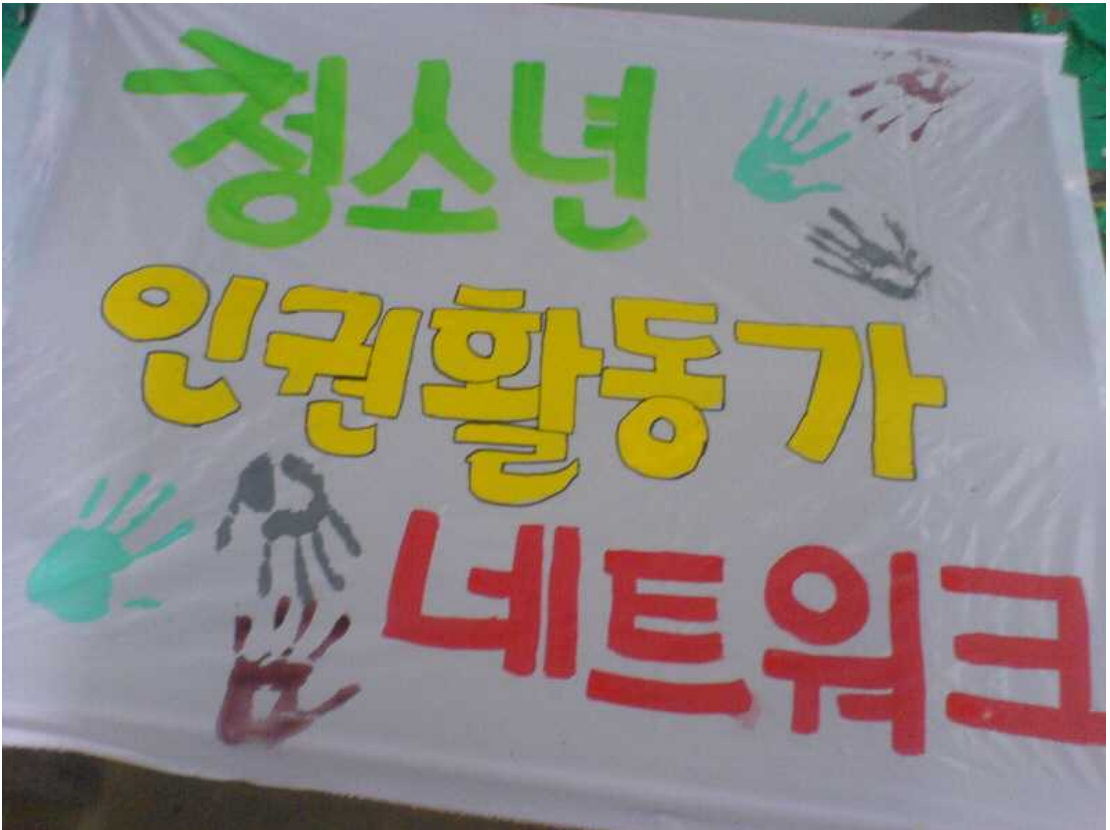
2) 정기회의

- 한 달에 한번 정도 오프라인 정기 회의를 갖고 상황 점검과 평가 진행

3) 코디(Coordinator) 순환

- 회의 조정과 사업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코디(조정담당자) 선출
- 2달 혹은 3달마다 새로운 코디 선출
- 코디는 3인 정도로 정해 집행력도 함께 담보 : 코디 각 1인이 공동사업, 교육, 공동연구 작업에 각각 결합하고, 그 외 네트워크 회원들은 각 팀에 하나씩 결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깃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장 사진, 2006. 10. 17.



배경내,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2007.02.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배경내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6년은 한국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운동주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한 해였다.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도, 운동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구심이 되는 단체들도,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독려하는 활동가도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한 발짝 나아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한두 명의 스타들에 의존하는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해 술한 의제가 생산되었지만, 정작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러한 반성에서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공식 결성되었고, 한 해 동안 청소년인권 정세를 개척하고 주도해나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네트워크의 존재와 함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청소년인권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매개 구실을 담당했고, 전교조·홍사단 등 기존 교육운동진영이 주축이 되어 등장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역시 청소년인권을 핵심적인 사회의제로 부각시키는 지렛대 구실을 했다.

사건, 사건, 사건...

2006년은 학생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이 연거푸 터져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월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에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내신·수능·논술이라는 가혹한 입시지옥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5월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른바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교권의 의미를 되묻는 사회적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6월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낳더니 8월에는 대구에서 ‘체벌 200대’ 사건이 터져 체벌 논쟁이 불타올랐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오래 그렇듯이 관심이 시들해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물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똥’ 사건 말고도 무수한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는 학교의 당연한 일상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으니까. 그럼에도 예년에 비해 이들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확산되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 저항, 학교를 겨냥하다

2006년은 거리나 광장에서뿐만 아니라 억압의 중심지인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주체적으로 요구한 청소년들의 저항이 눈에 띄게 늘어난 해이기도 했다. 4월 서울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2백여 명이 모여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내시위를 벌였고, 학교가 꿈쩍도 하지 않자 7월에 2차 시위를 준비하는 끈질김을 보였다. 이집게도 2차 시위는 학교측의 원천 봉쇄로 불발에 그쳤지만, 이들을 지원하고자 찾아간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학내 시위를 원천 봉쇄한 학교측의 탄압을 규탄했다. 5월에는 서울 동성고 오병헌 학생이 강제 0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아침 7시,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오병헌 씨는 체벌, 두발제한, 강제 0교시와 보충·야간학습, 외부 집회 참가 금지 등 학생인권을 억압한 학교를 비판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후 2차례에 걸친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병헌 씨는 징계에 대한 불복종도 계속해나갔다. 방학 중인 8월 초에는 7개 도시의 교육청 앞에서 학생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는 동시다발 청소년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수원 청명고에서 일방적으로 개악된 두발규정에 대한 저항으로 1차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1교시 야간학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을 틈타 일어난 1차 시위는 교사들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며칠 뒤 2차 시위가 계획되었지만, 이를 눈치 챈 교사들이 소지품 검사, 휴대폰 압수 등 대대적인 봉쇄 작업을 펼치면서 시위는 결국 무산되기에 이른다. 11월 학생의 날을 맞아서는 서울경기학생회연합 주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회 100인 선언이 발표되었고, 12월 8일 ‘인권의 날’을 앞두고서는 파주 금릉중학교 학생들이 체벌, 강제이발, 소지품검사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와 파주시교육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저항의 버팀목, 네트워크 뜻을 올린다

이러한 청소년 저항의 곁에는 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있었다. 네트워크는 자칫 각개 분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의 저항 소식을 널리 알림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적극 의제화하는 한편, 저항하는 청소년들을 징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원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독자적으로도 다양한 기획활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저항을 독려하고 청소년활동가들의 연대와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트워크의 출범은 2006년 2월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이 낳은 결실이다. 지금까지 지지부진을 거듭해 오던 청소년인권운동을 한 단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네트워크 결성이 제안됐고, 다음 달 후속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는 정식으로 뜻을 올리기에 이른다. 애초 청소년인권단체나 개인 활동가들의 느슨한 연대체 정도로 출발하고자 했던 네트워크는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행사 준비를 거치면서 활동에 가속도를 붙여나갔다. 단지 1회성 행사의 개최로 만족하지 않

고 2006년을 적어도 두발자유를 쟁취하고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지는 패기 아래 후속 활동들이 잇따라 기획됐다.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인권 탕탕 불 굴리기’는 학생인권법안 통과와 두발자유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 가정과 학교라는 유폐된 공간을 넘어 광장으로 나오는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학내 저항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학교를 직접 방문, 청소년들의 학내시위를 응원하는 ‘스쿨어택’ 사업은 학교라는 억압의 장벽에 대한 도전이자 학내에서의 청소년 직접행동에 불을 붙이기 위한 이중의 목표를 갖고 기획됐다. 스쿨어택은 상반기 서울 독산고와 양동중, 하반기에는 수원 청명고에서 진행되었다. 거리에서의 저항보다 억압의 심장인 학교에서 저항을 기획하는 일은 더 큰 용기와 청소년들의 결집을 요구한다. 학교와 사회가 가르쳐온 금기로부터 상상력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쿨어택은 소수 학교에서만 진행되었다고는 해도 청소년인권운동의 획을 긋는 새로운 시도였음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 네트워크는 청소년 여름 인권캠프를 통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누구에 의해서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발굴, 재정리하는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라는 기획기사를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되는 주간매체 <인권오름>에 연재하는 일도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불꽃처럼 타오른 청소년들의 저항을 책임 있게 밀고나가는 단위가 없어 몇 년간 정체를 거듭해 왔던 청소년인권운동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청소년인권을 가로막아 온 오래된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면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추동해 냈다.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은 청소년인권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격려, 지원하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고, 대개 서울 중심으로만 전개돼 오던 청소년인권운동을 전국화하는 작은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 저항하는 청소년, 징계위기에 놓인 청소년들과 연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운동단위가 상설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몫은 컸다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연대, 아래로부터의 선언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전과 성장은 교사들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구실도 함께 했다. 7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청소년단체가 함께 모여 발족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학생인권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국회 앞 1인시위, 학생인권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버튼 달기 운동, 학생인권 지지 선언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여러 참가단체들이 운동본부에 기대만큼의 조직적 힘을 신지 못하면서 의례적 활동 외에 힘찬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명분 쌓기 운동’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운동본부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2006년에 주목할 만한 흐름은 전교조 지도부나 소수 교사들의 활동에 머무르던 학생인권 지지운동이 전교조 조직 아래에서부터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9월 22일 경북지역 학생인

권백서 발간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북교사 인권지킴이 선언’을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11월 2일 학생의 날을 앞두고 ‘전북교사 학생인권지킴이 선언식’을 가졌다. 단 두 곳에 그쳤지만, 전교조 지부 차원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선언들은 청소년들의 삶 가까이에 선 교사들의 자발적 다짐과 연대를 이끌어냈다는 의미에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서는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배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예비교사 청소년인권 연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예비교사의 주요 과제로 받아 안겠다는 이들의 선언은 기성 교사들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됐다.

뒷짐 진 국가

이처럼 청소년의 존엄을 짓밟는 사건들이 연거푸 이슈로 떠오르고 억압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직접행동도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년 5월 교육부는 강제 이발이나 폭언 등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침해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현장 확인 등 사실여부와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처리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그러나 이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도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 수원 청명고와 파주 금릉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았고 교육청의 대처 역시 미온적인 수준에 그쳤다.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지침이 마련돼 단위학교에 전달되었지만, 학교현장의 적극적 변화를 추동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상반기 중 학생인권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였을 뿐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숱한 문제들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함을 버젓이 알면서도 종합대책의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교육부의 소극성은 체벌금지 법제화 방침의 실종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으로 체벌금지 여론이 끓어오르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은 1년 내내 국회에서 잠을 잤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연거푸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학생인권에 대한 열망을 외면했다.

현재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그나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부부처와의 조율, 국민적 공감대, ‘학교공동체’의 유지나 학교 명예 등 기능논리에 신경 쓰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학교 안 청소년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공동체’라는 허

을 아래 청소년의 존엄성을 볼모로 붙잡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와 다른 내일, 2007년의 파란을 준비하며

2006년은 청소년인권을 부여받고 끈질긴 싸움을 벌여나갈 구심으로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자리를 잡았고 청소년 주체들의 학내 저항이 확산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약을 이룬 해였다. 그러나 2006년을 휩쓸었던 ‘학생인권법 통과’나 ‘두발자유’라는 목표는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만큼 운동의 핵심주체들이 탄실하게 서지 못하고 대중화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학생인권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이 결집했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체들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고, 청소년인권 함성은 전국 곳곳에서가 아니라 몇몇 도시만을 중심으로만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력과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적·물리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운동의 의제가 여전히 ‘학생 인권’에만 머무르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가 청소년인권의 이름으로 제기되고 각 소수자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면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그리는 일은 2007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2007년은 학교라는 억압의 성벽을 허무는 작업을 한층 고양시켜나가면서도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문제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대선이 있다. 대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결집, 확장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구시대적 사회 인식에 종언을 선언해야 한다. 2007년은 2006년보다는 많은 자산을 갖고 출발한다. 2006년 활동이 낳은 결실이다. 그만큼 2006년보다는 좀 더 나은 2007년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파란만장 전국행진의 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혜규,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터넷뉴스 1318바이러스, 2006.12.30.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침해 고발과 함께 청소년인권운동 확산에 기여

정혜규 기자(바이러스)

올 한해 역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그 투쟁의 한 가운데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있었다.

네트워크에선 지난 5월 청소년 200여명이 참여한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을 개최했다. 또한 D고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오병현군의 징계를 막기 위한 대책위 활동을 펼쳤다.

6월부터 D고, Y중 등 두발규제로 침해 받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학생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스쿨어택 시위'를 벌였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등을 이동하며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외치는 전국행진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12월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경기K중 학생들을 도와 학교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올 한해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은 모두 네트워크 주위로 뭉치고 있다. 경기 C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한 활동가가 경기K고 앞에서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



전국행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바이러스

경기 K중 등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은 네트워크에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 학내 집회를 시도했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사실상 올 한해 언론에 알려진 청소년인권운동들은 네트워크가 주도하고 기획한 것이다.

청소년인권 활동가 네트워크는 누구?

네트워크는 이수나로,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 전북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그동안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지난 시기 청소년인권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늘 있었지만,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졌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이 네트워크라는 연대체를 만든 것은 청소년인권운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청소년 단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인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먼저 1, 2주에 한번씩 진행하는 네트워크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는 활동가는 10여명.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수나로의 유윤중 활동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전누리 활동가, 인권운동 사랑방의 배경내 활동가, 청소년 다함께의 박조은미 활동가 등이 있다. 이들은 각자 단체에서 모두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활동 해온 인물들이기도 하다.



Y중 스쿨어택 사진. 당시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고자 했지만,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측이 제재해 열지 못했다. ©바이러스

네트워크가 올해 한 대표적 사업, '스쿨어택, 전국행진'

네트워크에서 올해 진행한 사업 중 주목할만한 것은 스쿨어택과 전국행진이다.

스쿨어택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시위나 캠페인을 진행하면,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학교 밖에서 지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스쿨어택을 통해 인권침해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인권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학교에서 시위를 진행한 청소년에 대해 징계를 거론할 때,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쿨어택은 청소년이 인권운동에 나설 수 있는 안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쿨어택이 쉽게 진행되진 못했다. 학교측에서 청소년의 인권운동을 막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운동을 계속 진행할 청소년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Y중의 경우는 방과후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면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지방문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됐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회를 무산시켰다. 경기K고 역시 학생들의 시위를 사전에 인지한 학교 측에서 소지품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집회개최를 막았다.

이 결과 청소년의 인권운동은 위축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빠진 채,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학교 측과 대립하는 상황만을 만들었다. 유윤중 활동가는 “인권침해를 이슈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학교 측의 탄압이 심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스쿨어택을 평가했다.

자연스레 스쿨어택을 통해 학교와 관계없이, ‘학교 안에서 인권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청소년 주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졌다.

반면 전국행진은 전국적으로 고립 되어 있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을 한 힘으로 묶고, 각 지역의 청소년에게 인권운동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전국행진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연대하기 위한 기획으로부터 출발했다. 청소년인권 운동은 자연스럽게 청소년 활동가가 많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있었지만,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권운동을 이끌 중심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네트워크에서는 전국 행진을 통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등을 차례로 돌아다녔다. 지역에 내려가면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갔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자신만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인권 운동이 여러 청소년에 의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국행진을 통해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청소년 사이에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만큼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 전국행진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 활동가들이 45명 더 늘었던 것이다.

네트워크 운동의 성과와 넘어서야 할 지점, ‘더 많은 청소년인권활동가 만들기’

을 한해 청소년인권운동을 벌인 결과, 네트워크에는 성과와 함께 뚜렷한 극복지점이 생겼다.

무엇보다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모색하는 연대체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청소년이 인권침해를 호소할 때, 청소년을 위해 달려가는 단위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응해 기자회견을 열거나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안에서 인권운동을 하다 징계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했다. 스쿨어택이나 전국행진과 같이 기존의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을 벗어나 인권 개척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네트워크라는 연대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극복해야 할 지점도 명확하다. 바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몇몇 활동가 중심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의 인권운동과 함께 가야한다는 점이다.

유윤중 활동가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려면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했다”며 “일반 청소년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게는 '더 많은 청소년을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바이러스

이는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모색으로 이어진다.

유 활동가는 “지금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 두발규정을 개정하거나, 두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청소년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결국 네트워크에는 청소년인권 운동을 소수만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것은 그간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고민을 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네트워크에선 이것에 대해 고민을 넘어 해답을 줄 필요가 있다.

유 활동가는 “다수의 청소년을 어떻게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 고민이 든다”며 “네트워크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토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스쿨어택, 전국행진을 하며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였다.

네트워크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에 더 고발될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이제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청소년과 함께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다. 2007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올해의 성과를 뛰어넘어 청소년인권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돌규,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함성, 그 평가와 전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강연원고, 2006.12.16.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함성, 그 평가와 전망

양돌규

이 글은 2006년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의 표면 위로 분출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2006년의 흐름을 다루기 전에 잠시 2005년의 흐름을 살펴보고 2006년의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잡게 만든 청소년인권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과 한 가지 횡단적 사건이 눈에 띈다. 세 가지 흐름은 첫 번째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출범,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 세 번째로는 전교조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횡단적 사건으로는 단연 오병현 학생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개인 ‘오병현’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을 달리 하는 청소년 저항의 역사와 사건들이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아이코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들이 나름대로 조직화되고 결집된 첫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내신등급제와 청소년들의 저항 : 2005년의 흐름

2005년이 되자 청소년들은 강화된 입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내신등급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내신등급제는 학생부 성적을 5단계(수우미양가)의 절대평가에서 1~9등급의 상대평가로 바꾼 것으로서 교육부가 2004년 10월 도입하였다. 2008년 대입부터 내신등급제가 적용되는 것이었고 200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1989년생들은 이러한 제도와 맞닥뜨려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05년 4월 한 달 동안 6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 5월 동안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었다. 연일 TV를 통해 속출하는 청소년들의 자살 사건이 뉴스로 소개되었고 이미 중간고사 기간 피부로 내신등급제의 억압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인터넷의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내신등급제 반대 카페¹⁾는 개설한지 2주 만에 회원 수가 1만 8천여 명에

달했다.

청소년운동 단체들도 기민하게 대처했다. 2005년 5월 7일 광화문에서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주최로 ‘입시경쟁 희생 학생 촛불추모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²⁾ 5월 7일의 집회가 다가오자 각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는 7일의 집회에 청소년들이 2만여 명이 넘게 집결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자 당황한 교육부는 참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학생들은 이에 아랑곳 않은 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웹 포스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회 참석을 서로 독려했다.

행사 당일이 되자 촛불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광화문 일대에는 각급 학교 교사, 장학사들이 600여 명 넘게 배치되었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를 오가는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속속 모여 들어 촛불추모제가 열리는 시각에는 400여 명이 교보문고 앞에 집결했다.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내신등급제에 반대했다.³⁾

5월 7일의 집회가 끝나자 언론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저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강화론에 반하는 흐름이라면서 본고사 등을 본격적으로 담론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러자 5월 7일 이후 토요일마다 이어진 다섯 번의 집회를 통해 학생들은 ‘내신도 본고사도 입시교육은 싫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는 내신등급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갔다.

정리하자면 2005년은 내신등급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저항적 주체성이 강하게 분출되었다. 비록 그것이 일회적이라는 한계를 지닐지언정 2000년 두발제한 철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에 이어 지속되어 온 청소년들의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인권 의제와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맹아적 형성

2006년 청소년을 둘러싼 이슈는 ‘죽음의 입시 트라이앵글’ 동영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얀늑대’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은 2006년 3월 중순, 인터넷 상에서 빠

1) 주소는 cafe.daum.net/freeHS이다. 2006년 12월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다.

2) 청소년들이 주최한 ‘자살학생 추모제’는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1988년 7월 17일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자살학생 추모제 및 고등학생 결의대회가 있었고 또 1990년 학생자치활동 탄압에 맞서 목숨을 끊은 대구 경화여고 김수경 학생 추모제, 그리고 참교육을 외치며 분신한 충주 심광보 학생 추모제, 1991년 5월투쟁 과정에서 노태우정권 타도, 참교육 쟁취를 외치며 분신한 전남 보성고 김철수 학생 추모제 등이 있었다. 양돌규,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2006.

3) 동아일보, 「교육부 “촛불집회 징계 없다”…두발자유화 학생단체 14일 집회」, 2005년 5월 8일 23:59(인터넷 판 기준); YTN TV,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 열려…지방은 무산(종합)」, 2005년 5월 8일 07:46; 문화일보, “우린 입시 실험대상 아니다”, 2005년 5월 9일 13:20.

한편 지역의 촛불집회는 무산되기 일췌였다. 전주의 경우에는 같은 날 오후 7시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 시내 10여 개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학생부 교사, 1학년 담임교사 등 200여 명이 동원되어 집회에 참석하려는 학생 수십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 결국 집회는 무산되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고1 촛불집회 ‘무산’」, 2005년 5월 7일 20:35.

르게 퍼져나가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마다 퍼다 날라졌고 엠파스의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동영상 검색 건수가 2만 3,800여 건을 넘어섰다.⁴⁾ 뮤직비디오 형식의 이 동영상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수능·내신·논술’의 ‘죽음의 삼각형’ 아래 놓여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라이앵글의 배후에는 ‘학원, 학교, 대학’이라는 세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죽음의 입시 트라이앵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내신등급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내신등급제 문제가 2002년 0교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때처럼 이슈 파이팅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급격하게 동력이 소진되었던 점, 입시제도 차원으로 ‘대안’이 논의되면서 사태의 주도권이 언론, 교육 당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2006년 청소년운동에서의 주된 의제는 두발제한과 체벌을 핵심 고리로 한 ‘학생인권 보장’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로는 세 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출범,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 세 번째로는 전교조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의 배경부터 살펴보고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황당적 사건으로서의 ‘오병헌’ 학생의 싸움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민주노동당 발의 학생인권법

2005년 12월 25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교육상임위)이 학생회 법제화, 학운위에 안전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2006년 3월 8일,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학생인권법의 내용으로는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에서 인권침해 금지, △개인소지품, 일기 검사 행위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총학생회 구성, △학교가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학칙 제·개정시 총학생회와 협의, △0교시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체벌금지, △각종 차별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실시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06년 9월 6일 최순영 의원은 국회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으면서 학생인권법 통과 D-100일을 선언하고 200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 불꽃토론’, ‘학생인권침해 증언대회’, ‘9월 15일 촛불집회 참여’, ‘학생의 날(11월 3일) 관련 행사 준비’ 등을 계획하여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회 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 중앙일보, 「내신·논술·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 교육 비판한 동영상 파문」, 2006년 3월 29일 09:06.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은 미디어 DAUM이 선정한 2006년 UCC동영상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데일리 뉴스, 「올해 최고의 동영상 UCC는?」, 2006년 12월 5일 10:37.

2) 전교조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2006년 5월 15일 전교조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선언하고 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006년 7월 26일, 전교조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18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이하 아살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날 아살본부는 8월 31일부터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9월 16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8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해 탈수증상과 급성신부전증을 앓으면서도 출범식장에 참석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이제까지 우리는 아이를 어른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대상으로만 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꿈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 속에서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살본부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 7대 중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1.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장, 2. 학생 자치권 보장, 3. 입시지옥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보장, 4.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보장, 5.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보장, 6.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 7.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등이었다.

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출범과 2006년 활동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출범은 2005년의 활동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5월 7일의 촛불추모제 이후 몇 차례 이어진 집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노정되었다. 그리고 촛불추모제 이후 청소년들의 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었고 2005년 11월의 ‘안티수능 페스티벌’⁵⁾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하지만 2005년 5월부터 11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양한 공동 활동을 전개하면서 형성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분명 큰 성과 중 하나였고 이를 조직적으로 갈무리할 필요 또한 분명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2006년 2월 19일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가 열렸다.⁶⁾ 이날 워크숍에서는

5) 제3회 수능반대 페스티벌은 2005년 11월 23일 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었다. 수능반대 페스티벌은 학벌 없는 사회 학생모임,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전교조 등이 주최하였다. 참고로 이 행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회(2003년)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회(2004년)는 신촌 창천 놀이터에서 각각 열렸고 4회(2006년)는 11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16일 수학능력시험일에는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앞에서 ‘2006 입시KIN(즐) 페스티벌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연합뉴스, 2005년 11월 23일 20:33; 오마이뉴스, 「수능...12년을 한방에 결정하는 한탕주의」, 2006년 11월 13일.

6) 유윤중,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을 다녀와서, 두서없는 정리」, 이수나로ASUNARO, 2006년 2월 21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청소년인권운동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를 △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기반의 부재), △뿔뿔이 운동(구심점의 부재), △정부 주도성(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미형성) 등으로 정리”하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으로 활동가 상설 네트워크 결성”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19일, 초동 주체들이 모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⁷⁾ 네트워크는 학생인권법안, 두발자유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기획사업을 벌여나가면서 주요 현안이 제기될 때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해 청소년인권활동가 캠프를 개최하여 청소년인권운동 신입 활동가들과 기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운동을 이문화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온라인 소통마당을 개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정기회의를 갖는 한편 회의 조정과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를 선출하고 코디는 업무의 과중을 막기 위해 순환하여 2~3달에 한 번씩 새로운 코디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네트워크는 인권운동사랑방 웹진 인권오름 <http://sarangbang.or.kr/kr/oreum>에 2006년 5월 3일부터 연재기사로 청소년인권운동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첫 편은 1995년 춘천고등학교 최우주 씨의 헌법소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1987년 서울지역고등학교생운동연합 결성, 1989년 전교조 출범과 고등학생들의 참교육 쟁취투쟁, 1990~94년의 공안탄압 과정에서의 고등학생운동, 고등학생운동 관련 죄담, 1995년 하이텔 학생복지회의 출범과 ‘중고등학생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운동사를 정리해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2006년 7월 26~27일에 걸쳐 서울 성공회대학교에서 <청소년 파란을 만드는 장 여름인권캠프>를 개최하여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강연, 놀이,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인권운동은 2005년과 같은 구심점 없이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의제 선도성하에 하반기 일정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캠프가 끝난 후 곧바로 네트워크는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인천→대전→전주→울산→대구(총 6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개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 후 지역 청소년 단체, 전교조 지부, 청소년들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네트워크의 활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은 스쿨 어택(School Attack)이었다. 스쿨 어택은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은 학내에서 그에 맞춰 행동을 개시한다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아직은 자유롭게 저항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운 학교 구조를 극복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한 응원이었으며 동시에 폐쇄적인 학교의 금기를 깨는 싸움’이었다. 즉, 그 자체가 ‘폐쇄적인 학교의 억압과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직접행동’인 동시에 ‘저항의 촉매제’로서의 성격도

7)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결성 제안서」, 2006년 3월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지니고 있었다. 스쿨어택은 6월 5일 서울 독산고등학교, 7월 19일 서울 양동중학교, 9월 6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⁸⁾

그리고 8월 말 네트워크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에 공식적으로 참가를 결정하면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제 활동에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하반기 활동을 학생인권법에 맞춰 진행하였다. 9월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학생 인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개최하여 10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네트워크는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스티커를 모았고 그 스티커를 붙인 ‘학생인권 탕탕불’을 만들어 명동성당에서부터 교육부까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4) 오병현, 저항하는 청소년의 아이콘

2006년 4월 19일 서울 양동중학교에서는 100~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학내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불과 십여 분만에 교사 4~5명의 제지로 곧 해산 당했고 학교는 즉각 교사 및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대처방안과 징계를 논의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위를 계획하거나 앞장 선 학생 7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⁹⁾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에게 알려지면서 비로소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¹⁰⁾를 결성하고 5월 10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 인권 찾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규율체제는 끄떡도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권을 찾기 위해 벌이는 운동에 징계로 화답했다.

2006년 5월 8일 아침에는 서울의 동성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오병현 씨가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오병현 씨는 두발규정 폐지, 비상식적인 징계 금지, 강제 0교시와 보충·지율학습 폐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학교 측은 7월 4일 복장용의규정 불이행, 징계 거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허위사실과 허락받지 않은 사실 유포, 학생 선동과 질서 문란 등의 사유를 들어 학교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내렸다.¹¹⁾

8) 스쿨 어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윤중, 「억압의 실체들과 온몸으로 부딪히기」, 2006년 11월 29일, <http://cafe.naver.com/webssaulabi/1625>

9) 유윤중,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인권오름』 제3호, 2006년 5월 10일,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8>; 성현석, 「청소년 인권, 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제」, 『프레시안』 2006년 5월 12일; 『한겨레신문』, 2006년 4월 22일.

10) 준비위원회에는 문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내 종교자유,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이 함께 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여하고 있다.

11) 전누리, 「다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동성고 오병현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인권오름』 제11호, 2006년 7월 5일, <http://www.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10&page=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5월 8일 오병헌 씨의 1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부터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하면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시에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다.¹²⁾ 그러나 결과는 결국 징계조치였다. 징계가 내려지던 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성고 바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행위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징계제도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하라! 징계받아야 할 것은 오병헌 학생이 아니라 억압적 규칙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청소년 인권활동가들과 35개 인권운동단체 등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했다.

징계 조치 후 7월 7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촉구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후 이루어진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징계권은 학교 자율권의 영역이라며 발을 뺀고 사회통념상 두발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¹³⁾

9월 19일 동성고 측은 청소년인권운동 등 사회운동진영의 비판에 밀려 재심위원회를 열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같은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오병헌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비판하면서 징계에도 불복하고 있다.

오병헌은 2006년의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매우 예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던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씨처럼 1인시위의 형태로 학교에 저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는 다르게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에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합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했다. 오병헌의 존재 자체가 학생인권법, 아이들 살리기 운동 등 추상적 구호 차원에서의 실천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을 건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3. 청소년인권운동의 평가와 전망

2006년의 청소년인권운동을 의제와 조직,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무척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의제 측면에서는 ‘청소년 인권’이 대사회적으로 광범한 공감을 얻으면서 뚜렷한 의제로 확립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래로 청소년운동의 주된 의제로 ‘인권 프레임’이 대두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⁵⁾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여러 가지 인권 이슈들, 예컨대 두발자유부터 시작해서 종교자

12) 최경배, 「고3 재학생, ‘체벌·두발규제 개선 등 인권보장’ 학교앞 1인시위」, 『노컷뉴스』, 2006년 5월 8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25250>

13) 최승덕, 「서울시교육청, 오병헌군 징계 해결 요구 거절」, 『프로메테우스』, 2006년 7월 8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60708/20060708152900.html>

14) 오병헌 씨의 투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문화연대 웹진 ‘문화사회’에 실린 배경내의 글을 참조하라. 배경내, 「오병헌, 그의 불복종을 생각하다」, 2006년 10월 12일, http://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13_8&id=13&webzine_no=3

15) 백초록, 「학교 위기, 프레임 그리고 학생의 저항」,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논문, 2003.

유, 학생회법제화, 체벌 금지,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노동인권, 18세 선거권 쟁취 등으로 나누어져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면 2006년에는 ‘학생인권법’을 매개로 하여 종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매우 광범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⁶⁾

두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조직적 기틀로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장기적 계획의 부재, 활동가의 부재, 구심점의 부재 등을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조직적 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청소년인권운동은 또 다른 도전을 지속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제 측면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의 입법화를 넘어서서 학생인권 의제를 보다 광범하게 사회화시켜 나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¹⁷⁾ 또한 학생, 청소년인권 의제를 다른 연대 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개입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¹⁸⁾

조직적 측면에서는 보다 광범한 학생, 청소년들의 대중적 조직화에 대한 전형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2006년 여름의 전국행진을 통해 연결된 다양한 지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전교조 사무실, 청소년센터 등)을 확보하고 또한 각 학교 학생회와의 연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07년은 1987년 6월민주항쟁, 그리고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시민도, 노동자도, 대학생도, 교사도, 민주화의 시대를 20년 건너면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제 권리를 조금씩 신장시켜 갔지만 청소년 학생들은 20년 전과 바뀌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다.

2007년에는 청소년-학생들의 인권운동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바꿔내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16) 예컨대 2006년 한 해 동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 순위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최다 클릭기사가 아니라 최다 댓글 기사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과 이 사회의 어른들이 이러한 이슈가 그만큼 논쟁적이라는 점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점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1위 : “두발 시위, 도화선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노컷뉴스 2006-04-26], 5위 : “두발 자유를 달라” 중학생들의 반란 [경향신문 2006-04-19], 6위 : “선생님은 남의 머리카락 잘라도 되나요?” [쿠키뉴스 2006-11-08], 21위 : “학생 두발 자유화” 시위 봇물 터지나 [세계일보 2006-05-03]. <http://news.naver.com/2006/?ctg=rank&tab=2>

17)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노동인권 등에 대한 각론적 차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수나로의 작업은 무척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18)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인권을 레토릭 차원에서 무한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 실천 프로그램, 활동가 양성, 연대의 전형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함께 헤나갈 수 있도록 비판, 변화시켜 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07년에는 전교조 본조의 학생생활국을 확대하는 한편, 각 지부에 학생생활국을 설치하고, 2008년까지는 각 지회 차원에까지 학생생활국 담당자를 선임하여 배치하도록 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다. 지회 학생생활국은 일상적으로 해당 지역 학교들이 학생인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또 각 지회 차원에서 학생, 청소년인권 활동가들을 양성,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돌규, 「민주화 20년...아직 오지 않은 청소년들의 1987년」, 『전태일통신』 62호, 2007.1.17. / 프레시안, 2007.1.16.

민주화 20년...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년들의 1987년

“그들은 끊임없이 숨쉬고 저항하며 꿈꾼다”

양돌규

나이 서른의 중턱에 들어선 나는, 가끔씩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린다. 회살처럼 쏠살같이 흘러간 세월을 건너 뛰어 15~20여 년 전의 퍼렇게 싱싱했던 시절을 회상하자면 그러나 그렇게 그립기만 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나와 내 친구들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두들겨 맞던 나날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고 호리호리한 10대의 몸뚱어리 어디에 때릴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매 타작을 했는지 선생님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진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모욕적인 말들로 아이들의 영혼은 적잖게 상처 받았다. 그 매를 맞으며 우린 세상의 비밀을 조금은 알았다. 살고 싶으면 복종하라, 그것은 매가 가르쳐준 정언명령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21세기의 청소년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뺨치게 ‘금지’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각급 학교의 선도·정계 규정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넘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청소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24시간, 365일 감금되어 있다시피 하다. 두발규정과 교복 때문에 ‘대낮’에 시내를 활보할 것 같으면 금세라도 눈에 띈다. 야밤에 돌아다니는 청소년이란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이런 사실에 미루어볼 때 청소년의 존재감은 규율과 규정 속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존재감이 실재하는 청소년이라기보다는 금지 당하는 주체로서의 청소년일 뿐이다. 사회에 의해 스스로를 부정당하는 존재인 셈이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 혹은 존재하는 비존재. 그건 한마디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에 다름 아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 청소년들에게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신문과 책은 공안당국 같은 학교에 의해 검열당하기 일쑤고 단 그것이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용인된다. 청소년들에게는 결사의 자유도

없다. 동아리, 학생회 등도 껍데기뿐이며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해갈 자유와 권리는 각종 생활규정에 의해 부정 당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15년 전에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18세 선거권’은 아직도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은 선거권이 주어져 있는 외국의 청소년들처럼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청소년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

그렇지 않다면 한 달 사이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데도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상상해보자. 대학생 10명이 똑같은 이유로 자살을 하거나, 노동자가, 농민이, 교사가, 공무원이 자살을 해도 이렇게 ‘사건’이 되지 못 할까? 2008년 새 입시안이 발표된 후 2005년 4~5월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청소년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초 쏟아져 나온 신문들을 들춰보니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도정에 선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난 인정하고 싶다.

그렇지만 사회적 제 권리가 부정당하는 ‘압도적 다수의 소수자들’에게 ‘민주화’는 현실이 아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에게 2007년은 ‘민주화 20주년’의 해가 아니다. 2006년 초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수능-내신-논술’로 이어지는 입시 체제 하에서 숨도 쉬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1989년생들에게 올해는 여전히 1980년대의 어떤 날들일 뿐이다.

물론 교육현장도 민주화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현대사 교과서를 보니 1960년 4월혁명, 1970년 전태일 열사,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 같으면 ‘듣기 어려웠던 얘기들’이다. 또 전교조도 합법화되었다. 1989년 전교조가 출범했던 당시 청소년들은 연인원 50만여 명이 학교와 거리에서 ‘전교조 사수’를 외쳤다. 그러나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은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전교조는 합법화된 노조로서 조합원 9만여 명에 이른다. 이런 하나하나를 꼽을 필요도 없이 사실 20년이란 시간은 뭐가 변해도 변해야 했을 시간이 맞다.

그렇지만 어떤 한 사회가, 예컨대 교육현장이 변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으로 보아야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을까? 난 그것이 청소년의 눈으로 볼 때만이 변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태일의 죽음, 광주항쟁, 6월민주항쟁이 5지선다형의 문제 속에서 혹은 ‘평생의 운명을 가르’는 대입 수능시험 문제의 제재일 때, 그 배움과 앎이란 미적분이나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몽둥이가 교실에서 춤을 추고 아이들의 허벅지가 까맣게 멍들 때 얼마 만큼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1987년’을 일구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다. 서울 양동중학교, 수원 청명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 두발자유를 외치는 ‘사건’들이 빈발했고 해직된 동일여고 교사들을 위해 촛불을 든 청소년들도 있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는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오병헌 학생이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고 여름방학 때는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행사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인천→대전→전주→울산→대구(총 6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개되기도 했다. 9월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교보

문고 앞에서 ‘학생 인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려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참석했다. 또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에 모인 청소년들은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스티커를 붙인 ‘학생인권 탱탱볼’을 만들어 명동성당에서부터 교육부까지 행진을 전개했다.

민주화 20년의 역사는 밑줄 치고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숨 쉬고 저항하고 노래하며 꿈을 꾸다. 이 사회는 그것을 늘 부정하고 금지하거나 못 본 체 하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저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끝내 그네들의 1987년을 맞이하고자 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1987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6월 29일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네들과 함께 이를테면 서울 명동성당에서 혹은 남대문, 종로에서, 부산 서면에서, 광주 금남로에서 어깨를 곁고 함께 맞이해야 할까? TV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6월 29일을 남 일처럼 맞이해야 할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러나 어찌 됐든 2006년 한 해를 1987년으로 일구기 위해 부지런히 땀 청소년들의 용기에, 실천에, 그 시간들에 갈채를 보낸다. 전해지는 울림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1987년을 바르게 기억하는 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청소년운동의 흐름과 과제

전누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청소년들의 저항들이 존재했었다. 저항의 흐름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때로는 무시 못 할 정도의 큰 흐름이 되어 기존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한국 사회 역시 짧게는 약 20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행동이 나타났었고 그 흐름은 계속되어 미약하지만 일정한 성과와 변화를 얻어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청소년운동이 문제제기 했던 억압의 구조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청소년들을 옥죄며 존재하고 있다. 지금 청소년운동은 억압의 구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어려운 물음에 딱 맞는 정답을 내놓을 자신은 없다. 다만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단서들을 모아본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제목과 같이 그동안의 청소년운동의 흐름,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청소년의 상황과 그것을 거부했던 청소년들의 저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소년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운동이 쟁취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개인적인 짧은 고민을 담았다. 내용적으로 부족한 글이지만 먼저 글을 쓴 목적대로 답을 찾기 위한 단서가 되길 바라고, 이 글을 계기로 답을 찾기 위한 더욱더 치열한 고민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의 탄생, 억압의 현실

사실, 근대자본주의 이전에 생애주기 상 청소년 시기라는 개념, 혹은 순진무구함으로 대표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성숙’이라고 특징되어지는 아동-청소년기가 인간에 의해 ‘탄생’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미성숙’이라는 관념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나아가 아동기의 시기에 있는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사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아동기의 탄생과 그 시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등장 이유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효과적인 재생산구조의 도입.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가 별 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과 국가권력 등 체제의 지배세력에 대해 묵묵히 순종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역할에 익숙해지기 위해 부당한 지배와 규율을 일찍부터 경험시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싼 구조인 학교, 가족,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자.

〈학교〉

아동기를 관리하기 위해 탄생된 대표적인 공적 시스템이 바로 ‘학교’(로 나타나는 교육제도)이다. 물론, 학교 등의 교육제도가 민중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에 저항하지 않는 순종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지배세력의 의도가 깊이 반영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 학교공간은 억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통제’는 학생들을 지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학교현장의 현실을 살펴보자. 통제의 형태는 다양하다. 체벌을 가하거나 두발 및 복장 규제 등의 규율을 통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 통제. 혹은 소지품을 확인한다거나 학생의 교제에 대한 규율을 통한 사적 영역의 광범위한 통제. 반성문이나 학생의 글에 대한 검열을 통한 양심과 사상에 대한 통제. 이 통제들은 공과 사의 영역을 가르치 않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전반적인 삶을 규제한다. 나아가 통제는 학교공간을 넘어서(물론, 대부분의 생활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가 어느 곳에 있던 작동되는데,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지 언행’이라는 규칙(그러지 않을 경우 처해지는 처벌들)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제는 교칙, 혹은 학생생활규칙이라는 다양한 규율들을 통해 정식화되고 정당화된다. 물론, 이 통제들은 체제가 원하거나 유지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통제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통제와 규율을 내면으로 따르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어떤 외부의 감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생각들을 스스로 감시하고, 혹은 다른 친구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심지어는 그 자신도 당하게 될 혹은 당하고 있는 부당한 통제들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옹호하기도 한다. 결국, 그들 내부에서 통제라는 것은 싫긴 하지만 익숙해지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가는 것이다.

한편, 학교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제와 더불어 강력히 다가오고 있는 것은 경쟁이다. 경쟁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에 대해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습득했느냐, 다시 말해 시험 등의 평가를 진행할 때 다른 이보다 더 높은 점수와 더 낮은 등수를 얻을 것을 청소년들에게 요구한다.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교육의 목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1등만을 요구하고 인정하는 경쟁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를 옥죄는 고통스러운 경주가 될 뿐이다.

그동안 한국교육에 있어 경쟁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왔다. 집권을 했던 어느 정당이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쟁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을 뿐이었다. 최근에만 살펴보더라도, 반과 학교 친구들과 상시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만든 내신등급제, ‘어턴지’라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와 시작된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학교서열화, 전국의 학교를 경쟁의 수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제고사 시행과 그 등수를

알려주는 학교정보공개 등등. 물론 이 모든 경쟁은 보다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대입경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교육에 쏟아 붓는 시간과 스트레스는 높아져간다. 학교 선택제, 기초학습강화라는 이름의 경쟁교육의 강화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했던 서울에서도 다시 0교시와 강제야간자율학습,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등의 강제학습의 붐을 일으키며 학생들에게 아침잠과 저녁잠, 그리고 방학을 빼앗았다. 공교육의 경쟁강화는 자연스레 사교육을 자의든 타의든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혹은 주말에 학원에서 자신의 일과를 보내야만 한다. 휴일도 휴식도 없이 진행되는 과중한 학습부담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담은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2005~2008) 강박장애 환자 중 청소년이 58%(2005년, 1824명에서 2008년, 2878명으로)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가족〉

한편 청소년을 관리하는 사적영역, 즉 가족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봉건제를 무너트리고 근대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프랑크혁명 등 변화의 움직임은 인간이 어떠한 사적소유물이 될 수 없고, 그 개인으로서 신과 법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어일으켰다. 그러나 그 같은 생각은 위험한 것이었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체제의 문제가 드러나고, 충돌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성과 모순이 망각될 수 있고, 인위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사회의 지배세력, 당시 부르주아들은 공적영역과 분리되는 사적영역으로 가족을 분리시키고, 전부터 흘러내려왔던 가부장제적 가족구조를 다시금 강화하고 과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주인으로서 인정되고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가족 속의 여성과 아동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만 했다. 이 같은 가족모델은 처음에는 부르주아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노동자계급의 가족까지 확대되어갔다.

아동기의 탄생과 더불어 이 같은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의 강화는 가족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독자적인 생각과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인정되기 보다는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전적으로 아버지나 혹은 부모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부모에 의해 종교를 강요받거나 혹은 연애 문제이던, 나아가서는 진로까지 생활 전 영역을 통제받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통제는 갈등으로 이어진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일반 청소년 1만4716명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2%가 학업 성적이나 진로·진학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부모와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통제는 학교의 통제처럼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점점 극대화되면 될수록, 가족이란 억압과 통제의 공간을 떠나는 다시 말해, 가출을 선택하는 청소년의 수도 많아진다.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가출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만 3097건으로 역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고, 무엇보다 가출원인에 있어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과의 갈등

이 그 1위로서 19.4%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54.9%의 가출청소년이 부모나 가족갈등을 가출원인으로 응답한 바 있다.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가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가부장적 혹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내면화된 결과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을 나온 후, 살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 한 현실이다.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는 자신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끈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은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소소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

학교와 가족 외에 있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길거리 곳곳에 있는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표어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여실하게 드러내 준다. 청소년을 ‘현재의 주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의 주체’일 뿐 지금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상징되는 ‘미성숙’한 상태로 보고, 그들을 소위 ‘일탈’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억압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당연히 그 속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자차’가 낄 여지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에게 정치권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청소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거는 물론, 자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지역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17살 고등학생이 하원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영국 등 외국의 현실은 우리의 사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선거과정에서 단순히 투표만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2007년,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 UCC를 만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밝혀 청소년들이 선거기간에 인터넷 속에서 정치에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

선거권 외에도 정치적 권리에 대한 통제는 수없이 많다. 청소년의 집회참여가 금지되는 현실 역시 눈여겨볼만 하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정국 때 교육당국은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학사와 교사를 대규모로 광화문에 파견해 지도라는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참여자체를 막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같은 때 전주에서는 광우병 관련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에게 배후가 누구냐며 정보과 형사가 학교를 찾아가 조사를 가한 일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물론 청소년들의 집회를 막기 위한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처럼, 80~90년대 청소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에도 장학사들이 집회장소에 찾아가 학생들을 막기도 하였다. 특히 2003년, 불안 핵 폐기장 건설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노무현 정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활동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생활과 문화의 통제역시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후 10시 이후 PC방·찜질방을 출입 금지 시키는 등의 생활적인 측면에서부터 만화나 영화, 음악

의 심의를 통해 문화적인 통제까지 가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일찍이 청소년계와 문화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반두비’라는 청소년 영화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큰 이슈가 되었다. 청소년을 주 관람 층으로 하는 청소년 영화지만 정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서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갔기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냐고 의견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보호라는 이름아래 심의가 실질적인 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적 접근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청소년을 착취하는 현실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노동’이다. 산업혁명 초기, 아동을 착취하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근래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봤듯이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 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상징되는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2007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15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52.3%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노동이 노동임금시장에서 밑바닥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무엇보다 저임금으로 착취되고 있는 청소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애 첫 노동의 기억이 비참한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억압의 다양한 수용〉

물론, 그 같은 억압에 대해 수용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예컨대, ‘일탈’의 경우, 자신들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즉 체제가 요구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간과’한 후, 적극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소극적으로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 및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에 반항한다. 최근 교육포기와 일탈은 양극화의 심화·빈곤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정정책 재정비와 특별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은 변화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체념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현실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다.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에서 학생 자살 수가 142건으로 5년 전보다 42%나 증가했고, 2008년 통계청 조사자료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에서 청소년 자살이 운수사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입시경쟁교육의 강화와 억압적인 사회시스템은 청소년들의 자살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래 박스는 입시경쟁을 거부하며 자살을 선택한 청소년들의 유서들이다. 유서의 내용들은 죽음을 강요하는 경쟁교육의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것은 체념, 그리고 경쟁의 참여이다. 성공할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믿으며,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의든, 혹은 타의에 밀려 경쟁의 대열 속에 들어가 12년 교육과정 내에 다른 학생들과 치열한 싸움에 빠져든다. 경쟁과 현실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를 억압하는 것 따위야 지금의 현실을 조금만 참아내어 성인이 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면 해방 될 수 있다는 사회의 부조리한 조언을 진통제 삼는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연대는 꿈꿀 수 없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보기보다 더 나은 점수를 획득해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폭력에 대해 민감해지기 보다는 부당한 권력, 혹은 구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폭력에 무감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위 경제적인 인간이 되어간다. 그 후 다가오는 결과는 일부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다시 시작되는 노동시장의 경쟁이다.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폭력과 구조는 다시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가해지고,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 억압의 체제를 그저 손 놓고 받아드렸던 것은 아니었다. 억압과 폭력에 맞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펼친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요구하며, 적극적인 저항을 펼쳤다.

“어른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학생들만 욕했습니다. (중략) 저는 지금 막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중략) 반 학우들아, 너희들은 죽더라도 대학에 가서 죽어라. 나는 단지 죽음을 너희보다 빨리 불렀을 뿐이다. 잘 있거라.”

- 1989년 10월 13일, 서울 면목고 3학년 김 아무개 씨가 남긴 유서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 2002년 11월 자살한 어느 초등학생의 유서

“공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선풍기4대 히터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가는 법”.

슬펏어.

.....내가죽는다고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선생님들의 강력한 몽둥이도,,선생님들의 강력한 두발규제도,,선생님들의 공부공부소리..사회의 공부공부공부공부,,

.....난 사실 평범한 여중생일 뿐이야.

노래부르길 좋아하고, 그림그리길 좋아하고, 수다떨길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사회는 내게 그걸 바라지 않아.

같은 머리 같은 옷 그리고 같은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아이들을 구겨 넣고, 선풍기4대와, 히터2대. 그리고 선생님..”

- 2007년 4월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유서

2. 억압의 현실에 거부하는 청소년의 저항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통제시스템은 20세기부터 큰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기존 교육에 반대하는 교육 운동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통제시스템에 대해 저항을 진행한 것이었다. 서구사회에 큰 충격을 준 68혁명에서부터 청소년의 저항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 특히 인권의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지금 바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보편성에 기대어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전반에서 억압과 통제에 맞서 청소년의 해방을 위해 ‘참여’와 ‘자기결정권’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청소년운동의 시작이었다.

68혁명은 일명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슬로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며 저항했었다.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삶 속의 요구를 거리에서 외쳤다.

1.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교육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2.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 가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모의 동의서는 학생 의사가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
5. 우리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체벌은 없어야 한다.
6. 자의적인 검열은 폐지되어야 한다.
7. 금지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8. 우리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 68혁명 당시, 영국의 청소년들이 주장한 요구들

68혁명 당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프랑스에서는 각 고등학교마다 자치회가 건설되었다. 그들은 교육이 결코 교사나 학교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학생이 동등한 위치 속에서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더 많은 접근과 참여를 위해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을 진행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대규모 참여는 대학평준화 등 체제전복을 두려워한 지배세력의 큰 양보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으론, 문화와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삶의 과정을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하며 가족과 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갔다.

그들의 행동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물려줬다. 경험들은 계속 이어져 와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은 지금도 부당한 교육정책에 반대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다. 2006년 4월, 대만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두발규제 반대 토론방을 만들고, ‘학생 두발규제 금지 자치협화’까지 결성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결국, 대만 교육부는 국·공립학교에 학생의 두발 전면 자유화방침을 결정했다. 그 다음해인 2007년, 칠레에서는 대학의 무시험 진학, 교육의 지역 차 해소, 교원 수 확충 등의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6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가두시위를 일으키기도 했다. 같은 해 덴마크에서는 20년간 무료로 사용해오던 청소년회관을 코펜하겐 시가 일방적으로 매각해버리자 강력한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가 취임한 뒤, 추진했던 고용을 유연화하려는 CPE법안을 노동자, 교사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강력한 행동을 하여 법안추진을 무력화시켰고, 2008년 4월에는 교원감축안에 반대를 하며 전국 고교생 연맹(UNL)과 고교지주민주연맹(FIDL) 등의 청소년단체들이 2만 명의 반대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0월, 이탈리아의 청소년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개혁에 대해(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개혁안) 수업거부와 학교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3. 한국 청소년 저항의 흐름

세계의 청소년들처럼 한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 역시 짧게는 20년 전, 길게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항과 운동을 펼쳐왔었다. 청소년들의 저항, 청소년운동은 단순하게 펼쳐져온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이어져왔다. 간략하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청소년인권 담론의 출발, 온라인에서 다시 거리로>

90년대 초반, 중·고등학생 운동진영은 학교 밖에 지역 조직의 성격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건설하는 등 운동의 활로를 모색했지만, 공안사건 등을 빌미로 한 정부와 학교의 계속된 탄압으로 인해 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항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공간 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공간은 바로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피시통신이었다.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준엄하게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기본권의 억압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춘천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 최우주는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시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청와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며 하이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이전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원을 넣고, 글을 올린 것이었다.

그의 민원은 미적지근한 답변을 준 교육청과 대조적으로 온라인 공간과 언론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

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집권을 하고 전반적인 민주화의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비민주적이었던 학교의 모습과 5.31교육 개혁안이 발표되고 교육현실에 대한 여론이 모아지고 있을 때 최우주의 문제제기는 학교와 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를 촉발시킨 것이었다. 8월 3일 하이텔에서는 [최우주 군의 학교 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토론방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소통을 시작했고, 논의는 최우주 씨의 문제제기 방법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에서부터 체벌, 보충수업, 분반, 입시교육, 심지어 선거연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청소년문제와 교육구조 전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목할 점은 청소년인권담론의 등장이다. 그전 중·고등학생운동에서도 인권이란 담론이 쓰였으나, 예컨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쓰이는 제한적인 사용에 그쳤다. 그러나 최우주의 헌법소원사건이후, 청소년 운동에서 인권담론은 중심적인 근거와 운동적 프레임이 된다. 이는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라는 거대한 담론에서부터 다양한 운동으로 분화했던 과정처럼 청소년 운동이 청소년자체에 중심을 두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온라인의 공간 역시 주목받게 되었다.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주위 또래들과의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온라인은 하나의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당시에는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었던 피시통신은 사회적인 광장이 되고 자유롭게 학교 등의 현실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고발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온라인공간은 계속 청소년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과 공간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

최우주의 헌법소원사건과 하이텔의 치열한 토론은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토론 속에서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모임을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결국, 같은 해 12월 경 피시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에서 중고등학생복지회<이하 학복지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학복지회는 인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진행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의 담론을 사회에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98년에는 학생의 날을 맞아 ‘중고등학생인권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활동의 한계는 많았다. 무엇보다 오프라인까지 구체적인 힘이 발현되지 못했고, 활동을 하는 이가 성인이 되어버린 이후 활동가를 충원하지 못해 운동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도 새천년을 맞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가 진행 된다.

〈노컷운동의 시작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운동의 확산〉

새천년을 맞이하고 수업거부, 탈학교 등 선정적인 미디어의 보도로 학교붕괴라는 현상의 이름으로 이슈가 되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민간영역에서는, 특히 문화담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자센터와 미지센터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이 소통할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공간은 여전히 온라인 공간이었다. 90년대, 피시통신이 역할을 했다면 2000년대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물려받았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모임이 생겨났다. 채널 텐, 사이버유스(CyberYouth),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등이 그 대표적인 모임이었다. 특히 사이버유스의 경우, 청소년들은 성, 자퇴, 교실붕괴 등 다양한 섹션을 구성해 토론을 할 수 있었다. 한편, 피시통신의 학복회도 변화의 시기를 맞는다. 98~99년 침체기를 겪었던 상황에서 학복회 내부에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고, 소규모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아리 식의 활동을 바꿔 대중적인 중고등학생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으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주장이 나오고, 결국 ‘업그레이드 학복회’가 탄생하고, 논의는 더욱더 진전되어 2000년대 초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이하 학생연합(준))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70년대 학생운동을 계승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10개 지역의 학생회 및 여러 학생들이 모여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고협)이란 조직이 나타나기도 했고, 5개 서울지역에서 각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기도 하였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과 같이 앉아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같이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교복, 똑같은 3cm 스포츠형 머리로 나온 학생은 창피하게도 대한민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어느 현직 교사가 나누우리에 올린 글이 인터넷웹진에 실리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 글은 학기 초 학교의 두발단속 때문에 쌓여가던 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마침내 아이두, 채널 텐, 사이버유스가 모인 웹연대 ‘위드’에서 두발제한반대 서명게시판이 만들어지게 된다.

2000년 봄,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은 16만 명을 돌파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진 운동은 오프라인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학생연합(준)을 중심으로 캠페인과 거리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사실, 운동을 주도했던 운동 단위에서도 두발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다. 두발자유화를 원칙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단위(학생연합(준))가 있었고, 교육부가 자율화를 선언하고 각 학교학생회별로 자유화의 기준을 정하자는 주장(웹연대 위드)도 있었다.

노컷운동에 대해 2000년 10월, 교과부는 “각 급 학교별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두발규정을 다시 정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지침은 학교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교사·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차이가 있을뿐더러, 무엇보다 힘의 권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두발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심지어는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서울지역의 활동가들의 경우 시 교육청(교육감:유인중)에 의해 학교에서 퇴학 등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비록 목표는 달성되지 못 했지만 노컷운동은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을 고민하고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 조직들의 급속한 성장을 갖고 왔다. 학생연합(준)의 경우, 광주, 부산, 목포 등 각 지역에서 지부가 만들어졌고, 가장 활발하던 시기에는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회원이 200여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그리고 미지센터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2000년 12월 22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된다. 학생연합은 이후, 두발자유화를 넘어 체벌반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고교등급제-자사고 반대 등의 교육투쟁까지 이슈를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학교 안 사회모임을 구성하기 위해 큰 역량을 쏟기도 했다.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를 갖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점차 학생연합을 필두로 청소년 조직들은 활동가 부재라는 위기를 겪고 있었다.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중고등학생이외의 참여를 엄격히 배제한 것도 큰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학생연합은 사실상 해체되었지만 흐름은 계속되어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청소년의 힘으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 등의 풀뿌리 지역모임이 생기게 되었다. 이 모임들은 2003년 발생한 네이스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10월 경 서울, 강릉, 산청, 부산 등에서 전국동시다발 교육청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네이스 투쟁과 지역모임은 학교 밖의 싸움을 학교 안 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한계에 처했지만, 다음해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이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 인권 담론의 확대와 거리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거리로〉

새로운 흐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싸움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바로 2004년에 일어났던, 대광고 강의석의 종교자유투쟁과 인천외고의 사학민주화 투쟁이었다. 6월 16일, 강의석은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학교의 현실을 지적하는 학내방송 한 후, 교육청 앞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기에 학교는 퇴학이라는 징계로 화답하고, 강의석은 45일간의 단식을 들어간다. 결국,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내용에 합의에 이르고, 이후 법원에서도 퇴학처분무효라는 승소를 거두게 된다.

같은 해에 활발히 싸움이 진행되었지만 청소년운동진영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인천외고 투쟁의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년 전, 새로운 교장(이남식)이 부임하면서 인천외고는 교사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경고를 남발하는 비민주적인 공간이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억압도 강화되어 수업시작 시간 앞당기기, 전원강제야자 실시, 두발규제 강화, 외출제한, 벌점제와 유급제 등이 도입되었다. 4월 24일, 교장과 학교 운영이나 학생 지도 등의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던 전교조 박춘배 교사와 이주용 교사가 파면되었고, 이에 학생들은 학생대책위를 꾸리고 교장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6월 4일부터 600여 명의 학생들이 100일 가까이 수업거부를 시작, 결국 교장이 옆 학교로 전근이 되면서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특히 강의석의 투쟁은 학교 내 다른 학생들을 모으기보다 이슈파이팅에 기댄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두 투쟁은 공통적으로 무엇보다 ‘학교 내 저항’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천외고의 경우, 2003년 용화여고를 포함해 사학민주화 투쟁의 흐름이 이어진 것도 있지만, 학생인권 문제를 포함해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현장의 학생들이 모임을 만들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이 학교현장에서의 투쟁의 흐름들은 2005년 송파공고 비행기시위, 2006년 동성고의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한 오병현의 학교 앞 1인시위, 두발자유를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연 양동중 사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청소년운동의 의제들이 다시 광장에서 분출된 점이다. 2005년, 3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에서는 ‘라카 시위’가 진행되었다. 강제적인 두발규제와 강제이발에 맞서, 두발자유를 요구했던 것이다. 학교의 두발단속을 고발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청소년웹 사이트인 아이두에서는 두발제한폐지 온라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대규모의 두발자유운동이 일어났다. 청소년단체의 활동가들은 ‘두발자유 학생운동본부’(이하 학생운동본부)를 결성하기도 하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운동의 흐름은 이어져 5월 14일, 광화문에서는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에서 마련한 ‘두발제한폐지·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 거리축제’와 학생운동본부가 개최한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5.14 청소년 행동의 날’이 열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5년 전, 노컷운동의 움직임과 다른 점은 앞서 언급한 송파공고의 비행기 시위, 성남 풍생고의 운동장 시위 등 (앞서 학교 내 투쟁의 흐름이 이어진) 집단학내시위들이 일어나 거리와 학교 곳곳에서 투쟁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같은 해 5월 또 눈여겨봐야 할 투쟁은 내신등급제 투쟁이다. 80~90년대 이후, 교육관련 의제와 관련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행동이 나타났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내신등급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저수받은 89년생’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분노가 모아지고 있었다. 마침, 입시경쟁으로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의 뉴스가 줄을 이으며 보도가 되었고, 결국 분노는 행동으로 촉발 되었다. 5월, 한 청소년단체가 광화문에서 자살학생 추모제를 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청소년 카페들도 촛불문화제를 하지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자는 문자가 돌리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의 협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5월 7일 광화문에서는 청소년들이 약 천 여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내신등급제 반대와 자살한 학생들을 추모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인권담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문제에 치우쳤던 청소년인권담론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일군의 청소년단체들이 모인 18세선거권낮추기연대는 말 그대로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며 다양한 행동을 펼쳤고, 2005년에는 비록 원했던 목표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국회가 19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학교와 가정 안에서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탄압을 받았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다. 이어서 비록 법의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노동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가 결성, 실업계 학생들의 간접고용의 실태, 청소년 저임금노동실태를 사회에 공론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제들은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주의 문제나, 여성청소년 문제가 고민되기도 한다.

2006~2007년에는 그동안 청소년운동진영의 숙원이었던 학생인권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구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학생인권법으로 모아지고 법안통과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의 대중화와 안정화 및 전문화를 고민하기 위해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현장을 기습방문하거나 학생들의 학내집회를 지원하고, ‘청소년행동의 날’을 개최하였다.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청소년인

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도 하였고, 앞서 청소년인권의제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확대하기위해 다양한 고민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 하의 청소년의 분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초기부터 특히, 교육 분야에 더욱더 경쟁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청소년들은 강력한 분노와 거부의 표시를 나타냈다. 인수위 시절, 어린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은 분노의 시작이었다. 청소년들은 싸이월드의 이명박 미니홈피 방명록에 영어몰입교육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의 부활 혹은 정당화를 우려한 청소년들이 학교자율화 조치를 규탄하는 수많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의 75.2%가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며, 66.3%의 학생이 입시경쟁교육이 심화되었다고 응답해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분노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표출된 것은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였다. 5월 3일, 촛불집회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날,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의 모습은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고, 이내 그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스타들이 인기를 위해 그들의 팬인 순진한 청소년들을 선동한 결과, 혹은 광우병에 관련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의 결과라고 얘기한 보수 경제언론. 386세대의 지식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물려받았고, 또 논술교육을 받아 논리적인 자기주장의 능력이 있었기에 거리로 나왔다는 주장을 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었다.

물론, 그런 해석들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큰 한계를 지닌다. 우리에게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큰 단서를 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처음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 보다(14.0%)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응답했다(56.1%). 이 응답은 다른 질문과 연관되는데 ‘만약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다른 현안에 대해 촛불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67.0%가 ‘예’라고 응답하고, 쇠고기 협상 관련 이외 다른 이슈의 집회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67.8%정도가 교육 문제(0교시 수업, 영어몰입 교육 등)에 참여를 밝혔다.

자신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억압을 가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분노는 쌓여있었고, 광우병 위험은 청소년들에게 쌓여있던 분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결국 청소년들은 촛불집회라는 ‘저항이라는 행위’를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특히 촛불정세 중, 현재의 교육에 대해 ‘미친교육’이라고 명명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드러냈다. 촛불이 사그라진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저항은 은밀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제교시를 둘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차라리 시험을 보는 예산을 갖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 복지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며, 자발적으로 OMR카드를 백지로 혹은 낙서를 해 제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운동진영 역시, 이명박 정권하에서 분노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었다. 미국산 쇠

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해 집회를 조직하거나 등교거부의 움직임에 함께하려고 했었고, 이 가운데에 서는 수많은 촛불청소년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운동진영은 이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적극 참여해 진보후보였던 주경복 선본에 적극 결합하는 단위들도 있었고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를 띄어 독자적인 청소년 공약을 제출하고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 단위들도 있었다. 일제고사 투쟁역시 놓칠 수 없는데, 일군의 청소년단체들이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NO’를 결성해 등교거부와 백지동맹 등 청소년들의 저항을 모아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4. 청소년운동의 성과와 한계

간략하게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치열한 운동의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큰 성과들이 있었다.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인권이란 의제를 어느새 한국사회에 공론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소년의 인권이란 것은 회피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의제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저항은 점차 한국사회 속에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수많은 인식의 전환들을 가져왔다. 기존질서와 인권적 기준사이에 타협점을 추구해 온 한계는 있지만 청소년의제와 관련 된 국가인권위의 전향적인 권고,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과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또 학생인권이외에 다양한 청소년관련 의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청소년인권이란 의제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론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민감해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억압된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인권문제를 고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항의 경험이 익숙해지고, 또한 저항에 대한 접근이 쉬어지고 있어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저항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은 이러한 점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서 겪었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자신이 있는 공간 속에서 저항을 하기위해 청소년운동진영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 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는 일이 쉬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이 쟁취한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살펴봤듯이, 성과 외에도 운동의 한계 역시 나타났다.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계들이 나타났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활동가들이 고민을 나눴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한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운동과정에 참여하고 또 지켜보면서 느꼈던 한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한계지점〉

① 소규모로 계속되는 청소년운동

그동안 청소년들의 저항은 무수하게 나타났지만, 정작 운동조직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소수로

머무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대규모의 청소년들이 저항을 펼칠 때, 그에 비례해서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운동의 흐름을 살펴봤듯이, 이 규모는 지속화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거나 혹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심지어는 조직의 해체까지 가져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실,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체성이 변화하는 특성(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을 가지고 있기에 청소년운동진영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성 상 시기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길어야 6년)도 있고, 또 한국의 교육현실 상 치열한 입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쉽게 시간을 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운동진영 역시 조직화 사업에 큰 힘을 쏟지 못한 책임도 있다. 그동안 청소년운동진영은 조직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조직화의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슈파이팅의 방식에 머무르거나 현안 싸움에 치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특히 학교에서 혹은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저항의 흐름에 청소년운동진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촛불집회의 경우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흐름이 거리로, 운동적으로 가시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 그들과 계속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나아가 이 청소년들의 흐름을 영속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② 청소년운동진영 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설정

그동안 청소년 운동진영의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운동 내 청소년과 비청소년(성인)의 관계설정 부분이다. 청소년 운동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이로 인해, 차별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나가자는 것이 있다. 그런데 정작 실제적인 관계, 특히 운동 안에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또한 당사자운동의 성격을 지닌 청소년운동의 특성상 예컨대, 장애인운동 속에서 비장애인의 참여, 그리고 그의 역할 문제처럼 당사자운동 속에서 당사자의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주체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 나가야 할지의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했다.

예전 운동의 흐름 속에서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소위 ‘피터팬주의’라 불리는 것처럼 비청소년의 활동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비청소년의 의견이 청소년의 의견보다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에 우려도 있었고, 무엇보다 당사자운동은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은 많은 한계를 가져왔다. 위의 한계와 연결되지만 조직의 운영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더불어 당사자 운동의 범위를 좁게 가둘 필요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과 더불어 비청소년들이 함께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특히 경험에 있어 비청소년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시간적으로나 더 많은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역할이 집중되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나이를 통한 권위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청소년 운동 속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할지, 여전히 답은 나오지 못한 채 한계로 남아있다.

③ 운동문화의 한계

사회운동 내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문화가 청소년운동 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큰 한계이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조직에 따라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 부분이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조직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논의하고 점차 그 차이를 극복해서 운동진영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건인 소통에 대해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런 가운데 조직에 대한 소통이 안 되어서 생긴 입장차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잦아 운동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명망가적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진영 내 일부 활동가들의 경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고민하고 노력하기 보단,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것과 조직 내 직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수시 등의 대학입시에 유리하고자 경력을 쌓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운동진영 안에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세 번째는 사업만이 중요시되고 정작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태도이다. 현안과 사업만을 중요시 할 뿐, 정작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문제나 혹은 사업을 준비하는 공간이용 등 일상적인 부분에 고민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다시 말해, 운동 내 재생산의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사업보다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등, 예컨대 가족 내 가부장의 모습처럼 운동의 목적과 모순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운동문화에 대해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소통과 해결은 요원하다.

④ 구체적 변화가 없는 현실

그동안 청소년운동진영에 의해 청소년인권담론이 확대되거나 혹은 청소년과 관련된 의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의 의식을 높이는 등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청소년운동진영이 제기해왔던 요구들은 거의 수용되지 않고, 변화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학생인권과 관련 학생인권법이나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그것이다. 제도화, 혹은 법의 제정과 개정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은 노력을 쏟았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사실 학생인권의 경우, 청소년운동진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왔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다른 의제의 경우, 여전히 출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은 운동의 방법이 이슈파이팅에 머물고 있는 것이 크다. 각 의제에 따라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중심을 두고 같이 고민을 나누며 함께 운동을 하면서 변화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사

례는 드물었고, 지금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⑤ 운동의 중장기적인 계획 부재

무엇보다 청소년운동에 있어 앞서 언급해왔던 한계를 넘기 위해 또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은 큰 한계이다.

그동안 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대응하기 바쁘거나 혹은 연초에 정세를 전망하고 계획을 급급하게 세웠지만 지극히 단기적이고, 달력사업 중심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운동의 구체적인 미래를 구상하고, 운동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추상적인 고민을 넘어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긴 어려웠다. 결국 단기적 사업에 치여 중·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운동의 과제들은 매번 아쉬움을 남긴 채 해결할 수 없었고, 운동의 발전은 더디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5. 청소년운동의 과제

짚어본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운동진영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이뤄내야 할 6가지 과제를 제안해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안이 아닌 추상적인 내용으로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풍부한 논의가 나와 더욱더 세세한 내용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

(1) 청소년운동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

앞서 살펴봤듯이 단기적 대응에만 치중할 뿐 긴 호흡을 갖고,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혹은 전망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운동의 전략과 계획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 계획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세부적인 과제들이 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운동은 기억되지 못했으며,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기존의 시행착오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었던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2006년, 역사연구팀을 꾸려 주간웹진인 ‘인권오름’에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라는 기획기사 형태로 청소년운동 역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역사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한계가 많다. 하루빨리, 청소년운동사에 대해서 운동자료의 데이터 화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평가를 진행하여 앞으로 청소년운동의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는 데 큰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운동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의 치열한 소통이 가능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계에서 살펴봤듯이 단위 간 소통의 기회는 굉장히 드물다. 청소년운동의, 청소년운동진영의 중·장기적 계획과 특히 운동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일부 단위의 고민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운동진영을 구성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나눠야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입장이 있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고 단위 역시도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먼저 청소년운동의 전략을 수립한 후,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의 로드맵이 구상되어야 한다. 예컨대, 운동의 기반마련을 중심으로 보자면, 청소년운동사 자료 데이터화(자료실 설립), 청소년인권담론 혹은 의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연구소(모임) 구성의 계획들이 담겨질 수 있다. 로드맵 속에서 사업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나누고 계획에 맞추어 추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직화 모델의 고민 및 지원체계 마련

어느 운동이든 마찬가지로지만 조직화 문제는 청소년운동에 있어 더욱더 힘을 모으기 위한 작업 일 뿐 아니라 운동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먼저 조직화와 관련되어 시도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를 우선 정리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며 소위 긍정적인 성과를 남긴 조직화 모델의 경우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조직화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두 공간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인터넷’이다. 운동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 피시통신,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을 거점으로 삼고, 또한 활동을 모색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운동조직이 이런 넓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을 모아낼 수 있을지, 그것보다 더 나아가자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또 오프라인까지 활동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지역’이다. 가상의 온라인 공간이 아닌 실제로 그들의 삶이 구성되는 공간, 지역에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미 몇몇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났는데, 경기도 고양의 교사·학생연대모임인 ‘새날’과 서울의 구로지역에서 진행된 인문학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새날의 경우, 전교조 지회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모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다. 서울 구로지역에서 열린 인문학아카데미의 경우, 전교조 남부지회와 청소년 활동가 그리고 교육공동체 ‘나다’라는 청소년단체가 함께 인문학아카데미를 진행 한 후, 참가자들을 모아 지역청소년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교통비나 휴대폰비가 없어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이 활동을 반대할 경우, 제일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갖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막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이다. 예컨대, 후원들을 모아 재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를 제공하는 것도 깊

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후 재단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활동가들의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운동진영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3) 사회운동진영과의 관계문제

촛불집회 이후, 아직 청소년운동에 대해, 혹은 청소년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한계가 큰 현실이지만 한국 사회운동진영(진보진영) 내에서 다시 청소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청소년운동진영은 사회운동진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진보진영의 목표 속에 대안적인 사회의 모습에 있어 혹은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청소년의 역할을 없애는 것 역시 주요한 과제로서 인정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주장해나가기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운동진영 내 만연해있는 청소년을 대상화하거나, 나이에 따라 위계질서가 있는 문제 많은 운동문화를 혁신하는 것도 청소년운동의 중요한 과제로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생각들은 그동안 주요한 연대의 주체였던 전교조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역시 가져온다. 그동안 전교조는 청소년운동의 주요한 우군이었으나, 앞서 언급한 운동문화, 청소년이나 청소년운동을 동등한 운동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대상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사업은 현재의 문제를 포함해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교조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거나 혹은 레토릭으로만 그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운동진영의 적극적인 비판과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자면, 학교 현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적 권력관계와 권위적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교조와 함께 답을 찾아나가기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인권담론에 대한 구체적 고민

그동안 청소년인권담론 혹은 청소년의제가 확대되어왔지만 학생인권 담론에 비해 다른 의제들은 아직 전 문적인 고민이 낮은 상태이다. 갖가지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쟁점과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논의와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들은 나아가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진영 차원에서 해외 청소년운동진영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담론을 진보적인 혹은 청소년운동의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는 연구모임 혹은 연구소의 구성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제의 생산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운동의 원칙에 기반 한 대안과 요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 연구모임에서 청소년운동의 역사와 자료를 정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내부 운동문화의 혁신

앞서 한계에서 지적한 지금의 청소년운동 내 운동문화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 안고 있는 운동문화를 열어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운동문화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 레토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이뤄져야 하는 점이다. 예전에도 문제제기가 있어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었지만 그 자리의 논의뿐으로 그치고 말 뿐로만다. 논의가 실천적으로 논의날 수 있기 위해서 예컨대, 논의를 한 바탕으로 공동의 활동원칙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와 실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논의를 부차시한 것으로 만드는 분위기를 조직 내부에서 문제제기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조직 내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위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비청소년 활동가들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며, 구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청소년활동가들에게 업무와 경험이 집중되는 형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업무를 비청소년 개인만이 맡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수찬 기자, 「10대 정치, 엄숙함 벗고 발랄 진화 중」, 한겨레21 807호 [사람과 사회], 2010.4.23.

고등학생들의 희생으로 결실 맺었던 4·19 혁명 50주년... 2010년 최대 청소년 운동단체인 '아수나로'를 만나다

안수찬 기자



지난 2월5일 졸업식이 열리는 경기 수원 의 한 학교 입구에서 아수나로 수원지부 회원들이 학교 졸업식을 감옥 출소식에 빔대 두부를 먹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연합 신영근 기자

올해로 4·19 혁명 50주년이다. 4·19는 원래 고등학생들의 혁명이다. 1960년 2월28일, 이승만 정부가 초·중·고생을 강제로 등교시켰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학생들의 야당 선거유세장 참석을 막으려는 꼼수였다. 대구고·경북고 학생들이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를 벌였다. 이를 뒤따르는 학생 데모가 전국으로 번졌다. 3월15일, 마산에서도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마산상고 학생 김주

열이 행방불명됐다든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마산고·마산상고·마산공고·마산여고 등 학생 3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2·28 의거, 3·15 의거를 거친 뒤에야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했다. 10대를 만만하게 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해야했다. 고등학생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4·19 혁명은 결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수첩 속에 알록달록 ‘운동 스케줄’

50년이 지난 2010년, 불의에 항거하는 ‘10대 정치’의 맥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18살 ‘공기’(별명)의 수첩이 하나의 실마리다. “월요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회의, 화요일: 인권영화제 회의, 수요일: 청소년 라디오 방송 진행, 목요일: 청소년 인권 관련 기자회견, 금요일: 평화운동가·환경운동가와 미팅, 토요일: 청소년 노동빈곤 실태를 알리는 ‘퍼포먼스’ 참여, 그리고 일요일: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하는 라디오 방송 대담 출연...” 그는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이하 이수나로) 회원이다.

이수나로는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스터스>에 나오는 청소년 조직 이름이다. 사철 푸른 편백나무를 뜻하는 일본어다. 이수나로의 꽃말은 ‘불멸·불사’다. 소설에서 청소년 조직 이수나로는 자신들을 위한 땅을 구해 대안자치국가를 만든다. 청소년의 나라다. 현실 속 이수나로는 아직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다만 행동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직접 요구하며 실현해가는 사회운동”을 지향한다고 회칙에 밝혔다. “청소년을 정치적 힘을 지닌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0대가 모여 있다.

직접행동, 대중운동, 청소년 스스로의 운동을 펼친다는 자부심이 이들에게 있다. 지난 2월, 이수나로 회원들은 서울·부산·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졸업식이 열리는 중·고등학교 앞에서 두부를 먹었다. 학교를 감옥에 은유하고, 졸업식을 출소에 비유했다. ‘출소를 축하하는’ 잔치판을 벌인 것이다. 행위극은 이수나로가 즐겨 택하는 직접행동 가운데 하나다. 2008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청소년 30여 명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돛자리를 깔고 길바닥에 누워 잠도 잤다. 2시간 동안 잤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작은 시위였다. 일제고사 반대와 도시락·낮잠의 관계는? 당시 이수나로 회원들의 구호가 이랬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이수나로가 발달한 일만 벌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이수나로가 벌인 굶직한 사업만 꼽아도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기획단 참여(10월)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발표(11월) △두발자유·체벌폐지 등을 담은 청소년 500명의 집단민원 교과부 제출(11월) △일제고사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 인권위 제출(12월) 등이 있다. 기존 시민단체의 ‘언론 플레이’를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행동의 대부분은 소리소문 없이 이뤄진다. 이들은 거의 매주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회원들이 특정 학교에 몰려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준다. 1인 시위도 벌인다. 회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학교 선생들이 개떼처럼 몰려와” 이수나로 회원을 밀어내지만, 등하교길 학생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꾸역꾸역 전단을 받아 읽는다.

‘공기’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등 모든 것이 좋은데, 사업이 물밀듯 밀려와 일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티를 내지는 않았다. 어떤 면에서 ‘공기’는 ‘10대 정치’의 최일

선에 서 있는 요즘이 가장 마음 편하다. 그는 2008년 여름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영화배우 강동원을 좋아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한다. 강동원 팬카페에 가입했고, ‘안티 엠비’ 카페에도 가입했다. 당시 그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광장에 나왔다. 말 그대로 ‘촛불 소녀’였다. 그러다 ‘촛불 어른’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조계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는데, 함께 와 있던 어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컵라면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공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다. 그는 촛불 소녀 이전에 인권을 가진 청소년이었다. 친구 ‘파이루’를 만난 것도 그때였다.

반말부터 하는 ‘비청소년’ 싫어요

‘파이루’(17·별명)는 스스로 “성격이 지랄맞다”고 말하는 이수나로 회원이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수나로 활동을 했다. 그는 싫어하는 게 많다. 강압적인 동아리 선배들이 싫었다. 방송반을 그만뒀다. 당연한 듯 반말부터 하는 ‘비청소년’도 싫다. 이수나로 회원들은 18살 이상의 성인을 ‘비청소년’이라 부른다. 비청소년이 청소년한테 함부로 반말하면 ‘파이루’는 꼬박꼬박 대거리를 한다. 그는 영웅주의도 싫어한다. 모임 대표와 지휘 체계가 따로 없고, 누구든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뜻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행동’에 참여하는 이수나로가 그래서 좋다.

2010년 현재 청소년 운동을 표방한 단체는 이수나로 말고도 더 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정치조직 ‘다함께’ 소속인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문교육공동체 ‘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성인의 개입 없이 청소년 스스로 조직하고 확대하면서, 강연·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행동에 초점을 둔 모임은 이수나로가 유일하다. 이수나로의 온라인 회원은 5700여 명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다. 회원 서너 명이 지속적·정기적 모임을 열면 ‘지부’로 인정하는데, 서울·광주·인천 등에 7개 지부가 있다. “회원 중엔 ‘비청소년’이 돼버린 경우도 있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가입한 교사나 경찰도 있다”고 ‘파이루’는 말했다. 이수나로 회원이 원래 이름 대신 별명을 쓰는 것도 회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각종 모임·퍼포먼스 등에 꾸준히 참석하는 청소년 ‘활동가’는 60여 명이다. 300만 명이 넘는 청소년(13~18살) 인구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소수지만, 현재 청소년이 처한 조건을 생각하면 주목할 만한 수다. 이수나로는 청소년 상근활동가 60여 명과 청소년 회원 5천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셈인데, 이는 기존 시민단체와 비교해도 ‘매머드급’이다. 60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다.

1960년 4·19 혁명을 뒤엎은 군사정권 내내 ‘10대 정치’는 침묵했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전면에서 다시 떠오른 것은 1987~91년이다. 80년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대학생 운동과 1985년 <민중교육> 발행을 계기로 분출한 교사 운동이 10대 정치의 부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입시경쟁의 압박으로 청소년 자살자가 급증해 1988년 중·고등학생 1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10대 정치의 정서적 바탕을 이뤘다.

민주화운동이 드세지던 1987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두발 자유화·자율학습 폐지·강제 보충수업 금지 등을 요구하는 수업거부·학내농성·거리시위 등이 시작됐다. 홍사단 서울지부가 개최한 1987년 11월3일 학생의 날 행사에는 중·고등학생 1500여 명이 참석해 사실상의 대중집회를 열었다. 1987년 12월 대선 직후 ‘서울지역고

등학생연합'을 자처하는 고등학생 15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6일간 철야농성하기도 했다.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직후 현직 교사 1700여 명이 강제 해직되자, ‘참교육 선생님 지키기 운동’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비행기 날리기, 수업거부, 교내시위, 단식농성, 거리시위 등을 펼쳤다. 전교조가 집계한 것만 해도 1989년 한 해 동안 250여 개 학교, 연인원 47만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전교조 지지 투쟁에 나섰다. 1988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광주·부산·마산·창원·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고등학생대표 자협의회’ ‘민주고등학생연합’ 등 대규모 학생단체가 속속 결성됐다. 희생도 적지 않았다. 대구 경화여고 김수경(1990년 6월), 충주고 심광보(1990년 9월), 전남 보성고 김철수(1991년 5월) 등이 고등학생운동 탄압 중단, 참교육 실현,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투신·분신 자살했다.

‘80년대식 청소년 조직 운동’은 쇠퇴

1990년대 초반, 고등학생 운동이 주춤하면서 권력의 탄압도 본격화됐다. 공안 당국은 1994년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단체인 ‘청소년회 샘’ 간부들을 검거·기소했다.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만 100여 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고교생 의식화 예방 특별지도대책’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를 고비로 전국 곳곳의 직선제학생회·공개동아리·지하소모임 등이 해체됐다. 이후 ‘80년대식 청소년 조직 운동’은 쇠퇴 일로를 걷는다.

대신 ‘온라인 광장’이 새로 등장했다. 1995년 7월, 당시 춘천고 학생 최우주씨가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PC통신 하이텔에 토론방이 개설됐다. 토론에 참여한 청소년 누리꾼이 같은 해 12월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를 만들었다. 최초의 ‘온라인 청소년 조직’이었다. 이런 흐름은 2000년 오프라인 조직인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발족으로 이어졌지만, 3년 정도 지속하다 소멸했다. 80년대 방식의 조직 구성으로 21세기 청소년을 모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04년 말 ‘연구모임’으로 시작해 2006년 2월 ‘행동조직’으로 전환한 이수나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모두 넘어서려는 시도였다. 온라인에서는 평등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자발적이되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이수나로는 지난 4년간 각종 청소년 관련 이슈에 빠짐없이 등장해 발언했다. ‘학생’ 대신 ‘청소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참교육’ 대신 ‘인권’의 지향성을 굳혔다. 그 결과 학생인권은 물론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청소년 페미니즘, 청소년 노동, 청소년 정보인권 등 새로운 의제도 계속 개척할 수 있었다. 여러 면에서 이수나로는 지난 60년에 걸쳐 진화해온 ‘10대 정치’의 첨단이다.

그러나 이수나로의 ‘독보적’ 위상 뒤에는 한국 청소년이 맞닥뜨린 열악한 환경이 숨어 있다.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몇 년 전만 해도 중간고사가 끝나면 아이들이 모여 서로 의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시험기간이나 다름없어서 모임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가가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수나로의 열성 활동가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운동 가운데 ‘양자택일’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공기’는 고등학교 입학 직후,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나 자신이 되지 못하고, ‘1학년 3

반 31번'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수나로 활동가 60여 명 가운데 절반이 학교를 그만둔 '탈학교 청소년'이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치권력과 맞섰던 4·19의 10대 정치는 이들에게 흐릿한 과거사다. 다만 4·19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다른 힘을 갖추고 있다. “옛날과 달라요. 수천 명은커녕 수백 명 모이기도 힘들죠. 그래도 ‘시대의 양심’을 자처하며 영웅주의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권 문제에 주목한 뒤, 사회 전체 문제로 시야를 넓히면서 평범한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요즘의 10대 정치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따이루’의 말이다.

4·19 세대 대부분은 이후 현실과 타협했고, 일부는 오늘날 보수 진영의 대부로 통한다. 유신정권 때 등원한 윤식 전 유정회 국회의원, 전두환 정권의 핵심이던 이세기 전 민정당 의원, 노무현 탄핵투표를 이끈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은 4·19 혁명 참가를 자랑했던 인물이다. 4·19 정신의 계승을 표방한 ‘4월화’의 유세희 대표는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4월회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4·19 문화상’을 시상해왔는데,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그 상을 줬다. 반말과 심부름에 시비를 거는 ‘지랄맞은’ 이수나로 회원이라면 거대 담론을 싫어하는 만큼 거대 타협도 거절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감, 거리 유세도 할까 해요”

이수나로는 지난 4월14일 끝난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추대위원회에 운영단체로 참가했다. 청소년이 교육감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들은 한술 더 뜯 예정이다. 추대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독자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다. 가상의 청소년 후보를 등장시켜 ‘법의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감 공약을 발표하고, 학교 앞에서 학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트럭을 빌려서 거리 유세도 할까 해요” 그 구상을 말하는 ‘따이루’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1960년의 엄숙했던 10대 정치는 가고, 2010년 발랄한 10대 정치가 왔다. ‘비청소년’은 그들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오답승리의희망 공동사무실 개소식 초대 웹자보, 2010.1 0.25.



① 오답승리의희망
오답승리의희망에 오르면 유쾌한 시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 여러분?
가난하기로는 좋을까라면서 서러운 아수나로서 돌치석모임 / 오답승리의희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드.디.어 문래동에 착당모의할 공간을 구했습니다 (딱딱딱) ㅎㅎ
사무실 얻은길에 개소식이라는것도 해볼려 한다는 중 중 모두들 선을 바리바리 싸우고 먹고살고돌고기러 오세요! 선을 안가져봐도.....음...음.... 어쨌든 환영 ㅎㅎㅎ 바쁘고, 힘들어도 기어사라도 꺾꺾 꺾꺾 오길바랍니다!
모두들 Come on!

일시 : 2010년 10월28일(목) **늦은7시부터**
장소 : 문래동공간(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57-4)

공간 찾아오는길은 알려드려요!

 문래역 ①번출구, 신대방역 ①번출구, 신대방역 ②번출구, 신대방역 ③번출구, 신대방역 ④번출구, 신대방역 ⑤번출구, 신대방역 ⑥번출구, 신대방역 ⑦번출구, 신대방역 ⑧번출구, 신대방역 ⑨번출구, 신대방역 ⑩번출구, 신대방역 ⑪번출구, 신대방역 ⑫번출구, 신대방역 ⑬번출구, 신대방역 ⑭번출구, 신대방역 ⑮번출구, 신대방역 ⑯번출구, 신대방역 ⑰번출구, 신대방역 ⑱번출구, 신대방역 ⑲번출구, 신대방역 ⑳번출구, 신대방역 ㉑번출구, 신대방역 ㉒번출구, 신대방역 ㉓번출구, 신대방역 ㉔번출구, 신대방역 ㉕번출구, 신대방역 ㉖번출구, 신대방역 ㉗번출구, 신대방역 ㉘번출구, 신대방역 ㉙번출구, 신대방역 ㉚번출구, 신대방역 ㉛번출구, 신대방역 ㉜번출구, 신대방역 ㉝번출구, 신대방역 ㉞번출구, 신대방역 ㉟번출구, 신대방역 ㊱번출구, 신대방역 ㊲번출구, 신대방역 ㊳번출구, 신대방역 ㊴번출구, 신대방역 ㊵번출구, 신대방역 ㊶번출구, 신대방역 ㊷번출구, 신대방역 ㊸번출구, 신대방역 ㊹번출구, 신대방역 ㊺번출구, 신대방역 ㊻번출구, 신대방역 ㊼번출구, 신대방역 ㊽번출구, 신대방역 ㊾번출구, 신대방역 ㊿번출구

지하철
 * 문래역(2호선) : ①번출구에서 걸어서 약7분
 * 신대방역(1호선) : ①번출구에서 걸어서 약12분

버스 (문래동남성아파트) : 걸어서 약 5분정도
 16, 26, 503, 600, 660, 11, 11-1, 11-2, 51, 83, 88, 561, 5615, 5714, 5512, 5513, 6637, 6640

* 잠깐! 개소식 선물을 뭐 사려고 갈까 고민되나요?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서비스! 선물리스트!
 --* 좋은선물 기대한다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의 선물이 가난한 청소년인권운동의 큰 힘!

책, 빌프로젝트, 가위, 매직, 색연필, 외저, 가판대, 메모판, 멍거(종이), 쇼파, 모기약, 휴지, 접지꽃이, 크레파스, 스티플러(표지매우), 집판달력, 확성기, 접지꽃이, 침대(마루마루이음질대만전환형), 신문/잡지구독권, 탁발뿔, 컴퓨터, 냉난방기(에어컨이음질대만전환형), 자전거발전기, 수저, 컵, 그릇, 접시, 탁안력용기, 목배기, 식기건조대, 토스트기, 버너, 핫플레이트, 고무장갑, 주방세제, 쌀, 반찬, 미면, 과자, 음료, 사위기, 심부, 비누, 지약, 수건, 거울, 화분 등등등
 + 심플발달법적 공간이름!

"어어 난 그날 너무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수가 없네"
 이런 산타까운 분들을 위해 공간 후원제라도 있다는거
1모모리-2너너-4모모48리 **우리는행**

공현, 「[특집] 전환기의 청소년운동: 청소년, 그들의 저항 그리고 정치 - 청소년 활동가가 본 청소년운동의 역사」,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1-2월호(통권 54호), 인권재단 사람, 2012.01.19.

청소년, 그들의 저항 그리고 정치

청소년 활동가가 본 청소년운동의 역사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가방끈 등에서 활동

청소년운동에는 역사가 없다. 물론 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해석하여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한 논문이나 단행본도 마땅히 없고, 청소년운동의 역사 구성이나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적도 별로 없다. 때문에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것이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였다.

이 작업은 청소년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려 시도한 몇 안 되는 작업들 중 하나였지만 청소년운동의 주요 의제와 사건 그리고 흐름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역사 구성과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이 작업은 주간인권매체 <인권오름>에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는 글로 연재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민주화운동 및 전교조 운동과 함께 진행된 ‘고등학생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해 200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이었다. 이 둘 사이에는 운동 조직과 인적 구성에서 분명한 단절이 있고 또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른 차이도 있다. 이 중 현재 청소년 활동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는 당연히 ‘청소년인권운동’이다. [‘고등학생운동’의 경우에는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양돌규, 2006)를 참고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움직임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나 역시 당시 역사 정리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연재 형태로 정리하던 한계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청소년운동을 정리해내는 것이 내 소원 중 하나이다. 여기 소개해 드릴 청소년운동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런 작업의 맥락 때문에 아직 덜 익고 많이 불완전한 것이다. 일단

청소년 활동가들이 어떻게 처음 등장했고, 크게 봤을 때 어떤 고민들을 발전시켜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소년운동의 진행과정을 대략 네 단계로 나눠보았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청소년운동의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이를 미처 다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밝혀 둔다.

온라인에서 모이다

1990년대 중후반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아마도 PC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운동의 자생적인 흐름도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최우주 군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1995년 당시 춘천에 살던 고등학생이던 최우주 씨는 강제적인 자율 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PC통신 하이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는 못했으나 최우주 씨의 글은 하이텔 게시판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하이텔에 개설된 토론방에서 자신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인권 문제를 성토했고, 교육 문제를 비롯해 학생인권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하이텔에는 PC통신 동호회 형식으로 ‘중고등학생복지회’라는 모임이 생기게 되었으며 얼마 안 있어서는 다른 PC통신인 나우누리에도 ‘중고등학생복지회’가 만들어졌다.

중고등학생복지회는 토론과 세미나, 언론 인터뷰, 소식지의 발행 같은 활동을 했다. 당시는 교실붕괴, 학교 폭력(왕따, 일진회 등), 대안교육 등을 비롯한 이른바 청소년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와중이어서 중고등학생복지회는 학생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생적인 모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98년 중고등학생복지회에서는, 교육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선언을 만들려는 준비를 하다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하여 중도 포기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했다.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는 한국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의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권리 요구를 정리하여 발표한 최초의 문서로 학생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다.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중고등학생복지회뿐만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채널 텐(Ch.10)’, ‘네탄’, ‘아이두’, ‘사이버유스’ 등 많은 청소년 사이트들이 등장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소통 공간이 열리자 많은 청소년들이 비용이나 거리의 한계를 넘어 소통하고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웹사이트들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청소년 문화 등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었고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여서 PC통신에서 활동을 하던 중고등학생복지회보다 더 개방적이었으며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채널 텐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웹진”이라는 모토를 걸고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했던 웹진 사이트였고, 아이두는 10대들의 포털 사이트를 표방하며 블로그, 다이어리, 사진, 토론게시판 등 여러 기능을 제공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고 운영된 사이버유스와 같은 곳도 있었다.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인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때였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던 부당했고 억울했던 일”은 게시판에서 다른 청소년들의 공감을 받고 비슷한 사례들과 만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처한 보편적인 현실로 인식됐다. 사이버유스와 아이두 등에서 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청소년들의 성 생활, 자퇴,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등 학생인권 뿐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들이 게시판에서 오갔다. 이 시기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단지 게시판에 자기 학교의 이야기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온라인 활동과 동시에 정기모임 등 온라인 밖에서의 활동도 이어나갔다. 직접 서버와 기술력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청소년 활동가들도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조금씩 활성화되던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을 시작한 청소년 활동가들도 있었다.

사회운동으로 등장하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모여서 개개인의 불만을 사회적 목소리로 승화하던 청소년운동은 마침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0년 ‘노컷운동’을 꼽을 수 있다. 노컷운동은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두발규제 반대 운동의 이름이다. 노컷운동은 평소에 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고, 또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에 한국 학생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모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밖에 없더라”는 경험담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채널 텐, 아이두, 사이버유스 이렇게 세 사이트가 모여서 꾸린 ‘웹연대 워드(WITH)’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

웹 연대 워드는 ‘자르지마!’ 배너 달기 운동과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을 이끌었다.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은 2000년에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크게 이슈화됐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으로 꼽힐만한 사례였고, 한국에서는 막 등장하던 인터넷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운동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켰다. 결국 2000년 노컷운동은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로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두발규제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두발자유 조치를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한편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내부에서 일어났다. 중고등학생복지회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중고등학생복지회 활동이 한계에 부딪쳐 침체기를 겪자 ‘업그레йд 학생복지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0년 상문고 학생들의 사학 투쟁 사건이 알려지고, PC통신 대신 인터넷이 주류로 떠오르는 등의 상황이 작용하여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대중적인 청소년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런 주장을 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2000년,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만들게 된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은 노컷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명동에서 캠페인과 피케팅을 하고 토론회에 참가

하여 완전한 두발자유화를 주장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지명도를 높였다. 노컷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은 곧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으며 전국에 여러 지부를 갖춘 단체로 성장했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두발자유 운동 외에도 체벌반대 운동,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운동,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반대 운동, 고교등급제 및 자립형사립고 반대 운동,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한 학교교칙 분석·인권핸드북 발간 등의 활동을 했다.

노컷운동을 했던 웹 연대 위드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외에도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등 다양한 청소년 모임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이 시기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이야기한 삶의 문제들을 사회운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때였다. 노컷운동에서 청소년 웹사이트들이 연합하여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청소년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드러냈던 것이나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다양한 학생인권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인 것이 모두 그런 예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청소년운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나 운동론, 단체의 상 등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청소년 활동가들은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을 주로 취했다. 어떤 이들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지만 하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일부 청소년 활동가들이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나 청소년운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정치적 의식이 형성되다

2001년 또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 시기 동안 청소년운동의 역사는 복잡하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운동의 의제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두발자유, 체벌 등의 학생인권 의제는 물론이고, 2003년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 투쟁을 통해 제기된 정보인권 문제, 강의석 씨의 투쟁으로 공론화된 종교의 자유, ‘안티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경쟁교육 반대 운동, 학생회 법제화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운동, 인권의고와 용화여고 등에서의 사학 학생인권 투쟁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만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등 굵직한 사건들과 새롭게 제기된 의제들이 수없이 많았다. 반면 청소년운동을 해나갈 단체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부침을 거듭했다. 의제들은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 단체들이 재생산에 실패하고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구성원들이 나이가 들어 비청소년이 됨에 따라 2~3년 만에 단체들이 공중분해 되는 상황, 청소년인권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어도 미미한 성과에 그치는 상황은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고민하고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대응은 다양했다. 만 18세 선거권 운동을 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슈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느슨하지만 유연하게 결성되는 네트워크형 조직을 실험하기도 했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학생회장들을 규합하여 대중성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학교 안에 지회를 만들어 학내 조직화를 통해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려고 했다. 그러나 지회 운동 역시 학교의 강력한 탄압과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역량 부족으로 거의 실패했으나 이처럼 이슈 파이팅 외에 청소년운동의 방법을 찾아나가기려는 시도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행동하는 청소년(경남 진주)’, ‘작은 숲(부산)’과 같은

청소년운동 모임들이 만들어졌으며, ‘청소년의 힘으로’ 등의 조직들이 만들어져 청소년 활동가들의 수도 늘어나고 다양성도 증대되어 청소년운동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한층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 청소년운동은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때문에 일어난 촛불집회와 한국 정치의 상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에 이어 2003년,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라크 파병 반대로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된 청소년 활동가들이 늘어났다. 1980년대의 고등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아래 전고협)는 청소년의 권리와 권익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이진 않았으나 이러한 촛불집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청소년운동에 등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의 좌파 진보정당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좌파나 진보적 청소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사회운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나타났다. ‘진보적 청소년 연합’이 대표적이다. 안티조선, 노사모, 열린우리당 등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 활동가들도 있었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사회운동으로서 청소년운동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청소년 활동가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적 의식이란 청소년운동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과 조직론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모색했으며, 청소년운동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 시기를 통해 청소년 활동가들은 다양한 청소년운동의 방법론들과 운동에서의 쟁점들을 정리했으며 또한 사회주의, 아나키즘, 여성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이론들과 이념들을 참고하여 청소년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갔다.

실천과 행동으로

2005년은 청소년운동에 특별한 해였다. 2005년 5월, 내신등급제 도입을 계기로 입시경쟁에 반대하며 청소년 1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거리에서 촛불을 밝혔다. 청소년운동을 해오던 어느 단체도 어느 활동가도 의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던, 미조직 대중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또한 같은 2005년,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거리 집회가 재차 벌어졌다. 여러 학교들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래커 시위, 종이비행기 시위, 운동장 시위 등 학내시위들로 이어졌다. 학내시위의 대부분도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2005년,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들은 제대로 된 성과로 남지 못했다.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교육 정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으며, 두발자유운동도 성과를 얻긴 했으나 만족할 만하지는 못했다. 놀랍기까지 했던 청소년들의 자발적 저항들이 별 다른 성과 없이 사그라지자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성찰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05년 5월 21일 제9회 서울인권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청소년인권운동, 미래를 본다’ 토론회”(인권운동사랑방,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이수나로 주최)에서는 한해살이 운동, 제자리 걸음인 운동, 공유되거나 축적되지 않는 경험, 남지 않는 활동가들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런 고민은 본

격적으로 2006년 2월,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워크숍에서 구체화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운동을 아우르는 상설 연대체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 구상은 3월에 발전하는학생회 기자,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출범으로 현실이 되었다.

2005년 이후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청소년학생연합(전청련의 경우에는 2008년 촛불집회 때 생겨났으나 2010년을 못 넘기고 해산했다.) 등 여러 청소년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운동은 학교 안에서의 여러 투쟁들과 광장에서의 집회, 언론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이슈파이팅 등을 넘나들며 이루어졌고, 과거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정리된 운동론과 청소년에 대한 이론과 주장을 운동의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방법적으로는 활동가 조직과 대중 조직의 역할 구분, 지역 조직과 학내 조직에 대한 시도들, 학습과 홍보 등의 준비, 조직화와 직접 행동과 연대를 중심에 둔 운동 등이 현재 청소년운동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가정과 학교로 집약되는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 제도들,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이 운동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 및 학교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가정과 친권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청소년 제도들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청소년운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청소년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 공 들여 싸워온 학생인권 분야에서는 학생인권법 운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경기도, 전남 광주, 서울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 교육운동,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안에서도 청소년운동 그리고 청소년 활동가들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주제로 한 책과 논문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해서 청소년운동은 자신의 과제를 충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운동은 많은 부분 이슈파이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중 조직이라고 할 만한 것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론과 담론을 실천과 행동으로 실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길이 멀어 보인다. 긴 싸움을 통해 학교의 직접적 탄압을 어느 정도 없애는 데 성공한 듯하지만, 가정의 탄압은 여전히 반면, 경쟁적 교육과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청소년운동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나갈 것인지와 같은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에서 익힌 감수성과 의식에 따라 탈학교나 대학입시거부를 선택하고 다른 삶을 살려는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도 작은 도움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형편이다.

내가 체감하기로는 최근 청소년운동은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특정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5~6년 간 이루어진 청소년운동은 다소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비록 지역마다 차이는 크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가장 많은 준비를 해오고 경험을 쌓아온 학생인권 문제는 일정 부분 진보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주요한 의제에서는 어떠한 지 모르겠다. 또한 의제 면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숫자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전 세대와 지금 세대 사이의 연속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마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같은 존재들인 것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서너 번에 걸친 세대교체가 있었으며 따라서 감수성 차이도 크고 고민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도 있었다.

2012년, 청소년운동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잘 하는 동시에 청소년 활동가들의 조직화 계획이나 운동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다. 청소년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개개인의 삶의 문제 역시 같이 고민해야 한다. 들어가는 돈도 처음에는 수십만 원 정도로 어찌어찌 개인들이 희생해서 꾸려가던 운동들이, 이제는 수백 수천만 원 단위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화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통장에 찍히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마저도 두려울 지경이다. 그래도 나는 청소년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앞날을 낙관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좀 더 가보자고 제안하려 한다. 그리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다시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날 외, 『[특집] 전환기의 청소년운동: [좌담] 청소년 활동가들의 운동 안팎을 향한 투쟁』,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1-2월호(통권 54호), 인권재단 사람, 2012.01.19.

청소년 활동가들의 운동 안팎을 향한 투쟁

청소년, 그들의 저항 그리고 정치 - 청소년 활동가로 살아가기, 살아남기

기록과 정리 한날(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사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날짜와 장소 2011년 12월 17일, 인권재단 사람

2011년 12월 16일,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미뤄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시기장조를 운운하며 조례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추운 겨울부터 한 여름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¹⁾ 한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날, 좌담을 위해 다섯 명의 청소년 활동가들을 만났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총 6개 권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이에 힘입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유사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번져 나갔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 청소년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의 의제로 꾸준히 학생인권을 주장해왔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학생인권이라는 의제는 각별하다. 두발자유, 체벌금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학생인권운동은 말 그대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학교 안에 등교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렇다고 청소년 활동가의 인권활동이 모두 학생인권으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를 지나 꾸준히 성장한 청소년 인권운동은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고민하는 데까지 그 의제가 확장되었고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모임들 역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 다행히 2011년 12월 19일 재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교육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기쁨도 차나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압력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촛불 정국 이후 청소년 인권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투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했다. 특히 홍대 두리반, 명동 마리와 같은 철거 투쟁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의 얼굴을 쉽사리 마주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른들’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 ‘어린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무얼 먹고 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살기 위하여 활동하지만 일단은 살아남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 모셨다.

[참석자]

공기 1993년생. 17세에 탈학교. 2008년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인권활동을 만남. 두리반, 마리 등 재개발 반대 농성 투쟁에 함께함. 사회당 청소년 위원회 준비모임,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참여.

따이루 1993년생. 16세, 18세 두 번의 탈학교. 학생들에게 시비 거는 강남 출신 영어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온라인 카페 발견, 활동 시작. 2007년, 인권활동을 반대하는 집과의 투쟁으로 가출/독립 감행하여 3년간 지속. 청소년 알바 노동의 실태를 알리는 활동도 함.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참여.

아리데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08년, ‘입진보’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소개로 청소년 인권운동 알게 됨. 이곳저곳 찾아보다 이수나로 알게 됨. 이수나로 인천지부에서 주로 활동하며, 인천 인권영화제 자원 활동도 함.

한민성 1993년생. 15세에 탈학교 후 고등학교 다시 진학. 운동의 시작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모호함. 사회에 불만 많은 불운세력. 2007년, 제도권 밖 교육을 고민하는 민들레 사랑방(現 공간 민들레)을 잠시 다니기도 명동 마리 투쟁을 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을 만남.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

혜원 1993년생. 18세에 탈학교 이수나로 남양주 지부 활동가. 2009년 일제고사 반대 투쟁 때 전교조 간부인 엄마 손잡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수나로 활동가들 만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가운고 무더기 강제자퇴 사건해결 대책위원회 등 참여. 경기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사업에도 열중. 2012년 대학 입학 예정.

길지 않은 인생, 짧지 않은 활동의 역사

배경내 본인이 청소년 활동, 청소년으로 운동하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본인이 해왔던 무수한 활동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마음이 많이 쓰이는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소개해주셨으면 한다.

공기 2008년도에 부산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 그 시기가 딱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였다. 집이 서울과 가까워져서 집회에 나가기 좋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같이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의 연속인 생활을 하다가 촛불이 사그라지는 시점에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알게 되었다. 이수나로가 촛불 청소년 모임에 연락을 취해 왔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일제고사 반대 투쟁의 한 방식으로 등교 거부를 했다. 시험이 이틀간 이어졌는데 하루는 등교 거부를 했고, 하루는 OMR 답안카드에 ‘Say No’²⁾ 라는 글자를 새겨 답안 마킹을 했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담임선생님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성공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애절한 활동은 일제고사 반대 투쟁과 최근에 했던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투명 가방끈 활동이다.

배경내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공기 촛불의 처음 화두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였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처럼 한우를 사먹을 수 없고,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나갔다. 그리고 전경들이 사람들 때리고 물대포 쏘는 것을 보면서 같은 국민들에게 이런 일도 해도 되는 건가 싶었다. 2007년 대선 때도 할머니한테 정동영, 민주당을 뽑으라고 말했다. 정동영 공약 중에 집을 준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 그런데 투표소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자신은 이명박을 뽑았다고 하더라. 왜 뽑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명박 뽑으라고 했다고 선거,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그 후 안티 이명박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배경내 일제고사 투쟁이 각별한 이유를 좀 더 말해준다면?

공기 촛불과는 다르게 내 현실에 대해 자세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열심히 반대하고 투쟁하면 일제고사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해도 안 바뀌더라. 열심히 해도 세상이 잘 안 바뀐다는 걸 크게 느끼니 오히려 애착이 갔다.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피곤에 찢어 있고 결국 이런 고생이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때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실패의 경험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가 두리반이나 마리, 현대차 사내하청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 함께 하면서 승리의 맛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2) ‘Say No’는 2008년 당시 무한경쟁·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의 이름이었다. 1%만을 위한 경쟁 교육에 당당히 No를 외치자는 의미.

것이 아닐까 싶다.

배경내 해원도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통해 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아니었나?

해원 공기가 많은 애착을 느낀다고 하는데, 나는 첫 행동을 하는 계기였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시험 안 볼래?”해서 좋다고 집회에 따라갔다. 거기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공기와 파이루였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건 학교 탓이 컸다. 중학교는 구미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남양주로 이사를 왔다. 사립 미션 스쿨이었는데 입학식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 얼굴도 보기 전에 신입생들에게 학교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시켰다. 종교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강당에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 했다. 평일에 등교하면 수업 시작 전에 반별로 기도회를 했다. 자기 반성하는 일기를 쓰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정말 적응이 안됐다. 전학 가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랑 밥도 같이 먹고 등학교도 같이 하기로 약속했었다. 근데 그 친구랑 1년 동안 딱 한 번 집에 같이 가봤다. 선생님이 오셔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더니 뭔가 얘기를 했다더라.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성적이 좋아서 심화반이 되어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해야 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친구와 친해질 수 없었다. 학교에 불만은 쌓이고, 견딜 수가 없고, 활동 할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니 더 괴로웠다. 학교에서 성가 대회를 하는데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고 물으니 학교에서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학교를 안 가간 적도 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보니 청소년인권운동에 더 매진하게 되었다. 올해는 운동할 때 굶직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가운고 투쟁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루 단위로 상황이 바뀌니 잠도 못자고 글 쓰고, 면담을 가고 그랬다. 그 때 엄마가 “너는 학교 싫어서 때려 치워 놓고 개네들은 왜 학교로 돌려보내려고 하나”고 물었다. 그 둘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교라는 공간이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추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는 학교를 나오길 선택한 거고, 그 친구들은 학교로 돌아가길 선택한 것이다. 내 모습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화장을 했다고 혼내고, 파마했다고 모욕을 주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다. 나도 머리 파마한 날은 (교사에게 안 잡히려고) 아침 6시 반에 등교하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뭐라도 바꿔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못한 걸 그 친구들은 선택을 한 것이니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 학교와 교육청과 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배경내 일제고사 집회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것에 끌렸나?

해원 막연히 시험을 보기 싫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농땡이 부리는

3) 2011년 개교한 가운고등학교에서 올해 입학한 학생 18명이 한 학기도 다니지 못한 채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자퇴를 강요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별점이 80점 이상 누적된 학생은 퇴학이라는 조항과 흡연하다 4번 이상 적발될 땐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흡연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다산인권센터, 이수나로, 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 등이 꾸린 ‘가운고 무더기 강제 자퇴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해원은 ‘문제아 홀로코스트’라 칭하기도 했다.

거라고. 그런데 집회에서 만난 청소년 활동가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견고한 의견을 만들고 있었고,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학교에서는 절대 그런 친구들 못 찾아 봤으니까. ‘나랑 동갑인데 재는 왜 교수 같고, 선생님 같지?’하고 생각했다. (따이루, “공기, 역시 우리에게 끌린 거지?” 웃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단순히 내 치기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민성 나는 여기 와있는 것이 좀 그렇다. 내 자신을 청소년 활동가라고 칭할 만큼 이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회에 불만 많은 불온세력이었고, 그런 애들끼리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모여 있고, 같이 책을 읽었다. 중학교 때 포이동에 살았다. 어중간한 크기의 전셋집에 살았는데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한 교실에 완전히 분리된 두 계층의 아이들이 있었다. 포이동 쪽 애들과 포이동이 아닌 애들 성적 차이가 20점 정도 났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건가 고민했다. 나는 그 중간이었고, 두 부류와 다 친했다. 도서관에 처박혀서 ‘왜 재들은 저렇게 다른 세계를 만들까’ 궁금해 했다. 이 생각이 확장되어서 계급론 같은 것도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학교가 더 마음에 안 들었다.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계급사회를 유지시키고 재생산만 부추기는 곳이었다. 교사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학교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학교를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왔다. 책 읽고, 시민단체 활동가인 엄마 일도 돕고, 민들레 사랑방도 잠시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치렀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검정고시 성적이 잘 나왔다. 계속 공부를 해 볼까하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이사를 해서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바로 두발 검사하고 학생들을 잡더라. 그 전에는 내가 청소년 계급 혹은 계층이라는 자각을 못했는데 이때 확 와 닿았다. 교복 입고, 머리 깎이는 것에 불만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학내에서 피켓 들고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학교에 문제제기 하고 그랬다.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수나로라는 단체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결합은 안하고 학내에서만 싸웠다. 그러다 학교에서 엄마를 소환했었는데, 우리 엄마도 보통이 아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나만 머리를 안 깎고, 파마도 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승리였다. 구조는 바꾸지 못했고 일제고사 때도 그냥 잤고, 답안지에 장난으로 ‘김일성 만세’라고 낙서했다.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잘 안했다. 싸우는 것도 귀찮고 이에 대한 회피로 명동 마리와 같은 투쟁에 합류했던 것 같다. 공부가 싫으니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당을 옮기고, 마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보니 우연히 진보신당 청소년 당원이 8명이 있더라. 왜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목소리를 안냈었지? 의문을 품으며 진보신당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었다. 많은 친구들을 입당시켰다. 학내에서 같이 싸웠던 친구들이 입당해서 우리 학교 6명이 진보신당 당원이었다. (웃음)

배경내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을 말씀해주신다면?

한민성 당에서 활동하며 논의했던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의제들이 떠오른다. 민주노동당이랑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통합 진보당 강령 초안을 보니까 청소년 관련 내용이 쏙 빠져있었다. 진짜 노력해서 진보신당 강령 29조⁴⁾를 만들었는데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정치적 자립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예 강령에 청소년 한 글자도 없더라. 학생이라는 언급은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당 대회 때 피케팅도 하고 논쟁도 했다. 끈대 아저씨들 만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계속 설득했다.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배경내 파란만장한 삶이다. 아리데 님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셨나?

아리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이수나로를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진보적이셨다. (웃음) 실제로 예전에 청와대 앞에서 점거도 하고, 시위하다 끌려가기도 했다더라. 아버지가 전교조 교사시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앉혀놓고 노동자나 계급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셨다. 너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졌다. 첫 날부터 교문에서 애들을 잡고, 머리를 자르고, 왜 이렇게 해야 하나고 선생님에게 물으니 규제를 안 하면 술 사고 담배 살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셨다. 뭔가 아닌 것 같더라.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물어보니 쪽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은 나쁜 거라고 알려주셨다. 학교에서는 당연하다고 하는 걸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던 거다. 중학교 1학년 때 풋볼 집회가 있었고, 가족들이 단체로 참여했다. 혼자서 집회를 가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어린이 혼자 있으면 슬프다, 위험하다, 집에 가라”는 말을 많이 했다. 왜 그럴까. 나는 지하철도 혼자서 잘 타는데. 짜증이 났다. 그러다 이수나로를 알게 되어 가입했다. 예전에 『열정세대』 라는 책을 읽었다. 다른 삶을 사는 청소년들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실린 파이루가 실제로 있더라. (웃음) 아버지도 처음에는 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하셨다. 처음 회의에 갔는데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활동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버지가 슬슬 공부해야 하지 않냐고, 무슨 얘기 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보셨다. 대학 평준화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가 내 의견을 까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말에 반박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다.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도 공부를 해서 저 나쁜 아버지를 이겨보고 싶다! 그 때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나도 일제고사 투쟁이다. 학교에 빠진 걸 아버지가 알고 전화를 하셨다. 이야기를 쪽 하나까 아버지가 열심히 해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신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또 앉혀 놓고 반론을 펴시기 시작했다. [공기, “아버지 밀떡(밀고 당기기) 장난 아니다.”] 하지만 그날은 드디어 내가 이겼다. 다음 날도 학교에 빠졌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버지와 투쟁에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내가 처음으로 학교를 빠진 날이기도 해서 많이 기억에 남는다.

공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유를 갖고 학교 빠진 날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리데 계속 개근상을 받아왔다. 학교 안가고 싶은 날은 감기 들었다고 핑계 대고 그랬다.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파이루 초등학교 때까지는 삼성 CEO를 목표로 성균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웃음) 그러다

4) 진보신당 강령 본문 29조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 학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내 앞에 수백 마리의 (교복 입은) 검은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 징그러웠다. 막상 들어가서는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영어 교사와 싸우기 시작했다. 강남 출신인데 너희가 불쌍해서 구로구에 와줬다 등등 애들한테 모욕을 주고, 교과서 안 가져오면 페이지 수만큼 머리를 때렸다. 어떻게 하면 저 교사를 괴롭힐 수 있을지 검색하다 이수나로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다. (웃음)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 열심히 개조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두발 자유 시위, 학생인권법 제정 활동 등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을 학교 안에서 받기도 했는데, 우리학교 1학년 총 400명 중 200명에게 받았다. 서명 받다가 선생님한테 걸려 이미 다 받은 서명지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잘 넘겼다. 그 이후로는 활동하면서 학생부 선생님께서도 끌려가고, 학생인권 뺏지 달았다고 혼나고 중학교 내내 싸웠다. 중학교 3학년 때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촛불 분위기도 싫고 재미도 별로 없었다. 청소년들도 얼마 없어보였다. 그런데 내 예상과 다르게 폭발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그냥 앉아 있기 지루하니까 참여할 방법을 연구했다. 다른 청소년 활동가들과 거리에 낙서도 하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학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보니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고, 결국 출석일수 부족으로 제적 위기가 왔다. 결국 중3 말에 자퇴를 하게 되었다.

배경내 자퇴 후에 활동 방식이 달라졌나?

따이루 인생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학내 운동이 아닌 학교 밖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졌다. 다른 애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실무 능력이 완전 증대됐다. (웃음) 기자회견 준비정도는 하루 전에 딱딱 가능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학내 운동, 학생회 운동, 교육 운동 하고 싶다는 고민이 많아졌다. 자퇴 7-8개월 만에 위장 취업 느낌으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했다. (웃음) 너는 아무리 봐도 학생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들으며 갔는데 결국 몇 달 만에 다시 자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살이 되었고 말로만 하던 대학입시거부 운동을 했다. 어차피 대학에 안 갈 것이지만 내가 대학에 안 가는 이유를 사회에 대고 목소리 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배경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독립해 살았던 이야기도 해주시라.

따이루 2007년 11월 11일, 제 2의 생일이다. 2007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뉴스마다 시청 광장이 봉쇄되고 경찰이 투입된다고 방송이 나왔다. 엄마아빠가 집회에 가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편지 한 통을 쓰고 나왔다. 편지 써놓고 통금 시간되기 전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쫓겨났다. 공현 활동가의 집에 얹혀살면서 기출과 독립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3년을 살았다. 엄마는 보험 하나 들어준 것 말고는 별다른 교류 없었다. 학교와 가정이 사라지니 실무 능력이 다시 급상승했다. 일단 생기면 다들 따이루를 찾고 (웃음) 토론회에서 청소년 패널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고. 그 놈의 생생토크! (배경내, “너의 생계지원비를 마련해주려고 그런 거야.”) 나름 재미있었다.

배경내 제일 애착이 갔던 활동은?

따이루 학생인권 운동을 하고, 2007년에 이랜드 비정규 투쟁을 겪으면서 학교의 경쟁 교육이 못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뉴스에서 월드컵 경기장 홈에버 점거 상황을 보여줬는데, 내게는 혁명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점거한 걸 리얼하게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뜻에 동의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화 충격이었다. 다음 날 교회에 안가고 회사한 옷 입고 놀러 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점거 농성장에 갔는데 인권운동 사랑방 사람들을 만났다. 벽보도 같이 그렸다. 그냥 결합하는 것보다 청소년 활동가로서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서 ‘비정규직 저주를 푸는 청소년 119명 선언’을 준비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서 118명을 모았다. 내가 주도해서 성사시킨 첫 번째 일이었다. 용역들이 와서 기자회견 현수막도 뺏어가고 난리를 피워서 얼마나 서럽던지. 이랜드 투쟁으로 용역의 문제점부터 비정규직 문제, 학교 교육과 사회의 연관 문제, 기독교의 문제까지 내 삶의 문제를 전부 다 건드렸다.

청소년 활동, 어디까지 성장했나

배경내 참여하신 분들의 활동사를 들어보니 청소년 인권 현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바깥의 사회운동과의 관련성도 느껴진다. 여러분이 활동해온 만큼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청소년들의 활동만큼 예전보다는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청소년 활동이 대세라는 농담도 했는데, 청소년 인권활동이 어디까지 변화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려 달라.

공기 대세라는 말은 취소한다. (웃음) 그렇지만 다른 운동 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은 든다.

배경내 운동 사회 안에서 예전보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고려되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느낌인지?
혜원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지랄’해야 했다. 회의 때마다 부딪히고.

배경내 예전의 청소년 단체들은 주로 어른들의 지원 하에 보여주기 식 운동을 많이 했다. 청소년들 스스로 만든 조직은 1년을 못 버티고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이수나로는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국 지부까지 건설하면서, 물론 내부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활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다. 진보신당, 사회당과 같은 기존의 정당 안에 청소년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기도 하다.

따이루 꼭 진보적인 색깔을 띤 모임이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조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 청소년 미래리더 연합(한청미련)을 보더라도 그렇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의존도가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보수 성향의 청소년 모임은 청소년들이 만들지도 않았고,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의욕도 없었고, 서포터즈 정도의 이벤트성 모임이었다. 내용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청미련을 내 운동의 소중한 결과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웃음)

한민성 한청미련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회원들 프로필을 보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하다.

따이루 한청미련이 강령이나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보 이런 걸 중시한다고 표방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다양하다. 스펙 쌓기도 되니까. 그럼에도 주목할 지점은 스카우트 같은 동원수준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한민성 청소년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은 된다.

따이루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2라운드인 것 같다. 학교 안에 불만 있는 애들이 인권운동하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래서 조직을 하긴 쉬웠다. 분노하는 지점도 단순했고 그런데 지금은 분노하는 지점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 방식도 다양하다. 인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수나로와 같은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 운동도 등장했다.

한민성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도 청소년 분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배경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

한민성 2008년 촛불 집회의 영향도 있고, 명동 마리 투쟁처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트위터.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자각이 뚜렷하기보다는 이한테 관심 많은 한 명의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청소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들을 만난 것이 아닐까.

따이루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폭발적이지도 않다. 다양한 모임의 형태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이 플러스 되는 것은 적다. 사노위도 청소년 활동가가 2명인가? 다른 모임들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명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운동이 양적으로 팽창하기보다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배경내 가운고 투쟁의 예처럼 자신들을 청소년 활동가로 정체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하진 않지만 사건으로써 청소년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탄탄하게 생겼고 여기 계신 활동가들도 몇 년씩 활동하신 분들이고 이런 게 변화된 지점인 것 같다.

공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운동이 청소년 활동 혹은 청소년 활동가들을 놓치기 싫어한다는 느낌도 받는다. 미래의 활동지원? 재생산? 미래 정식 당원? 활동가 배가 투쟁? 이런 것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배경내 기존 운동이 어려움을 겪다보니 청소년 활동가들이 더 소중해 보이는?

따이루 현실에서 답이 안 나오다 보나……. 내가 노동 운동이나 다른 운동을 해도 그럴 것 같다. 지금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새로운 운동을 지원하고, 같이하고, 소통하는 움직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배경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바리 활동가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반대 운동하는데 청소년 활동가들 없으면 못할 거라고. 지금 누가 이 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한민성 전형적인 투쟁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 민중가요만 부르던 문화에서 벗어나 인디 음악을 만나는 등 문화적으로 다양해진 것도 청소년들의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지속할 수 있는데 힘이 되는 것 같다. 일

본 서브컬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회당 덕후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었고 유쾌하고, 즐기면서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하다.

공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운동 경로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가 나름의 운동이 있고, 그 음악으로 집회 현장이나 투쟁의 현장에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1,000회까지 집회를 이어 왔는데도 사회적 관심 없다가 이번 1,000회 때 1,000명 넘는 사람들 집회에 몰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

따이루 청소년운동은 기존 운동과 다르게 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틀을 깨고 성장하는 것을 즐긴다. 애초의 운동은 학생인권 의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훨씬 영역이 넓어졌고, 그러다보니 10명으로 시작해 20명이 되고 더 넓어지고, 알을 깨고, 틀을 깨고, 다양성과 말랑말랑함이 청소년운동의 가장 큰 매력이자 힘이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주는 구조다. 청소년운동은 자기 안착을 원치 않는 것 같다. 아직은.

운동 사회 안에서 정치하기: 보호주의, 나이주의와의 투쟁

배경내 청소년 활동이 성장했다 혹은 폭풍 성장의 잠재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사회 안에서 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호주의, 나이주의, ‘꼰대’와의 투쟁 등 우여곡절이 많다.

혜원 지금도 그렇다. 어제부터 트위터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심의 보류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보류된 것 자체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주고받는 말을 보면서도 상처를 받았다. 농성에 참여했던 분이 “청소년 활동가들이 우는데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싫다, 불쌍하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트위터에 남긴 걸 봤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청소년 활동가들이 어른들도 안하는데 애써서 서명 받았다’ 이거에만 방점이 찍히니까 동정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 동등한 투쟁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우울했다.

따이루 주민발의 서명운동 할 때 특히 그랬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청소년의 주체성을 베이스로 깔고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민,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한 거라고 기성세대들에게 말 걸기 할 때 항상 고민이 됐다. 내 양심을 파는 느낌도 들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발언할 때 우는 것 보고 누가 ‘우리 아이들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했었는데, 서명 받을 때는 맨날 ‘도와주세요’ 느낌으로 활동했다.

공기 두리반 투쟁할 때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서 생활하면서 연대했다. 그럼에도 가장 걸렸던 것은 연대의 주체로 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를 그저 놀러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때 물론 놀기도 했지만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연대를 해도 이곳에서는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패배감에 젖었다. 그럼에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이곳에서 해온 활동들에 애착이 계속

발걸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청소년으로서 동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두리반 안에서 혹은 운동사회 안에서도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함께 싸워보자는 친구가 있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 상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투쟁 주체들과 대화하기 위해 청소년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 커피도 같이 마시고, 아침밥도 차리고 투쟁 농성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더 챙기면서 내가 가진 문제의식도 전달했다. 가장 많이 싸운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청소년 활동가에게 바로 반말하는 것, 그리고 담배 문제였다. 농성장을 함께 지켰던 분에게 왜 담배 문제를 계속 지적하냐고, 내가 여성이고 어리기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아들만 키워봐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날 엄청 울었다. 그만큼 예민하고, 당당하지 못했다. 또 다른 경우 농성장에 방문한 50대 남성이 “내가 네 아빠뻘인데 내 앞에서 담배 피우냐?”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나는 아빠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 아빠가 없어서 네가 버릇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면 욕하고 따질 수도 있지만 당시 철거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막 말하기 쉽지 않았다. 확실히 청소년 인권운동이란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하는 운동인 것 같고, 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누구나 적이 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시선이 있을 때 누구나 적이 될 수 있고 싸워야 하는 상대가 되는 것처럼. 두리반 투쟁 이후 명동 마리 투쟁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 때 기조가 반차별, 반폭력, 누군가에게 노동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청소년 활동가들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두리반 투쟁의 경험 속에서 변화가 있었다.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

한민성 마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당장 용역들에 끌려 나갈 수도 있는데, 마리 투쟁은 숫자상으로 청소년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원이 역량이니까. 끝내 아저씨들 입장에서 ‘재네들 잘못 건드리면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따이루 이수나로가 존재감이 별로 없던 시절, 내가 연대 담당자로 교육운동 단체들이 모인 회의에 들어갔는데 대뜸 “뒤에 있는 학생은 누구 따라 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내가 혼자서 왔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나아져서 다른 단체 회의실 빌리는 것도 더 쉬워지고, 논의할 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운동 영역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위치가 점점 동등해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개인적인 노력과 용기만으로는 벅차다. 공기처럼 청소년도 열심히 하고, 눈치를 봐야 겨우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건가? 무슨 자격 검증도 아니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리 투쟁 때처럼 청소년들의 운동의 힘 자체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

해원 계속해서 운동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긴 하지만 운동하는 청소년들 안에서의 조직력은 약화되기도 한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조건이다. 대학이나 성적 경쟁, 집과 학교의 태클 등. 그것이 심해질수록 조직력은 약해진다.

아리데 청소년 활동가의 문제제기를 비아냥거리듯 비꼬는 경우도 있다. 인천에서 학교인권을 위한 시민 연대 활동을 하는데 내가 존댓말 해달라고 요구하자 “아, 이수나로 분들은 반말하는 거 싫어하신덴지?” 이러면서 깨알같이 웃더라. 회의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다.

따이루 서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문제제기하면 많이 비웃는다. 아, 네, 뭐, 이런 분위기. 회의 중간에 “아니 학생이!” 이러면서 다시 반말하고 19살 넘는 어른들을 기득권층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할 때도 있지만 힘의 논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무시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것. 청소년운동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질적, 양적 성장을 했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여전히 지역, 인천만 가도 그런 기반이 없으니 쉽지 않다.

배경내 당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한민성 정말 퇴장하고 싶을 때가 많다. 끈대 아저씨들하고 한 시간만 있으면 진짜. 전선이 두 종류다. 당내, 당외. 1990년대 초반에 여성주의자들이 운동사회 내부에 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게임 섰다운동 반대 시위 할 때도 당에 지원을 요청하려고 중앙당을 찾아갔다. 그런데 중앙당 관계자들이 게임은 진짜 나쁜 건데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느냐, 청소년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니 지원은 해주겠지만 문화 향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라고 결과적으로는 정작 재정 지원 하나도 안 해줬고, 자동차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자동차 지원 안 해줬고, 발전기 하나 지원해줬는데 발전기는 고장 나 있는 상태였다. 오히려 발전기 운반을 우리 돈 내고 했고, 그것만 십만 원 깨졌다. 진짜 화가 난다. 당내 투쟁이라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 어차피 밖과의 싸움은 각오한 일이고, 계획된 선에서 하는 것인데. 당 내부에서의 일은 급작스레 태클이 걸린다. 우리가 먼저 장비를 빌려 놓아도 우선순위가 늦은 다른 데 먼저 장비를 빌려주기도 한다.

배경내 정말 서럽다.

혜원 나는 주로 연대 활동할 때 전교조와 함께 하게 된다. 그런데 엄마가 전교조 간부라는 특수성이 있다. 가운고 투쟁을 할 때 전교조 활동가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너 왜 지금 전화해. 수업시간 아니야?” 이러더라. 그래서 자기 제자로 착각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는 탈학교 청소년이고 이수나로 활동하는데 반말 좀 자제해 달라, 청소년이라고 다 학교 다니는 건 아니라고 문제제기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정황을 교육 잡지에 투고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읽고 나서 나에게 “네가 우리 엄마 딸인 거 알고 그랬다.”라고 연락해왔다. 나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는다. 전교조 본부에 가도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왔냐고, 엄마 잘 있냐고 반말로 묻는다. 어딜 가나 엄마 딸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나를 이수나로 활동가로 봐주질 않는다. 누구 선생님의 딸로만 규정한다. 여기에 대놓고 문제제기하기도 내 입장에서는 어렵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까놓고 말하는데 엄마가 끼여 있으니까. 나의 모순이자 좌절이다. 최근에는 전교조 사무실에 갔다가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다른 활동가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교조 간부 한 명이 옆자리에 앉더니 “너 이쁘다, 안 보이는데 가서 뽀뽀할까?”라고 묻

더라. (좌담 참여자 모두 경악)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늙은이 싫어하는데요” 이러면서 대충 빠져 나오는데 손까지 잡아 당겼다. 엄마한테 나중에 이 사건은 이야기 했는데 엄마도 열 받아 하더라.

배경내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혜원과 공기는 이중적인 차별을 겪게 되는 것 같다. ‘청소년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가 ‘여성은 더더욱 안 된다’로 이어지고, 그 훈계에 가족주의 정서가 이용된다. 2008년 촛불 집회 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공기 그때도 보호주의, 나이주의 문제가 심각했다. 촛불 청소년 모임의 경우 촛불 어른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차비나 밥값 등을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보니 반말하거나 커피 심부름 시키는 일들이 많았다. 묘한 가족주의가 있어서 ‘아빠라고 불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도 많았다. 내가 왜 이런 걸 보고도 침묵해야 하나, 왜 우리는 어른 남성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나, 어른에게 보호/통제받는 것이 당연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왜 주눅 들어야 하나 등 내 안에 수많은 물음들이 고개를 들었다.

따이루 문제의식을 느낀 청소년들이 함께 항의 및 대응을 준비하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새나갔다. 씩씩하게도 같이 활동했던 다른 청소년 단체를 통해 새나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지원을 딱 끊더라. 자본가처럼. 앞으로 깃대 안 빌려준다, 밥 안 시준다, 농성 물품 돌려줘라. 엄청 짜질하게 굴었다. (웃음) 그 어른들과 친했던 청소년들이 너희 때문에 지원 못 받는다며 우리 대응을 막기 시작했다. 결국 그 싸움이 어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청소년들끼리의 싸움으로 끝났다.

공기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아빠 같은 사람들에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생각도 들면서 당시에는 많이 흔들렸다. 또 오랫동안 같이 농성했던 친구들과 싸우고 멀어진다는 것이 속상했다. 지금도 여전히 사이가 안 좋다.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배경내 보호의 이면에는 무시와 차별이 있다.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와 차별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다. 보호로 둔갑한 폭력을 활동 안에서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늘 긴장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의제기해야 하는 순간도 많다보니 주변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은 왜 이리 까칠하냐’는 평을 많이 듣게 된다.

공기 내가 이수나로도 아닌데 (웃음) 청년 단체 사람 한 명이 내게 와서 이수나로 활동가들 까칠하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말로 말거는 것이 먼저 문제 아니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제 삼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때로는 “청소년 활동가들 다른 운동 판에서 인정투쟁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내가 청소년 노동 관련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반응을 꽤 접했다.

따이루 애들이 떼쓴다는 식의 반응이랄까? 아마 대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단체 사람 만나면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운동은 여러 운동과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 속에서 자기 투쟁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여성 활동가들이 성차별 발언을 지적할 때 예전보다는 훨씬 정당한 분위기로 인정받는

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가들이 반말, 호칭 문제를 지적하면 여성운동 초창기 때처럼 너무 까칠하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기득권층이 갖지 못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스킬이 늘어서 웃으면서 욕하기도 한다. (웃음)

한민성 예전에 마리에 정동영 씨가 왔었는데 청소년들을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 “너 몇 살이니? 몇 학년이 나?” 몇몇이 문제제기했더니 그 다음에 방문할 때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더라. (웃음)

배경내 매 순간 항의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짜증나고,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왜 문제제기를 하나?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싸가지 없다는 비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청소년운동의 상황과 연관될 것 같다.

따이루 예를 들어, 우리는 물건 하나 가진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은 공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특히 지역은 눈치보고 빌려야 한다.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가끔 줄타기를 하게 된다.

‘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나다: 삶을 던지는 직접행동

배경내 청소년 활동은 다른 운동들과 달리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투쟁 방식을 많이 택한다. 가출도 직접행동일 수 있고, 탈학교 후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도 많고, 입시 문제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대학 입시를 거부한다. 탈(脫), 거부라는 방식이 왜 많이 쓰일까? 두리반이나 마리 투쟁의 경우도 집을 나와 농성장에서 생활하면서 연대한 것이었다. 자신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따이루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시민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나 ‘품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리들의 고민을 사회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직접행동으로 부딪혀서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행동이 그렇듯 100퍼센트 자발성은 없다.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한민성 간단하다. 돈이 없으니까. 품위 있게 이야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초대장 인쇄하고, 현수막 달고, 기자회견 하고 등등. 기획을 해서 세련되게 될 할 수가 없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러면 직접행동이다. 마리 같은 경우도 그 곳에 가면 잘 곳, 먹을 것이 있었다.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필요로 한다. 점거 농성장에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해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리반, 마리와 같은 철거 농장장에 청소년들이 많이 연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배경내 기존 사회 운동가들에게 이런 방식의 활동이 어떻게 비춰질까? 가출 청소년 합숙소 아니냐는 비아냥 거림도 들린다. 이런 시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대답이 있을까?

공기 집에 원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출을 하기도 하지만 투쟁을 하고 싶어 일시적인 가출을 하기도 한다. 두리반 투쟁할 때 잠입해있던 부모에게 딱 걸려서 잠깐 친구들도 있었다. 끌려갈 때 폭언, 폭력은 기본이다. 남성 청소년이나, 여성 청소년이나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진다. 투쟁 장소 안에서 가출은 친

권과의 부딪힘이다. 만약에 친권자들(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투쟁 현장에 결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투쟁 주체들이 청소년들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어렵다. 나서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도 부모들이 다 아는 친구 집보다는 농성장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투쟁이란 게 좀 경건한 느낌이 있다 보니 투쟁 장소에서 식량을 축내고 자는 것이 농성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죄책감도 들었다.

한민성 그래서 그런지 마리의 경우 가출 청소년들이 조직 내부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농성장을 축내는 것이 아닐까하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농성이 안전하지는 않다. 용역이 있는데? 마리에서 한 친구는 용역에게 맞아서 팔이 부러졌다. 가출한 상태였는데 집도 밀었다. 두리반과 마리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마리의 경우 언제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고, 청소년들의 숫자가 많았다.

배경내 마리에 많이 모였던 청소년들은 왜 마리에 있었나? 그 현장을 지키는 것이 가출 상태와 결합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민성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다. 농성장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가출한 친구들에게는 가장 안락한 공간이기도 했다. 마리는 물리력이 필요한데 청소년 활동가들의 경우 물리력이 되는 남성 청소년들도 있었다. 돌발 상황도 많았고.

혜원 기존의 운동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외부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들기 어려운데 철거 투쟁은 급작스럽게 모이고 촘촘히 짜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니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갖고 위치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공기 그래도 아쉬웠던 점은 있다. 청소년 활동가들, 가출하고 연대했던 청소년들과 명동 해방전선을 만들어 한 명씩 대책위 회의에 들어갔었다.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도 제시했었다. 그런데 막상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은 최종회의 때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협상된 금액을 공유해주지도 않았고 같이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허탈하고, 솔직히 이용당한 느낌도 들었다. 갑작스레 마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고, 농성 물품들을 챙겨 가져가야 했고,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했다.

따이루 꼭 철거 농성장이 아니어도 청소년 활동가들 가출 꽤 많이 한다. 나도 가출을 했었고,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것 반대 안하는데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가출이 있고,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가출도 있다. (웃음) 부모 대신 내가 챙겨줘야 되는 느낌이었을까? 알바를 편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 보장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가정에서 책임져 왔던 것들을 다른 개인 활동가들이 책임져야 할 때가 있다.

공기 주변에 굳이 청소년 활동가들 아니어도 최근에 만났던 청소년들 중에 가출한 사람들 보면 며칠 못가는 게 현실이다. 돈도 없을뿐더러 찜질방 가거나 친구 집 가는 것도 곧 바닥이 난다. 청소년 활동가들 주변에는 그나마 자취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꽤 있고,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약간의 토대가 있다. 물론 그

것이 언제까지 가지는 않고 쫓겨날 수도 있다. 기출/독립을 유지하려면 돈도 좀 벌고, 알바를 해야 하는데, 현실 감각 없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다. 근데 이걸 지적하고 말해주는 게 어렵다.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잘 살더라.(웃음)

따이루 가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웃음) 근데 기출에 관한 건 정말 복잡한 이야기다. 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활동에 대해 격려했었다. 밖에 돌아다니며 사회 경험 하라고. 그러다 활동을 점점 더 많이 하자 통금시간이 생겼다. 9시 뉴스 보기 전까지 들어오기. 몇 번 어기자 용돈이 2만 원정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겼다. 결국 활동 자체를 막으려 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자기 신념과 활동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많긴 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리데의 집에서 전화가 왔다.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날은 마침 아리데의 기말고사가 끝난 날이었다. 친구들과 하루만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타협이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여했을 것이라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좌담을 잠시 중단하고 아리데의 통화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다렸다. 이것도 약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귀가 시간 협상을 마친 아리데가 다시 돌아왔고, 좌담을 이어갔다.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나: 청소년 활동의 지속 가능성

배경내 청소년 활동가들 보면 유랑하는, 유동하는, 정착 없는, 뿌리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유지나 앞으로의 운동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민성 “뭘 먹고 살 건데?”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만둘까 생각중이다. 그만두면 재수를 할 생각이다. 이번에 대학 정시에 붙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 일도 안하고 청소년운동을 유지할 수 없다. 당 청소년 위원회 활동도 내 돈 박고 한 거니까. 청소년운동 판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 후원을 받긴 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나 그렇고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운동만 하는 것은 무리다. 학교나 회사에 소속되는 게 필요해서 직장도 알아봤는데 취직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두 가지다.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업 훈련 과정으로 기술 배워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곳에 취직하거나. 그런데 이것도 경쟁률이 세서 쉽지 않다. 게다가 나는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서 복잡하다.

따이루 대학 입시 거부 활동을 할 때 대안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대학을 가고, 활동을 안 해도 답이 없는 현실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질문이다. “요즘 청소년 활동하면 대학도 가고 좋다면서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다. 질문의 초점을 어떻게 현실을 바꿀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둔다.

배경내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회인으로서의 미래는 끊임없이 유예시킬 수 있긴 하다. 그래서 거짓된 희망인 줄 알면서도 유예를 지속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의 불안에 뛰어들어든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든다.

공기 대기업은커녕 정규직 직장을 갖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좋은 직장에 가려면 더 좋은 대학에 가야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 재수학원에 몇 천씩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 수준의 전문성 있는 교육은 주변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 현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학 졸업 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현실 자체가 급박하다.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 대학에 가면 좀 더 편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마저도 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타이루 대학을 거부한다는 건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는 거 맞다. 미래에 불안을 유보시키지 않고, 지금 만나는 거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무모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을 마주보는 것 자체가 대안의 시작이다. 마주보고, 현실에 맞서서 해결해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활동의 최종 목표다.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한민성 당 활동 시작할 때 운동관은 그래도 학력 차별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당에 있는 어른들 대학입시 거부 내켜하지 않는다. 일단 대학에는 들어가라고 말한다. 솔직히 진보적인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고학력자다. 70-80년대에도 대학 거부 운동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분들 지금은 다 가난하게 살고, 활동 그만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사회의 편견이나 제도가 바뀌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타이루 그건 대학거부 운동은 아니었다고 들었다. 고등학교 운동 세대들의 개인적 결단이었다고 들었다.

배경내 대학이나 학력 차별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노동현장으로 바로 가겠다, 현장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고민의 맥락에서 선택한 길이었다고 알고 있다.

한민성 어쨌든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 소위 명망가로는 대부분 대학 나온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나는 대학입시거부 운동에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지지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개 같다. 너무 무섭다. 내 안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이월하고, 유예하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 운동관 안에서도 분명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존재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대학 거부를 차마 선택하지 못하겠다. 그 엄청난 돈을 퍼붓지 않고도 원하는 공부를 대학 밖에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배경내 중학교를 그만둘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한민성 지금처럼 비판적이지는 않았다. 왜 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배경내 인권운동관은 학력 차별을 뛰어 넘어보려는 틈새가 열리고 있기는 하다. (웃음)

다이루 없으면 찢어서라도 만들어야지. (웃음) 투명 가방끈 모임 만들 때 처음에 후보로 등장한 이름이 ‘학벌 파괴자’였다. 지금 사회의 견고한 틀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고, 학벌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맞서 싸우는 건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배경내 여기서 대학에 가게 된 혜원의 생각이 궁금하다.

혜원 대학 이야기만 나오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입시 문제, 경쟁 문제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공유했는데, 결국 내 동료들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나는 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가는 대학이 그 서열의 정점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스스로 가졌던 마음이나 신념에도 상처가 남았다. 대학을 가고 싶어서라기보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했고, 집과의 사정상 갈 수밖에 없었고 한창 고민할 때 투명가방끈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질 못하더라. 한 번은 친구랑 술을 먹는데 나에게 “너를 보면 내가 불안해진다.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너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더라.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했다. 내가 활동 경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특수한 케이스여서 대학 안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부류다. 신입생 환영회를 가봤는데 부모들이 다 빠방하다.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 그 학교 출신도 많고 민사고 출신이나 좋은 사립학교 학생이 대다수였고 그 안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서러웠다. 내 개인의 잘못은 아닌데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고 대학 입학일이 사형 선고일 같다.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깝다. 대학가서 시험보고, 과제 처리하고, 토플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의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요즘엔 1년만 더 10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하고 싶은 활동이 많다.

배경내 “학생인권까지는 동의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는 건 문제가 있다. 이수나로 애들은 다 자퇴했더라.” 하시며 활동을 반대하는 부모들도 많다. 이수나로에서 대학입시거부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는 고1 아리데 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리데 학교를 다니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중간에 끼어있는 느낌이다. 주위에서 대학 못가면 안 된다,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있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한다. 내가 지금 260명 중에 70-80등을 한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13등으로 들어갔다. (웃음) 점점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떨어질수록 이수나로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웃음) 나 혼자 답답하다. 주위에서는 너 왜 그러냐고 걱정한다. 미래의 불안이 현재의 불안으로 넘어오는 느낌이다. 내가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퇴도 생각해봤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자퇴를 하고 활동을 하면 정말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였다. 가출했을 때도 아는 단체 사무실 몇 군데를 전전했다. 그것도 민폐를 끼치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학에 가지 않고 활동가로 남았을 때 계속 이런 상황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이 불안감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한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의미 없고,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친구들을 봐야 하는 것이 너무 싫지만.

파이루 나도 활동 시작할 때 똑같은 고민을 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활동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웃음)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욕망도 있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사는 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활동하면서 깨달았다. 풍요롭게 사는 건 어렵겠지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풍요를 버리고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걸 택하고 싶다.

공기 1년 정도 죽도록 알바 뛰면 보증금 1000만 원 모은다. 지금도 알바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솔직히 나는 대학을 안가기보다 못가는 것에 가깝다. 못가기 전에 안가겠다고 거부한 거다. (웃음) 주변에 대학 생들이나 대학 가는 친구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속으로 짜증이 난다. 내 열등감 같기도 하다. 맞아, 내가 못나서,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주변에 대학에 다니는 운동권들에게 최근에 한탄을 했다. 같이 살 고민을 왜 하지 않는 거냐고 물론 그 친구들도 먹고 살 것 걱정하긴 하지만, 나 같은 대학 거부생 앞에 두고 명문대 애들이 어려운 이야기 쏟고 있으면 화가 난다. 나도 주거만 안정된다면 파이루처럼 다른 풍요는 놓을 수 있다고 본다.

파이루 그래서 ‘활기’)를 하는 건데. 활기 모임을 다시 활성화 시키려 한다.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스무 살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배경내 좌담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19살이다. 이제 곧 스무 살이 된다. 좌담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스무 살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셨으면 한다.

아리데 나는 지금하고 있는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만약 대학을 가더라도 계속 될 것 같다. 미래를 이유로 활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다 포기하게 될 것 같다. 나중에 직업을 택할 때에도 선택의 기준이 월급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될까 걱정된다.

한민성 운동 포기선안? (웃음) 청소년 활동가가 다 그렇겠지만, 스무 살이 오면 특히 남성들은 군대 문제로 걸리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 ‘이 운동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운동으로 넘어갈 것이냐’도 고민이다. 청소년운동은 스무 살이 넘어도 그 일을 계속 할 여건이 잘 안 된다. 진보신당에도 93년생이 되게 많은데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조직에서 계속 잡아당기고, 방향 제시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또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운동에 대한 자각이 적어서 걱정이다. 구조의 피해자이면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위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지속가능한 운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

5) 2010년에 꾸려진 청소년 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프로젝트 모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기금 조성 팀, 지속적인 공부를 위한 교육 체계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 점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 살길 모색하며 이기적으로 살려고 한다.(웃음)

파이루 청소년운동이 꼭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19살이 든 스무 살이든 스물네 살이든 같이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운동이 학교 다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나는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어도 더 많이 청소년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스스로의 이유를 찾을 것이다.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위치겠지만, 내년에 열심히 활기 모임을 할 것이다. 운동적 관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고 싶다.

혜원 나도 내년에도 활동 열심히 할 거다. 청소년운동이 제기하는 의제가 청소년 개인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계속 할 것이다. 대학 운동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공기 힘든 일은 올해 다 헤쳐 나갔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망하겠지만, 잘 망하기 위해서 (웃음)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청소년위원회 안에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신들도 대학입시 거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운동이 꾸준히 간다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막막하지는 않다.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해 왔다. 어떻게 나를 책임져야 하나 했을 때 어느새 보증금을 모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럼 그리는 일 계속하고 싶어서 일러스트레이션 배울 생각도 있고 운동권 웹디자인 대행 회사를 차리자는 이야기도 했었다.(웃음) 다른 활동가들도 투잡 많은데 계속 활동할 거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좌담을 정리하며

나 역시 현재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이십대 중반을 훌쩍 넘겨 이 운동을 처음 만났을 때의 문화충격을 여전히 잊을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호협의를 아래 존댓말이나 반말을 쓰고 ‘오빠, 언니, 선배, 선생님’ 등의 호칭을 쓰지 않고 서로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린다. 한동안 어색했던 이 수평적인 문화에 익숙해지고 나니 그렇지 않은 집단과 함께 있을 때 숨이 턱턱 막힌다. 나조차 이리할진데, 대부분의 일상을 나이에 따른 위계로 조직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삶은 얼마나 텅텅할까. 그래서 나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권위주의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른다.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갯도를 지나다 노래를 멈추면 그 이상은 사람이 더 발걸음 할 수 없는 곳이라 광부들이 여겼던 것처럼. 청소년 활동가들의 생기발랄한 활력이 떨어지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필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탁한 권위주의의 공기가 그 안을 꼭 메우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이 친구들의 문제제기가 때로 유려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들의 ‘다잉 메시지’를 잘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평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나는 생각한다.

15살에 처음 만난 파이루가, 16살에 처음 만난 공기가 이제 스무 살이 된단다. 내 코가 석자인 관계로 가끔

밥값이나 술값을 더 지불했을 뿐 이들의 생활에 내가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쭈뼛거리며 1000원, 2000원을 빌리는 청소년 활동가들도 많다. 나는 이들의 팍팍한 생활을 볼 때 동정이 아닌 책임감을 느낀다. 자유롭지 않은 누군가와 비교우위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지그문트 바우만은 말했다. 대학을 나온 성인 활동가인 내가 누리고 있는 상대적인 자유가 청소년 활동가들의 부자유에 빚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한다.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다. 올해만 해도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통해 18명의 청소년들이 학벌 없는 삶을 택했다. 미래의 불안을 현재로 앞당긴, 현재의 불안을 미래로 유예하지 않은 이 친구들의 용기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인정을 고민하는 것까지. 길고, 넓게, 끈질기게 품고 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 좌담 기록을 연결고리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고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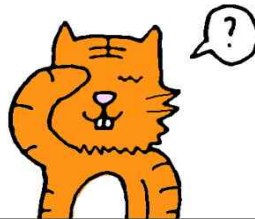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프로젝트 <활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간담회 웹자보, 2012. 03. 29.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읽고, 지형을 살펴, 현재를 묻는 <물음표 간담회>

일시: 2012년 3월 29일 (목) 늦은 6시 30분 / 장소: 민주노동 교육원 (서대문역 경향신문사역)
주최: 청소년 활동기반 마련 프로젝트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올해 2012년,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호랑이가 죽어 가족을 남기듯, 네트워크는 죽으며 물음표를 남겨보려 합니다. 점점 깊고, 넓어져 가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영역 속에서 서로 궁금했던 점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투덜대며 또 힘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번창할 청소년 활동을 꿈꾸며 즐겁게 죽어가는(?) 네트워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야기 나누고픈 여러분을 모십니다!



1부. 네트워크의 다임메시지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교육운동과 인권운동 사이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수수

"청소년, 사회권을 주장하다"

청담 청소년위원회: 경기

"여성주의와 반차별 운동을 중심으로"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주리

"학력/학벌 차별을 넘어"

고졸이러네트워크 공동어: 호아

"청소년의 활동기반 마련을 고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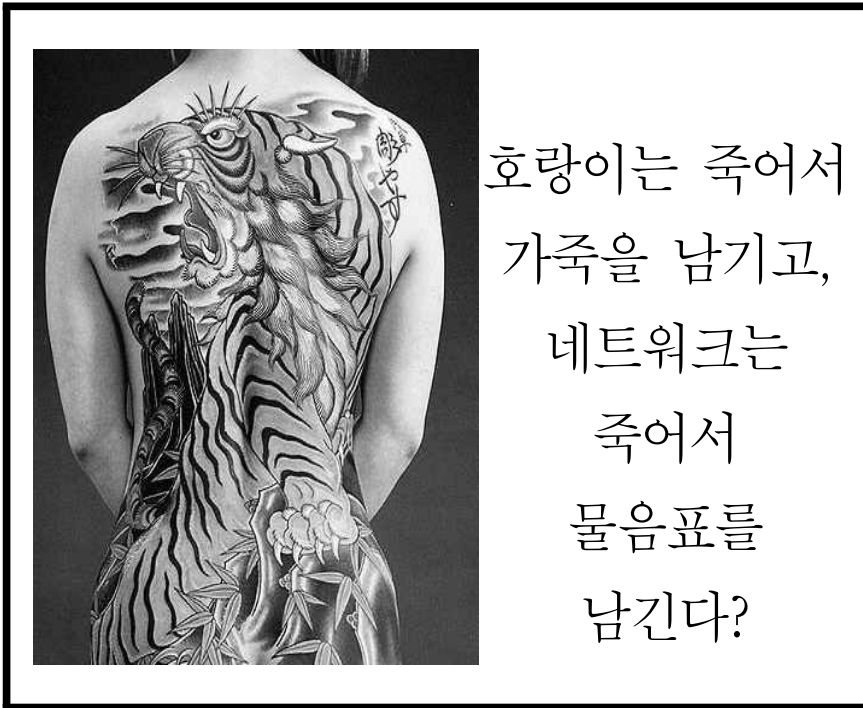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 몸코

cafe.daum.net / Life2010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프로젝트 <활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간담회 자료집, 2012. 03. 29.

2012 <활기>의 첫 번째 워크숍

청소년 운동의 흐름을 읽고, 지형을 살펴, 현재를 묻는 <물음표> 간담회



- 언제 :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6:30- 오후 10:00
- 어디서 : 민주노총 교육원
- 여는 단체 :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

◆ 1부 네트워크의 다잉 메시지 ◆

<유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6. 03. 19 ~ 2012.03.2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탄생과 성장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유언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 3월 19일에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워크샵의 성과로 청소년인권운동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였어요.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등의 단체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꾸려나갔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동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단체도, 활동가도 부족했지요. 그러다 보니 한 길을 떴었다 다시 돌아오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한 해 살이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반성에서 제가 탄생했고,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진영'을 열게 되었어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란만장 전국행진(2006), 청소년인권-인문학 캠프 인권서리(2007), 학생인권법제정운동(2006~2007), 스쿨어택, 각종 학생인권 관련 집회&캠페인, 청소년인권캠프,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등등이 그 당시 저와 제 친구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만들어졌지요. 태어나자마자 1년간 으쌰으쌰 힘차게, 참바지런히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활동이 저의 알찬 양분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저항의 곁에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펴냈습니다.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가 무려 665페이지 정도였으니, 2006년 그 해, 활동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나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저는 무럭무럭 성장했고, 어느덧 2008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참 뜻 깊은 해였지요. 우선 저랑 자주 부대끼던 몇몇 친구들이 저를 떠나가기도 했고,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2008년은 2005-6년에 '두발자유', '내신등급제 폐지' 등을 외치며 청소년들이 거리

로 뛰쳐나왔던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저항의 불씨를 지피면서 ‘촛불집회’를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친교육, 미친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요. 그 당시 ‘전국청소년학생연합(전청련)’, ‘10대연합’ 등의 이른 바 ‘촛불청소년단체’들이 잠깐 등장했고 입시경쟁과 교육 문제를 고민하며 “일제고사 say NO”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5.17 청소년 집회를 계기로 청소년직접행동에 불을 붙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청소년직접행동(칭직행)’이란 새로운 네트워크가 2008년에 형성됩니다. 칭직행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월, 마침 서울시교육감 선거시기와 맞물려 “기호0번청소년 후보” 운동을 펼쳤지요. 이 때 참, 거리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칭직행은 기호0번청소년 운동 이후에도 촛불집회 곳곳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고 외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알록달록 기동찬 피켓을 만들기도, 거리에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청소년활동가들의 내부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이 청소년직접행동으로 시끌시끌했던 시기였다면, 2009년과 2010년은 비교적 조용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학생인권이나 교육 의제가 아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청소년인권 의제들을 새로운 친구들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닿지 않아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죠. 드디어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반기웠는지.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구와 담론 성장이 활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까? ‘청소년 보호주의’, 여성청소년의 목소리 좀 높여보자! ‘결페미니즘-10대 여성주의’, 청소년도 노동자야! ‘청소년노동인권 알리바바 운동’ 등이 기운차게 판을 벌여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시간 동안의 회의, 공부모임, 세미나. 더 나아가 청소년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까지도! 여러 청소년 운동의 의제와 다양한 청소년활동가들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청소년인권선언’도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여러 운동진영에서 발표한 ‘2008인권선언’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참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2011년 이후,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자

2010년 말부터 2011년 들어 저는 조금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던 저와 제 친구들은 다시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모임 ‘활기’가 바로 그 모임이지요! 이 시기에 청소년운동 영역을 보다 넓히고, 활동 기반 다지기를 위해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 푹푹푹 이루어집니다. 눈부신 활동을 거듭했던 초창기에 비해서는 그리 눈에 띄지도 않고 조금은 느릿했지만, 청소년운동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또렷또렷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듯, 저 네트워크 또한 죽으며 무언가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운동에 대한 의지로 꼭 찬 청소년활동 모임들과 청소년활동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 합니다. 짧게 남기려 했지만 6년의 세월을 종이 몇 장에 정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고, 이제 저의 마지막 물음표를 받아 안고 제대로 품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향해 걸어나는 밑거름으로, 오늘 이 시간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

● 교육운동과 인권운동 사이에서

수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네트워크의 질문]

1-1) 청소년인권이 학생인권과 같은 말이 될 수는 없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 안에서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아수나로 역시 학생인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수나로 활동가들 중 상당수가 탈학교 상태기도 하구요 이러한 아수나로에게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에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 학생인권조례(특히 서울지부)에 많은 역량을 쏟기도 했는데요 듣보잡 학생인권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중요한 정세가 되는 것은 의미 있으나 학생인권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내부 이견이나 고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1-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비청소년을 만나 설득하고,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보통의’ 사람들과 운동의 내용을 널리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발의의 조건상 투표권) 그간의 ‘싸가지 없음’을 내려놓고 어른(혹은 폰대)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다른 운동 방식의 경험이 아수나로 활동가들에게는 무엇을 남겼나요?

☞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지금까지도 잡음이 많고 깨끗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에 치여서 산 정말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때문에 아수나로 서울지부 내부 운영이 안 되거나, 다른 사업들이 줄줄이 파토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 휩쓸린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지요 경남과 경기도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운동에 해당 아수나로 지부들이 열심히 결합했지요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행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각 지부들에서도 더 나은 형태의 학생인권조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수나로 안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다른 청소년 인권 문제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학생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인권 사실이에요 학생인권조례는 그 대다수 청소년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혹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무언가이구요 사회의 소수자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들의 인권이 법의 틀 안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생각해요 학생인권조례가 하나의 큰 키워드로 뜨면서 청소년인권,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사가 생기기도 했구요 그래서 이수나로에서는 다른 청소년 의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문제도 같이 해야한다는, 뭐 좀 욕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나로 서울지부가 정말 미친듯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결합했던 건 주민발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던 것이 큼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발의 서명은 청소년이 할 수 없어요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 관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홍보의 대상에서조차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청소년에게 알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명 숫자가 뜨악하리만큼 부족한 상황이 왔었죠 bb 서울 시민 1퍼센트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청소년운동에 있어 큰 상처가 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청소년들에게 서명을 구걸하는 몇 달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이수나로 활동가들(과 다른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상처와 상처와 상처를 남긴..

그 상처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셨듯 그간의 ‘싸가지 없음’을 내려놓고 어른(혹은 끈대)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청소년인권에 어쩌면 전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을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설명하고, 길바닥에서 토론하고 논쟁해야만 그 서울 시민들의 주민발의 청구서명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 많은 활동가들이 서명의 숫자에 치여서 정작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거나 설득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연대 단위로 들어가 있던 다른 운동단체들에 대한 불신도 커졌어요 청소년인권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같이 서명을 다니면서 겪게 되는 그들의 끈대성에 입는 상처 등.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청소년인권감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이수나로 활동가들에게 상처와 상처와 상처를 남겼죠 물론 이걸 바탕으로 운동사회나이주의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 설명인 것 같지만, 학생인권조례 운동에 치중하면서 이수나로가 본연의 청소년 인권 의제를 많이 놓치는 것이 아닌가는 단체 내부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수나로 차원에서 학생 인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인권 영역을 개척하고 넓혀나가야 한다는 합의는 되어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거

의 마무리된 지금, 이수나로는 청소년 전체의 정치적 권리와 나이주의에 대한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네트워크의 질문]

2) 이수나로는 전국 지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으신지요? 지역마다 운동의 자원(사람, 공간 등)도 다를 테고, 이슈도 다를 텐데 그 차이들을 어떻게 모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소통에서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부가 많다 보니 이수나로 전체 이름으로 하게 되는 운동이라던가,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전 지부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단체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뎠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지부의 의견은 누락되기도 합니다. 소통에 관련된 문제의식과 고민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부 간 권력 문제도 존재합니다. 회원이 더 많은 지부나 활동을 더 오래, 혹은 많이 한 지부가 더 발언권을 많이 가지고 전체 사업을 꾸려나기는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수나로 전체 총회 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 나누기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여하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구성원이나 관심사가 다르기에 운동하는 의제가 다른 건 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수나로는 기본적으로 각 지부에서 알아서... 개별의 활동 방식이나 사업을 택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권 아카데미를 진행하거나 어떤 지부에서는 꾸준히 학교 안 조직화 사업이나 스쿨어택을 하죠. 그런데 전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구성원 다름과 운동의 자원의 차이가 미묘한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할 역량이 없는 지부도 존재하고, 전체 사업을 하다 지부만의 사업을 앞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온라인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일 년에 두 번 씩 총회를 해요. 지부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격차나 감수성의 농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동 공부모임을 꾸리기도 하구요. 활동역량이 아직 부족한 신생지부들을 위한 지부지원담당도 두고 있습니다. 요샌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해서 광주와 대구와 서울 등의 활동기들이 시시콜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있어서! 왕. 눈의 위력.

● 청소년, 사회권을 주장하다

공기 (정당 청소년위원회)

[네트워크의 질문]

1) 정당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의제 뿐 아니라 마리 투쟁이나 재능농성장 결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는 곧 ‘청소년인권’ 활동가였던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느 관에서도 청소년 활동가를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정체성이 궁금해요~ 정당 안에 있는 청소년(나이 기준)들이 모여 있기에 청소년 위원회인 것이지, 아니면 청소년이 겪는 차별의 상황을 알리고 청소년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인 위원회인 것이지요

2) 청소년인권운동의 오랜 상징적 구호는 ‘두발 자유’, ‘체벌금지’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인권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의 사회권 관련 의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주거/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예입니다. 청소년에게 노동권/주거권/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청소년이 있어야 할 곳은 ‘부모의 집 또는 학교’라는 지금의 도식을 훌쩍 뛰어넘는 도발적인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인권운동에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줄까요? 이 상상력이 뒷받침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을 더욱 던져봐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청소년활동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이건 사실 그동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기회나 조언 등을 얻기 꽤 어려웠고, 물음표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다 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사로잡혀있을 때 그래도 청소년운동판(?)이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과 고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꺼 같다.

‘진보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

각자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은 다 다를 수 있다. 최근에 창당한 ‘녹색당’부터 이전에 내가 활동을 했던 ‘사회당’ 그리고 이번3월에 사회당과 합당한 ‘진보신당’ 그 이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이 깨지고 ‘국민참여당’과 함께 가고있는 ‘통합진보당’까지 아니 어찌면 ‘민주통합당’까지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할수도

있다.

한국사회안에 정당들은 너무나 많다. 그중에 흔히 구분하는 선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들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정당 안에 ‘청소년위원회’는 아마 진보정당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들이다. 나는 ‘전 사회당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에서 활동했었다. 이름이 참 길어졌는데 이번 진보신당과 합당절차에서 공식적으로 해소를 했다. 그러고선 다시꾸린 모임은 ‘다시모임’이라는 모임이다. 말 그대로 통합 후에 앞으로 뭘 할 것 인가 서로 얘기를 해본 후 만들어진 게 ‘다시모임’이다. 이것이 현재 나의상황이고 우선 그전에 본론에 들어가 질문부터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진보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정체성’을 떠올려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난다.

청소년위원회의 정체성?

참으로 어떻게 얘기해야하나 고민하게 되는 말이다 딱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라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처음 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당시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활동은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때 ‘두리반’이라는 곳을 거쳐 ‘명동마리’라는 투쟁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본 친구들과 ‘왜 그냥 모임 형태가 아닌 정당 안에서 만들려고 한 걸까?’ 라는 고민으로 초반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 같다.

첫 번째로 그냥 모임형태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에만 가도 개인당 오천 원 이상이 든다. 허나 우리는 ‘차비’도 빼듯한데 장소를 위해 커피 마실 돈 까지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었고 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면 정식 부문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었다. 물론 사회당청소년준비모임을 하면서 대부분의 회의와 교육과 세미나는 당시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각자하고 싶은 활동의 기반들이 그나마 갖춰져 있는 곳이었다. 눈을 씻고 둘러봐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혹은 알고 싶은 것을 쉽게 알아내기란 너무나 어렵다. 돈도 없고 장소도 겨우 구한 우리는 당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었다. 당 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반성폭력교육이나 소년운동의 역사 등등 교육이 필요할 때 손 벌릴 수 있는 기반이 이곳에 있었다.

세 번째로 ‘진보정당’에서 연대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가령 2011년 여가부 앞 농성장이나 명동마리, 재능교육, 한일병원, 희망광장, 시청 오쿠파이 등등 셀 수 없는 투쟁사업장 등이 있다. 이곳에 연대한다는 건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딱히 ~~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운부분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사업장에 연대하게 되는 건 결국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의 부조리함 그리고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좀더 말하자면 내가 청소년활동가로써 연대한다기보다는 갔을 때 드는 생각이 이 싸움이 이 투쟁이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며 그들만의 문제라고 제쳐 두는 게 아닌 것 연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른 투쟁현장에 연대하러갔던 첫 이유이자 첫 시작이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제뿐만 아니라 이런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게 되는 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단순히 연대하고자하는 순수한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까. 청소년의제 외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밑에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 중요하기에 각자가 선택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질문 속에 어느 투쟁현장에 가나 청소년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엔 정말로 좀 연대의 방법 활동의 방법이 다양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투쟁사업장에서 함께 싸우고 연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혹은 애들이다 취급받는 건 이 운동사회내부에서 또 다시 문제제기하며 싸워나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기본소득 청‘소’년 운동?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에서 가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한다. 간단하게 기본소득이란 국민이라면 어떠한 재산심사나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매달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과 청소년활동의 연관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달라고 주장하는 건 어느 정도 자신도 ‘자기 삶의 주체’라는 선언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요구라고도 본다. 이런 ‘사회권’이라는 분류 안에 청소년활동으로써 기본소득운동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구호에 ‘모두’는 당연히 청소년도 해당이 되며 청년과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대해서 사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운동’의 차원으로써 기본소득운동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이 입법화 제도화된다면 좀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그렇기에 기존보다 더 다양한 요구들과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청소년 활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더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들을 가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기본소득운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스스로가 이사회에 요구할 권리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운동으로 만드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끝으로

최근에 학벌 없는 사회의 짧은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 강의내용은 한해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결국은 떠나기는 청소년들의 이유들은 다 달라도 지금의 ‘제도교육’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떠밀려지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양한 노동 시장 안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형태는 다양해지고 노동조건 개선은 아직도 먼 이야기 같다. 여기서 나는 ‘청소년인권’이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존의 청소년운동이 그래왔다는 건 딱히 아니지만 학교‘안’이야기들이 주류이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더 사회권(기본소득 같은), 노동권(노동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법 개정 요구안이나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청소년활동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청소년의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 또한 노동하는 청소년들이나 탈가정을 한 청소년 그밖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청소년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 나아가서 다양한 운동들이 결국엔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고 또한 변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전선에 나는 청소년운동이 보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운동사회?’라고 얘기하는 이판도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❶ 여성주의와 반차별 운동을 중심으로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운동 속 성(性)과 관련한 고찰 및 실천의 필요성

-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화 및 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주리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네트워크의 질문]

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10대 여성주의 운동을 조금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대 혹은 10대 여성들과 성/섹슈얼리티 담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섹슈얼리티, 라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지요. 청소년 인권의 다양한 영역 중 활동 키워드로 ‘섹슈얼리티’를 잡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2) 청소년 성소수자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운동 안에서 호모 포비아(동성애 혐오)와 싸우는 것, 성소수자운동 안에서 나이주의와 싸우는 것, 둘 모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차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면서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활동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꾸리면서 그 조직에 연대 및 일부 소속(소속)에 대한 합의가 당시 애매하게 된 상태였음)되는 ‘청소년 성소수자 조례 대응팀’(이하 청성조)이 꾸려졌다. 그 전부터 몇몇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운동 내부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가 ‘청소년 그룹 속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으로만 이해되어 그들의 ‘청소년’ 정체성 혹은 계층에 대한 고찰은 그다지 심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시작해보고자 막연하게나마 계획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운동을 공동행동과 함께하면서, 이번 싸움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조직화를 시도, 실천했었던 것이 청성조의 초기 역할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 발언대회(원티드)’를 진행하고 공동행동과 함께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사례 모음집’ 발간을 위해 차별 사례를 모으는 데 동참했던 이후부터는 공동행동이나 청성조 내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할 역할을 찾지 못했고, 이는 이때부터 팀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사무국 중심으로 공동행동이 운동하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처음 청성조를 만들었던 활동가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다.

공동행동의 팀별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공동행동 소속으로써의 청성조의 성격과 역할은 약해졌고, 보다 장기적인 청소년의 성적 권리 및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기획, 실천하고자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청소년에게 성(性)이라는 것은,

한국의 대다수 학교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있다. 가정 교과와 성교육 시간에는 끊임없이 이성교제가 ‘건전할 것’을 강조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불건전함은 때로 ‘섹스하지 않음’으로, 때로는 ‘까진 애’들의 연애로 정의된다. 영화 등급 중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정 교과와 성교육 시간에 제시하는 모범적인 스킨십 수위는 가벼운 포옹까지로, 역시 ‘성적 욕구를 느끼지/실천하지 않을 만큼’이 기준이 된다. 청소년은 성욕을 느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이 사회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연애하는 청소년, 임신/출산한 청소년, 성소수자이거나 그렇게 오해되는 청소년,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욕구, 성과 관련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관계에서 성을 향유하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이들의 성적 관계와 실천을 부모와 교사들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문하며, 폭력과 무리에서 배제시키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의 시간은 입시가 늘 제 1순위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공부 외의 다른 것은 부차적이거나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된다. 십대 때 연애하면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말은 ‘일단 입시에 매진해야 할 청소년이 연애를 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갈 테고, 행여나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이후 결혼의 수순을 헝클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는 청소년의 성을 대할 때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금지된 것에 대한 ‘성인(특히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특히 여성) 청소년을 타자화시킨’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교복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페티시의 상징이었고, 여고생이라는 타이틀을 단 아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십대 걸그룹들은 ‘오빠를 사랑해’라고 노래하지만 그 속에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은 없다. 섹시한 (또한 순결할 것만 같은) 청소년은 금지된 열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성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다. 실

제로 많은 성인들이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를 원하고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공공적인 비공식이다. 신문 기사에서 우리는 청소년과 성인의 성적 관계를 굉장히 문제적인 것으로, 청소년을 피해자화하며 그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쉽게 발랑 까졌다거나 ‘결레’라거나 문제아라거나 ‘막 사는 애’ 취급을 받는다. 아빠와 삼촌들은 다른 이들의 딸들을 욕망하지만, 자신의 딸은 ‘다른 이’들의 욕망으로부터 지켜주려는 다짐을 한다.

청소년이 성소수자로 정체화 할 때, 살아갈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청소년은 확연히 주변의 구체적인 억압의 족쇄가 몸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계층이며, 가정과 친권의 행사, 현 한국의 학교 체제 및 사회 전반의 청소년 억압과 함께 청소년 개인들의 삶을 제한하는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다. 한 청소년이 스스로가 타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성소수자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쉬쉬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을 무성적으로 개조하려 하는 학교(학원)와 가정 외의 다른 공간도 다른 인간관계도 접하기 어려운 조건을 뛰어넘는 과정이 여러 겹의 고비와 함께 진행된다.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이 성소수자로 정체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되었지만,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사용하는 것조차 입시의 압박과 가정의 감시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아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의 혐오와 폭력에 병든 채로 컴퓨터 화면에 뜨는 다른 이들의 위로의 말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이들도 많다. 수도권에 사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소수자인 사람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다고도 증언한다. 연애도 온라인으로밖에, 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너무나 많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청소년 계층에게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되어 나타난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을 함부로 하거나 폭력을 사회문화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억압 역시 성소수자인 청소년들에게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마치 비행이거나 부도덕한, 특히 청소년에게는 더욱 더 그런 요소처럼 받아들여져 감시와 교화, (폭력적)교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웃팅(outing: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으로 인한 부모형제자매의 언어적, 행위적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사용기록을 꼼꼼하게 지우고 휴대폰과 일기장 보안을 철저히 하는 등 하루하루 긴장하며 자신의 인간관계와 경험들을 숨겨온 이들도 있다. 성정체

성을 밝히거나 밝혀지고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슬프게도 매우 드물고, 청소년에게는 감시받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은 너무나 크다. 청소년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부모의 집’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자기만의 방도 자기만의 사적 기록물도 자기만의 시간도 없다. 있다 하더라도 위태롭게 보완이 유지되며 그 안에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들이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은 없다.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틀에 박힌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각종 제제를 가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홀로 무엇이 옳다거나 무엇이 그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세뇌 받아온 그것들을 어느새 너무도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생존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부모들이지만, 가장 다수인 운동자들은 학교와 학급 안의 다른 학생들이다. 누군가가 여/남성스럽지 않을 때나 동성에 대한 성적지향을 가진 것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오해되었을 때 학교 구조 전체와 똑같이 파시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실 안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소외와 폭력이 일어나며, 그 학교, 그 학급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고립되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 곧 교사가 이를 심문, 처벌, 배제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자연히 가정의 귀에도 들어가 청소년 당사자들은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도 못 하는 상황에 갇힌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될 즈음부터, 일부 보수 언론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 동성에 및 청소년들의 임신을 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 조항 중 차별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여부가 들어가 있고 기타 성소수자 학생 보호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데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의 공포와 혐오를 이용한 셈이었다. ‘초등학생 엄마와 중학생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나’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항문성교 배웠어요’ 등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구호는 청소년 인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가장 직접적이고 선정적으로 공격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문제이며, 청소년의 성억압이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청소년 억압의 중요한 기준치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성억압은 왜, 어떻게,

우리는 성년인 남녀가 혼인한 후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은 또다시 성년이 된 후에 이성과 혼인하여 가족을 꾸리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정의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청소년은 이성애적으로 무성(無性)적일 것을 강요받으며(연예인은 입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좋아하면 되지만 현실 삶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그녀의 성애적 실천은 성년이 된 후(혼인 후) 미뤄진다.(성인 이성애 기혼 남성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여성 혹은 성소수자의 입장에서의 비판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권리를 얼마나, 어떻게 억압하는 지에 관하여서는 담론과 운동 모두 부족한 것 같다) 청소년이 이성애

적으로 무성적이어야만 현재의 가족 체제는 유지가 가능하다.

사회는 청소년을 가정 안으로 복속시키고 돌봄 노동이 필요한 영유아 계층을 공공적으로 책임지는 대신 가족이라는 개별 단위들이 책임지게끔, 그래서 청소년과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도록 점점 구성되고 있다. 16세 이전에 혼인하던 시절로부터 ‘아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며 스무 살 이전의 사람들은 보호 및 교육되어야 할 존재들로 규정된 지도 이제 오래 되었지만, 불과 이십여 년 전, 학생회가 운동 집단인 경우가 많았던 고등학교(그들의 운동이 청소년 인권운동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이었는데는 평가가 필요하다)와 현재의 고등학교는 차이가 크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점점 가정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가정 안으로 포섭한 것은 성인 여성 전업주부의 ‘집안일’ 중 자녀 양육을 위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더욱 더 ‘집안일’에 매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입시 외의 다른 일을 청소년이 할 수 없도록 되면서 성인 남성 가장이 임금노동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기간이 늘어나 그들의 과잉노동이 줄어들지 않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이제 ‘교육’ 시장에서 ‘부모의 돈’을 소비하여 교육을 받아야지만 미래의 자본을 기약하며 ‘성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의 학습 노동은(체제 유지 및 재생산에 필수적인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로써 과도하게 강요되는 것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노동이 아닌 취급을 받는다.

한국의 민법은 청소년에 대한 친권 행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는 친권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되었으며, 탈가정하였을 때 청소년은 기본적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친권 조항 중 ‘거소지정권’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정 외의 유일한 공간인 쉼터에서는 입소 시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단적인 재산 행사권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은 집을 매매하거나 고시원 등 임시주거조차 얻지 못해 사실상 지낼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동과 관련하여선 만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확인받아야지만 노동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주거와 생존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상황에 탈가정 청소년들은 종종 처하곤 한다.

결국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성애와 모성애에 전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임할 수밖에 없고, 사생활과 자기만의 방의 부재는 성소수자인 것이 드러나 가정폭력을 겪고도 탈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혹은 입시를 위해 연애를 그만두려는 부모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청소년을 가둔다.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기에(어렵기에) 성적 주체가 되는 것도 그만큼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우리의 과제, 청소년의 가족구성권,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여기서 가족구성권은 기존의 혼인,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 이성애중심적이고 정상가족(엄마, 아빠, 딸, 아들)중심의 가족 담론을 넘어,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증가하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가시화시키고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목적성을 가진 언어이다. 현재의 가족 체제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에 봉사하고 있고,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권이 가정 안팎에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성애적 정상 가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지 등의 혜택에 대한 비판적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과 가족, 청소년의 가족구성권과 독립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구성권은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원한다면 독립하여도 생존과 인권이 보장되는 것까지 포괄한다고, 그리고 가족구성권의 보장 대상에는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성인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위주로 돌아가는 가족구성권의 담론에 아동, 청소년의 가족 구성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비판할 필요성도 있지만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은 청소년이 겪는 가정에서의 억압을 해소하고 특히 성적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을 이야기 해나가야 한다는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의 고민들, 과제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함께 만들어진 모임으로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들의 ‘청소년’이라는 계층에 주목하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비교적 부족한 성소수자 운동과 여러 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잘’ 부대끼길 방법을 찾고 있다. 공동행동 활동 이후로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의 부재를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지적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로서 존재를 드러내는 일을 반복해서 진행해 온 결과,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얼마 전 ‘동성애자 인권연대’와 함께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성 교육 중 ‘청소년-언제부터 어른이지?’ 파트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나가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 지는 고민에 남는다.

성소수자 운동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 강화 외에도, 청소년 운동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어떻게 운동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 또한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운동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나 청소년의 성적 권리문제는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청소년의 사회권, 정치적

권리, 학교에서의 인권 등 다른 단체 및 활동과 연대하고 함께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이 어떻게 더 잘 다른 청소년 운동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하고 교류할 수 있을지 또한 과제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모임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활동가 모집과 재생산이 필요한 점 또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의제와 운동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 학력/학벌 차별을 넘어

호야 (탈대학네트워크 고등어)

[네트워크의 질문]

1) 대학을 안 간다고 하거나, 대학(학력/학벌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당사자인 청소년들 스스로 이 이야기를 오히려 불편하게,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는 ‘대학에 못가는(등록금의 문제든, 성적의 문제든) 사람도 많은데, 니들은 뭐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보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학입시 거부,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력차별에 반대하는 것, 대학만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내는 데 있어서 이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대학을 거부하는 것, 가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의 더 활발한 운동이 되려면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마련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고등어에서 탈대학 공부방 활동도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할까요?

먼저 홍보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탈대학네트워크 고등어를 불러주신 청소년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장을 씁니다.

Q1.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면

대학을 안 간다고 하거나, 대학(학력/학벌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당사자인 청소년들 스스로 이 이야기를 오히려 불편하게,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는 ‘대학에 못가는(등록금의 문제든, 성적의 문제든) 사람도 많은데, 니들은 뭐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보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학입시 거부,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력차별에 반대하는 것, 대학만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내는 데 있어서 이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래 전부터 대학거부/학벌철폐운동이 계속되어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피부에 와닿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아마도 김예슬 선언과 투명가방끈이 그 시작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등어의 역할이자 목표는 그 질문, ‘그래서 어떻게 뭐 하고 살 건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살아가고자,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팔딱이며 생동하고자 합니다. (아까미만 헐떡이고 있는 고등어보다 온몸으로 팔딱거리는 고등어가 더 매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해님과 바람’에서 보여주듯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강풍이 아닌 뜨거운 햇살입니다. 투명가방끈이 그러했듯 고등어 역시 대학거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명가방끈이 ‘새로운 선택이 존재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고등어는 그 선택 이후의 삶에 주목, 본격적으로 대학 없는 삶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단체랄까요. 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등어가 당사자인 청소년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재능니눔 교실’(현재는 기타 재능니눔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책 읽고 토론하는 ‘공부모임’, 거주 공간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공간을 남들에게 열어놓고 그 공간들로 네트워크를 꾸려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주거권 프로젝트 ‘오픈하우스’. 다양한 탈대학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고등어 기자단’까지. 아직은 벼랑머리 같지만, 점점 더 다채롭게 변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2. 힘을 실는 방법

대학을 거부하는 것, 가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의 더 활발한 운동이 되려면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고등어에서 탈대학 공부방 활동도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할까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장 절실한 것은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의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 차별이 사라진다면 대학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업의 서열화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력을 위해 특정 직업에 몰리기보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한다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 의식적인 변화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비(非)대학생이 목소리를 낼 자리는 썩 많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것이 소수자에게는 정말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예로, 대학생 할인 제도나 각종 행사의 이름에 ‘대학생’을 넣어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 경우 비대학생은 투명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감과 존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생에서 청년으로의 대상 확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부분의 개선 역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네트워크는 그 망의 촘촘함이 중요합니다. 고등어의 부족함을 함께 메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하는 것은 고등어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담회 이후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누가 왔나 다 보고 있다가요.

마치며

아마 지금까지 풀어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지루하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또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의 활동기반 마련을 고민한다

덤코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

[네트워크의 질문]

1) 활기는 2010년에 꾸려졌고, 올해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활동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모임을 꾸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활동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활동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 여기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건가? 등등 의문 투성이~ 앞으로 활기는 청소년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인가요? 다른 청소년 모임/단체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 활기의 자기소개

<시작>

활기는 청소년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택한 청소년 활동가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자고 꾸려졌는데 제 몸 하나를 추스르지 못하고 참 여러 번 다시 ‘시작’한 모임입니다. 청소년활동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에 모였는데, 정작 뭘 어째야 할지도 모르고, 다들 바라보는 모양새가 달랐던지 몇 번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카오스>

청소년활동의 기반은 뭘까? 공간? 돈? 교육??? 참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상이 달라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활동은 뭐지? 라던가 나는 활동가인가? 라는 질문도 나오고... 결국 그런 질문들은 끝을 보지도 못했고, 아직도 활기의 상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해 보자고 벌려놓은 사업마저 지지부진해지고... 한 때는 활기 구성원들이 ‘활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침울해지는, 안구에 습기차는 시기도 있었답니다. 이게 활기의 ‘카오스’시

기입니다. 이제 슬슬 털고 일어나서 재정비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돈>

사실 우리가 목표가 확실하고 의견이 일치하면 활동기반을 척척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은 어디 돈 나올 구멍 없을까.. 하는 겁니다. 2010년 말에 ‘핫유스(hot youth)’라는 후원행사로 급한 대로 운영비 정도를 마련하고, 저공비행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하는데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는 등 어떻게 어떻게 간당간당 돈줄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적인 재정보화가 평생 목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역시 응원해 주세요.

● 활기

청소년운동을 하는 청소년 비청소년 할 것 없이 예전부터 계속 끌어안고 있는 고민은, 역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알바를 하느라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활동을 하는데 결국 비정규직 인생과 돈에 얽매어 버렸네... 하는 상황과 몇 번이나 조우하고, 좀 더 버티며 활동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오늘의 교통비도 없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가끔은 지금도 회의를 잡기 위해 다른 단체 사무실을 전전하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청소년활동이 뭐 하는 건지, 있기는 한 건지 운동사회 내에서도 그렇게 잘 몰랐구요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혼자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생활을 책임지는 건 할 수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 활동을 포기하는 슬픈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닐까?”하는 이야기나, “청소년 활동, 너무 열악해! 공간+인프라도 필요하고, 청소년 활동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해!” 하는 이야기로, 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비주류적 삶을 선택한 청소년활동가들이 활동에 치여 배우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모일 장소나 자원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활기는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단체의 활동이나 활동가개개인을 물질적으로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는 모임입니다.

활기가 만들어졌을 때 고민하던 것 중 하나는 그 추상적인 ‘활동기반’이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끼던 어려움을 나누고 고민한 결과, 저공비행이라는 활동가 교육지원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강좌 형태의 인문학 수업으로, 2011년에는 개별 세미나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요 하지만 끝까지 잘 챙기지 못해서 흐지부지 소멸상태에 이른 것이 반성, 또 반성할 부분입니다(후후). 참여하는 활동가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소액의 돈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지금 활기의 재정으로는 힘들다는 결론에 다다랐구요 덧붙여서 ‘누구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붙잡고 짚히게 이야기해 봐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2012년에 재정비를 꺾하고 꿈틀거리는 활기는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쓰던

공간의 운영을 맡는 것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여기저기 빛도 많던 이 공간을 활기에서 운영해 갈 수 있게 된 큰 도움은 2011년 청소년활동가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서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제 1회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상금을 그야말로 피땀으로 서명을 모은 청소년들의 기반조성을 위해 활기에 투척받았습니다!! 그래서 활기에서 이 공간의 비용을 많은 부분 부담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같이 쓰던 단체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는 교육사업입니다. 활기에서는 정해진 사람들이 쫓쫓하게 모이는 형태의 강좌는 활기의 역량에 아직 참 어렵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알게 모르게 공력을 높일 수 있는 월례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도 네트워크의 해소와 발맞춘 월례워크숍의 스타트@@(우와!)입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활동이나, 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활동에 유익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디자인, 기타, 노래, 춤(몸짓!), 실용 글쓰기, 외국어 등등의 실용강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활기는 참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만, 활기가 좀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서 활동기반이 열악한 청소년단체나 활동가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체 역량으로 준비하기 힘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활기의 소식지를 통해 청소년 활동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리는 일, 청소년활동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활동하면서도 먹고 살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등등.. 좀 더 바랄 수 있다면 탈가정을 택한 청소년활동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내다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활기가 모임 내부를 챙기느라 바빠서 도대체 뭘 하는지 잘 알리지도 못한 탓에, 이 분담금 먹는 괴물(;;;)이 뭐 하는 덴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던 모든 분들에게 좀더 든든한 곳이 될 때 까지 계속 지켜봐 달라는 괴롭치한 부탁과 함께... 우리 다시 부활했습니다!!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해산/전환에 부쳐」, 공현의 블로그 「창틀에 걸린 꿈들」, 2012.5.2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해산/전환에 부쳐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대해 “~부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는 저의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에서 반신(半身)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 제게 네트워크의 해산/전환이라는 단어는, 적는 것만으로 복잡한 상실감, 쓸쓸함, 설렘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2006년 3월 만들어졌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12년 3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어느 정도인적 통일성은 유지되지만, 2006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활동했던 문제의식과 방향성과는 다른 성격과 역할의 단체를 꾸리는 것이기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역사는 일단 한 번 매듭이 지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활동과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백서 만들기로 따로 이뤄지고 있으니, 제가 따로 쓸 필요성은 없겠조 옥중이라 백서 작업에 같이 못하는 게 원통할 지경입니다만.

청소년운동의 개척자이자 인큐베이터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청소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생적으로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요. 그러다가 2006년에 서울에 와서,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두 단체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단체 다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 중 네트워크는 이미 활동 경험이 있는 활동가·단체들의 연대체 형태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었고 빠르게 활동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익혔다면, 여러 가지 활동 방식들이나 실무, 청소년운동에 대한 지식 등은 많은 부분 네트워크 활동을 하며 익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저리는 활동가 개인뿐 아니라, 지금의 청소년운동 자체가 네트워크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 단체들, 사건들이 청소년운동을 만들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긴 하지만, 네트워크는 청소년운동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 지금의 청소년운동이 만들어지는 데 직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연대체로 시작해서 연대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직접행동을 지원했고, 전국을 돌며 거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했고, 간담회, 토론회,

인권교육과 캠프, 연구 작업 등으로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운동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재 학생인권 담론의 내용을 만들고, 학생인권 외의 보호주의 문제 등 청소년인권의 다양한 논리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청소년운동의 한 전선(front)을 만드는 개척자였으며 인큐베이터이기도 했습니다.

평가받을 만하다는 자부심으로

몇 년 전부터 네트워크는 새로운 활동가들을 만드는 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그 운영방식이나 특성상 새로운 청소년활동가들을 자기 조직으로 조직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홀했던 점도 있구요. 또한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등 청소년운동이 더욱 성장하면서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진 목표가 일부 달성되며 그 의미를 잃었고, 네트워크가 해오던 역할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이러한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뒤를 받쳐주는 역할의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로 인해 네트워크는 이번에 해산/전환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네트워크의 공식/해산을 밝히는 좌담회가 끝난 뒤 서울 서대문에서 수원 제 집까지 가는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으로) 18살에서 24살까지, 시쳇말로 저의 청춘(웃음)을 같이 보낸 단체가 없어진 것이니까요. 그저, 네트워크가 그 역사를 끝내더라도, 이후에 청소년운동의 역사 속에서 계속 네트워크의 흔적을 볼 수 있으리라는 데서 위안을 얻습니다. 수도권·서울 중심의 운동이었다거나 소수 활동가 위주의 단체였다는 등 네트워크의 한계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공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아마 모든 평가가 반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적어도 네트워크가 현재/미래의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진지하게 평가받을 만한 실제 있는 활동을 했다는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덧. 어쓰가 후원회원 연락 등 네트워크 해산/전환에 따른 일들을 모두 마무리했나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도 안 끝났다면 조속히 하라고 재촉합니다 ^^

2012.05.27

공현

3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연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연혁

날짜	사건 내용
2006.02.19.	<p>‘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이수나로 등 단체들의 제안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상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 진행. -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으로 활동가 상설 네트워크 결성이 제안되고, 3월 중으로 후속모임을 네트워크 결성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2006.03.19.	<p>청소년인권활동가워크숍 후속모임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식 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후속모임에서 △청소년 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자료/현안/활동/고민 등) 강화,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 등을 목표로 단체와 개인이 함께 모인 활동가 조직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인권운동사랑방의 제안으로 결성하기로 함. - 네트워크의 활동으로 현안 대응 및 공동 기획 사업,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캠프 등의 교육 사업, 청소년인권운동의 이론화를 위한 공동 연구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함. 2006년 기획사업의 경우, ‘학생인권법안’과 ‘두발자유’로 결정.
2006.04.24.	<p><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에서 학생 200여명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학생도 사람이다’ ‘두발자유’ ‘체벌반대’ 등이 적힌 A4용지 30여장을 들고 교내 집회를 진행했으나 교사들은 강제로 해산하고 집회의 주동자들을 징계 하려고 시도함. - 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징계 시도의 중단과 두발단속 및 집회 해산 과정에서 자행한 폭력에 대한 사과, 반인권적 교칙 즉각 개정 등을 요구.

날짜	사건 내용
2006.05.03.	<p>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의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에 공식 폐지한 학도호국단을 교육부가 2001년과 2005년에 학생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불법 편성·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남. 이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각하처리 됨. 국가인권위의 진정 각하와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함.
2006.05.03.	<p>기획 - 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연재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내에서 2006년 결성된 공동연구팀의 첫 번째 사업으로, 청소년 인권 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매체 인권오름에 연속기고를 시작. - 1차 기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자료> 최우주씨 민원 전문 (1995)」
2006.05.08.	<p><동성고는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응하라!>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고 학생 오병현, 비인간적인 체벌, 폭언, 두발규제, 그리고 그에 불응 시 이루어지는 제식훈련 등에 대해 항의하며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학교 앞 1인 시위를 진행. - 네트워크는 오병현 학생의 행동을 지지하며 학교 측이 징계 등의 탄압을 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2006.05.10	<p>“청소년의 인권 찾기 선언”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을 앞둔 청소년 ‘가면’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와 문화연대,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으로 구성된 5. 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겪었던 다양한 학생인권침해 사례 등을 고발하고, 14일 집회를 알림.

날짜	사건 내용
2006.05.14.	<p>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지금!’ 집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광화문 KT 앞에서 200여명의 청소년, 교사 및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집회를 진행. - 두발 자유, 차별 폐지,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 보장, 0교시 폐지 및 강제적 자율학습 중지 등의 <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선언문 발표.
2006.05.31.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차 기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1987)」,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2006.06.05.	<p>서울 금천구 독산고등학교에 “두발” 자전거 School Attack”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제보와 요청에 따라 두발규제가 생기고 강제이발 등이 자행된 독산고등학교를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자전거를 타고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함. 때에 맞춰 몇몇 독산고 학생은 두발자유 의 정당성을 담은 전단지를 뿌리기도 함.
2006.06.18.	<p>“두발자유원정대, 청소년인권 위한 자전거 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동성당에서 시작해서 동대문운동장을 거쳐 마로니에공원까지 두발자유, 학생인권법 통과·제정,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 및 캠페인을 진행.
2006.06.27.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차 기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학생탄압에 맞선 고등학생 단식농성 성명서(1989)」, 「<자료> 자살한 여중생이 시_편지 형태로 남긴 유서(1986)」,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2006.06.28.	<p>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면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5월 14일 거리집회 이후 학생인권정책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고자 면담 요청, 그 이후 한 달 만인 6월 28일 면담 성사. - 약 2시간 30분간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담당자의 미흡한 인권 의식과 현실 인식을 확인. 이튿날 학생인권종합 대책이 학생의 입장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으로써 문제의식과 의견을 개진.

날짜	사건 내용
2006.07.04.	<p><학교는 인권침해의 자유지대인가!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35개 단체 성명 발표 및 항의 기자회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고는 오병헌에 대한 ①두발단속 불이행 ②불법선전물 유포 ③통제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 - 네트워크는 35개 단체와 함께 동성고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 부당한 징계계획의 철회,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교칙 폐지, 징계절차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2006.07.07.	<p><오병헌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동성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교육청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고등학교, 오병헌에게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 내림. - 네트워크 및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 등이 구성한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징계조치의 철회, 사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진행.
2006.07.13.	<p><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집단 민원 제기>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가 진행한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담당자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민원으로 제기하면 최대한 노력하여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네트워크는 그에 따라 학생들의 신고로 수집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50여 개 중 15개를 정리하여 민원을 제기. - 학교의 인권 현실이 7월부터 진행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교육부의 학생 인권종합대책에 반영될 것을 촉구.
2006.07.19.	<p>서울 목동 양동중학교에 “School Attack”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발자유를 요구한 시위가 일어났던 양동중학교에 다시금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스쿨어택을 진행. 하교 시간에 맞춰 활동가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방문하고, 하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두발자유를 구호로 외치는 시위를 진행함.

날짜	사건 내용
2006.07.26.~ 2006.07.27.	<p>청소년 파란만장 여름인권캠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권을 되찾는 활동을 만들어 파란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음. 기존의 인권감수성교육을 넘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찾고 당당히 인권을 주장할 논리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캠프를 목표로 했음.
2006.08.03.~ 2006.08.11.	<p><학생인권보장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청에 분노합니다! 바로 오늘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청소년들이 교육청 앞 릴레이 일인시위에 나섭니다> 전국 교육청 앞 1인 시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침해 현실을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항의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함. - 울산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7일부터 11일까지는 서울, 수원, 전주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
2006.08.14~ 2006.08.18	<p><두발자유! 학생인권법안 통과!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대구 등 총 6개 도시를 순회하는 행진을 진행. 각 도시에서 서명운동 캠페인 및 집회, 지역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짐. - 13일 출발에 앞서, 교과부 앞에서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선언 - 청소년들의 불온한 몸짓, 전국적인 파란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함.
2006.08.20.	<p>“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청구인을 모집함.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대응을 지속하지 못함.
2006.08.22.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차 기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자료> 청소년회 「샘」 사건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날짜	사건 내용
2006.09.01.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개최 -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전교조, 참학, 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연대체) 주최로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국회 앞에서 개최됨. 기자회견 후 거리 서명전, 1인시위 등도 진행됨
2006.09.06.	<청명고 학생인권탄압 중단 촉구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 진행 -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명고의 학생인권탄압 현실을 방조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
2006.09.06.	수원 청명고에서 <스쿨어택 2탄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사진전> 진행 - 두발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차단했던 수원 청명고등학교를 찾아가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인권의 침해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는 스쿨어택을 진행함.
2006.09.14.	청명고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 진행 - 청명고등학교가 자행한 소지품 검사 및 집회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진행.
2006.09.16.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학생인권 촛불문화제’ 진행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학생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며 촛불문화제 진행.
2006.09.18.	오병헌에 대한 동성고 징계위원회 재심에 항의하는 집회 진행 - 오병헌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재심이 결정되자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 - 후에 특별교육이수 5일로 오병헌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고 알려짐.
2006.09.20.	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차 기고 - 「‘8090’ 중고등학생운동을 말한다」

날짜	사건 내용
2006.10.24.	<p>교원평가제 내부 워크숍 진행 및 성명서 발표</p> <p>- 부적격 교원 퇴출을 명분으로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추진함. 청소년 인권의 관점으로 교원 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내부 워크숍 진행함.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교사들을 더욱 극심한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임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함.</p>
2006.10.25.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6차 기고</p> <p>- 「‘청소년 인권운동’ 첫발을 내딛다」, 「<자료>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p>
2006.11.02.	<p>서울 행당중 앞 학생인권법 관련 캠페인 진행</p> <p>- 학생의 날을 맞아 행당중 앞 거리에서 학생인권법을 알리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들의 스티커 모으는 등의 캠페인 진행</p>
2006.11.02.	<p>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 발표</p> <p>- 교육부 후문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모음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학부모, 문화연대, 언론매체 등 전국 100여 개 단체에서 1천212명이 참가</p>
2006.11.03.	<p>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 탕탱’불 굴리기> 진행</p> <p>- 학생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 받은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를 쓴 스티커를 탕탱불에 붙이고 명동성당에서 출발, 시청을 거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교육부에 전달하는 행진을 진행.</p>
2006.11.03.	<p>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참여</p> <p>-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최순영 의원 주최로 열림. 네트워크 활동가들도 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함.</p>

날짜	사건 내용
2006.12.08.	<p>‘인권의 날’에 묻는다-파주 금릉중학교 인권침해 고발 금릉중학생 기자회견 진행</p> <p>- 파주시교육청 앞에서 금릉중 학생들과 함께 강제이발과 폭언, 체벌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학교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양산하는 텃밭인가? 금릉중은 학생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육청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라.> 성명 발표</p> <p>- 이후 시교육청과 면담을 진행,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함.</p>
2006.12.20.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7차 기고</p> <p>-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다」, 「<자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학운위 참여 선언문」</p>
2007.01.24.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8차 기고</p> <p>-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p>
2007.02.10.~ 2007.02.11.	<p>제 1회 청소년인권활동 외글난장 짓다 개최</p> <p>- 청소년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 비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임. 활동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을 털어놓는 수다마당,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마주하는 교육마당, 새로운 활동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마당이 행사의 큰 즐거웠음.</p>
2007.02.15.	<p>“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진행</p> <p>- 네트워크가 진정했던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진정 결과에 대해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명고 사건 반쪽자리 타상 조사에 분노한다.>라는 성명 발표 및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추가 진정을 제기함.</p>
2007.02.21.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9차 기고</p> <p>- 「<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p>

날짜	사건 내용
2007.02.22	<p><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 백서> 발간</p> <p>-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년간의 활동 소식과 청소년인권운동 전망에 관한 글들을 모은 백서 발간. 청소년인권운동 역사의 첫 번째 공식 기록물이 탄생함.</p>
2007.03.14.	<p><중양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발표</p> <p>- 3월 12일, 두발자유 등을 주장하며 발생한 중양고 학내집회 관련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징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과 두발규제 등 반인권적 교칙 등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p>
2007.03.20.	<p><평촌고등학교는 부당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p> <p>-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vs 학교 -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학교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평촌고 학생 박소현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선도위원회를 열겠다는 통보를 한 평촌고에 대해 징계시도를 자체를 중단할 것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p>
2007.03.21.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차 기고</p> <p>-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 시작을 꿈꾸며」,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 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p>
2007.03.24.	<p>'VS 학교-2007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p> <p>- 2006년 학생인권법이 끝내 제정되지 못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 학기 학생인권 탄압이 지속됨. 이에 학생인권 탄압 현실을 고발하고 탄압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모아내기 위한 토론회 개최</p>
2007.04.05.	<p><안양 평촌고,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원</p> <p>- '불법 전단지 배포'로 학교로부터 징계 위협을 당한 평촌고 학생, 박소현이 학교당국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작업을 지원.</p>

날짜	사건 내용
2007.04.09.	<p><인천 산곡중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진행</p> <p>-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강제이발, 체벌, 언어적 성폭력 등을 자행한 산곡중 박용주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진상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라!> 성명 발표</p>
2007.04.10	<p><‘4.14-미친학교를 혁명하라’ 그 시작을 알리는 청소년 기자회견> 진행</p> <p>- 네트워크와 교육공동체 나다 등의 단체가 모인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날 공동준비위원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악한 학생인권의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월 14일 청소년집회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p>
2007.04.14.	<p><2007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 미친학교를 혁명하라> 진행</p> <p>-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날 공동준비위원회’의 주최로 광화문 KT 앞에서 청소년과 교사 시민 등 150여명의 참여 속에 ‘두발용의복장 전면 자유화, 체벌, 폭언, 폭력 당장 그만, 휴대폰 등 소지품검사 압수 금지,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강제자율보충학습 등 반대, 학교에도 민주주의를!’라는 5대 요구를 밝힘.</p> <p>- 상징의식 후 교육부 후문으로 행진하여 쓰레기봉지를 담장 안으로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진행.</p>
2007.04.16.	<p>세민정보고등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의견서> 전달</p> <p>- 2007년 4월 13일,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내시위가 있음. 이후 학교측은 학내시위 관련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이름을 적도록 하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을 체벌하는 등 인권탄압을 멈추지 않음.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학교측에 항의 의견서를 제출.</p>
2007.04.18.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1차 기고</p> <p>- 「뽀뽀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자료>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선언문」,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p>

날짜	사건 내용
2007.04.25.	<p><인천 산곡중 인권침해사태 인천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인천시교육청에 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서가 도착함.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단속과 빈번한 체벌, 그리고 언어적 성폭력 등으로 산곡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던 박용주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조치로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 이에 네트워크는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육청의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강구’라는 지도 내용이 모호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 배포.
2007.05.10.	<p><울산 신정중학교, 옥동중학교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압수중단 등 학생 인권 보장 학내시위 보도자료>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으로 심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던 울산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내시위가 진행됨. - 이후 학교 측에서 시위 참가자에게 체벌과 징계 등 불이익을 준 상황을 파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이 상황들을 담은 항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2007.05.12.	<p><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1탄- 10대 성소수자>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운동의 확장과 경계 넘기를 모색하기 위해 ‘경계를 넘다’ 간담회 기획함. 첫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단체와 만나 10대 성소수자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함.
2007.05.15.	<p>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2차 기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2007.06.04.	<p><수원 천천고 항의 방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집합시키고 두발·복장 단속을 진행하고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앞드려빨치’,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체벌 현장을 급습. 인권침해, 군사주의 문화 ‘얼차려’ 체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

날짜	사건 내용
2007.06.08.	<p><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천고 등 경기도지역 6개 학교의 인권침해 사례를 알리고, 학생인권헌장 제정 등 학생인권보장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 이후 학생인권담당 장학사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강조
2007.06.09.	<p><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청소년인권 토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휴대폰 금지 및 압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고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함. 그러나 휴대폰 금지에 대한 내실 있는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단체, 교사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을 초대해 이야기 나눔.
2007.06.11.	<p><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청소년 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과 법제화와 관련 인권, 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제 그만 놔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 데 동의하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멩청한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102인 선언을 발표
2007.06.14.	<p>‘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릴레이 1인시위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진행. 인권, 사회단체의 활동가,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알려냄. - 2007년 7월 26일, 스무 번째 일인시위를 마지막으로 릴레이 일인시위를 마무리함.
2007.06.26.	<p>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문화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문화행동을 진행함. - “당신은(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나요?” 라는 플라카드를 들고 횡단 보도 행진을 진행함.

날짜	사건 내용
2007.07.10.	<p><‘폭력의 교육을 중단하라!’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진행</p> <p>- 7월 4일, 부산 배정중에서 학생이 ‘오리걸음’ 체벌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네트워크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총 44개 단체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밝히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법 통과 등을 요구하는 <정부와 국회는 당장 죽음의 교육을 중단시켜라!> 성명을 발표.</p>
2007.07.11.	<p><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성명서 발표</p> <p>-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 시기에 즈음하여, 맹세 수정과 법제화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54개 단체가 성명에 참여함.</p>
2007.07.17.	<p><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과 법제화 강행에 맞선 직접행동> 진행</p> <p>-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헌법 제1조’(“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습시위를 진행함. 참가자 15명 전원 연행.</p>
2007.07.25.~ 2007.07.29.	<p><와삭와삭 인권 서리>, <태풍온대, 여기로 휴가와ㅋㅋㅋ> 개최</p> <p>-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인권교육의 장을 마련함. 인권교육·캠프를 통해 청소년 인권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민함. 사흘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와삭와삭 인권서리”와 이틀간의 인권캠프-“태풍온대, 여기로 휴가와 ㅋㅋㅋ”로 구성함.</p>
2007.08.04.	<p><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간담회 2탄- 장애 청소년> 개최</p> <p>-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시설인권연대 등과 함께 장애 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운동의 길을 모색함.</p>
2007.08.05.~ 2007.08.11.	<p><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단체 순회 간담회> 진행</p> <p>- 지역과의 교류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전국 간담회를 진행함. 서로의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고, 연대 방안을 제안 및 논의하는 자리였음. 충주, 전주,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안동을 순회함.</p>

날짜	사건 내용
2007.10.05.	<p>학내 종교자유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 환영 논평 발표</p> <p>-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이를 환영하는 논평 발표</p>
2007.11.03.	<p><‘학생의 날은 없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규탄 기자회견> 진행</p> <p>- 78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의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이화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p> <p>-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생의 날’을 ‘독립운동기념의 날’로 승격하고 기념행사를 치르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학생의 날에 맞춰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대학평준화 등의 입시경쟁 해소와 학생인권기본정책을 실시할 것과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의 날은 없다> 성명 발표</p>
2007.11.03.	<p><2007 돌아온 학생의 날 저항&부활 “살아있다고 사기치지마!”> 진행</p> <p>- ‘학생의 날’을 기념하기보다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청소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명동사거리에서 진행.</p> <p>- 청소년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좀비분장을 한 상태로 “체벌 때문에 죽은 청소년”, “성적이 낮아 죽은 청소년”, “두발복장단속이 갑갑해 질식사 한 청소년”들의 피켓을 들며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또 학생들에게 학생의 날을 맞아 요구를 쓴 종이를 받아 커다란 공에 붙이고 행진을 함.</p>
2007.11.11.	<p><78돌 학생의날 기념, 청소년 행동의 날 - 부제: 청소년! 대한민국을 말하다!> 참여</p> <p>- ‘100만 민중총궐기’의 청소년부문대회로 준비된 청소년 행동의 날을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주최함. 전국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행사에 참여.</p>
2007.11.27.	<p><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 발표</p> <p>-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학생인권법을 심사하면서 법안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것을 규탄하고, 학생인권법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교조 등의 교육·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발표</p>

날짜	사건 내용
2007.12.07.	<p>울산 효정고등학교 체벌 가해교사 검찰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체벌을 가해온 교사 2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 - 2007년 12월 6일과 7일에는 효정고 정문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여러 지역단체들과 ‘효정고 교사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학생 면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함.
2007.12.26.	<p><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동체 나다, 전교조 등의 단체들과 함께,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두발규제와 체벌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현장에서 여전히 체벌과 두발 단속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학생인권법안에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
2008.01.07.~ 2008.01.16.	<p><펜으로도 때리지 마라 - 청소년인권과 언론> 강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동체 ‘나다’와 겨울 방학 강좌 공동 개설.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디어(청소년 인권 언론)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존 미디어 비평 등 기본 교육 과정 진행함.
2008.02.12.	<p><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결성 2년차를 맞이하여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는 자리 마련함. 더불어 2008년 대선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들에 대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을 모색함.
2008.02.19.	<p><진성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취재요청서>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2월 15일, 광명시 진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200여 명이 두발복장규제 폐지, 체벌 중단, 소지품 검사 중단 등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옥상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학내시위를 진행 - 그러나 학내시위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내시위 과정과 이후의 전개를 담은 취재요청서를 배포함.

날짜	사건 내용
2008.02.19.	<p><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특성 등 현주소를 짚어보고 청소년 노동운동과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및 워크숍.
2008.03.18.	<p>‘학내 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3월 <vs 학교 -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홍보 전단지들 학교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징계 위협을 받은 박소현 학생 사건에 대해 같은 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이후 선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지도’로 종결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토론회 홍보 전단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학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등 제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2008.04.10.	<p><선인고의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 징계시도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4월 6일, 인천 선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주장하며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학내시위를 진행함. - 그 이후, 학교 측에서 주모자와 함께 시위를 하자고 문자를 돌린 학생을 퇴학 등 징계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전달.
2008.05.09.	<p>학내 종교자유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규탄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 고등법원은 강의석 씨가 학칙 준수 선서 등을 했다는 이유로 패소 결정. 이에 네트워크에서 규탄 논평 발표

날짜	사건 내용
2008.05.24.	<p><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과 일상의 고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월례 교육 사업 기획함. 5월~8월까지 이어짐. - 5월 주제 <깨워봐! 인권감수성~ 차별 감수성!>
2008.06.04.	<p>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보고회 <‘88만원 세대’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흡한 대책을, 특히 청소년 임금을 중심으로 부각시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함. - 한 달 동안 약 1,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길에서 보고회 진행.
2008.06.12.	<p>최저임금법 미준수 사업장 어택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의 한 청소년활동가가 일하고 있던 사업장과 그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활동 진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내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됨.
2008.06.20.	<p>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기획단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몇몇 청소년단체들에 첫 제안. 여름방학 중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캠프 공동주최 제안이 들어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교육팀에서 공동기획단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교육공동체‘나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문화연대 등의 단체가 공동기획단으로 확정.
2008.06.21.	<p>6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주제 <그러봐! 삶 속에서의 인권을>
2008.07.26.	<p>7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주제 <꿈꿔봐! 우리들의 독립>

날짜	사건 내용
2008.07.31.~ 2008.08.02.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진행 - 40여명의 참여자와 함께 2박3일간 경기도 가평으로 캠프를 다녀옴. 첫째 날 ‘개(開)관’, 둘째 날 ‘갱(更)관’, 셋째 날 ‘굿(good)관’의 이름으로 청소년인권, 청소년보호주의, 입시경쟁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보는 시간을 가짐.
2008.08.20.	섹슈얼리티 쟁점 포럼 두 번째 “청소년/년&(성적)자기결정권” 이야기 마당 참여 - 여성주의 팀이 구성되기 직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토론회 기획. 청소년과 성이라는 키워드의 만남. 보호주의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음.
2008.08.23.	8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 8월 주제 <교과서 속 인권의 모습들, 뒷담화 까지>
2008.09.25.	국가인권위원회, 울산 신정중 학내집회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 - 울산 신정중에서 일어난 학내 집회를 강제해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이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벌 등에 대해 서도 부당하다고 판단. 학생의 학내 집회 자유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 나옴.
2008.10.21.	불복종행동 벌금 마련을 위한 컵 판매 시작 - 2007년 7월 17일, 불복종 직접행동으로 인한 벌금 폭탄에 맞서기 위해 제작 컵 판매함.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야 안녕”,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맹세 하나요?” 문구가 쓰여진 컵 500여 개를 판매했고, 비용은 벌금 납부에 사용됨.
2008.10.2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신가족주의와 여성” 특강 참여 - 여성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성애 혈연 정상 가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마련해 보고자 특강 참여. IMF 전후로 변화된 가족주의의 양상에 대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음.

날짜	사건 내용
2008.10.23.	<p>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를 꾸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일이 단지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겪고 있는 인권의 실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을 진행하고자 함. - '2008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릴레이 인권선언>을 모아 내고 발표하는 선언운동을 함께 시작함.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릴레이 인권선언>운동의 한 부분으로, '2008 청소년인권선언'을 작성하기로 함.
2008.10.28.	<p>여성주의 팀 세미나 1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며 공부의 필요성이 느껴져 여성주의 팀원들끼리 공부 모임 진행. 자료를 읽은 후 각자의 쪽글을 바탕으로 세미나. 근대 자본주의 이후 아동의 탄생과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탐구.
2008.11.	<p><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약식보고서> 중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 열악한 청소년 노동권 현실 부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3차 정부보고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 하지만 정부보고서는 내용적으로 한국의 사회권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정보를 요약하며, 정부보고서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또는 전혀 다루이지 않은 이슈들을 설명함으로써 위원회의 올바른 이해와 검토를 돕고자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중 청소년 노동권의 현실 부분을 함께 작성함,
2008.11.03.	<p><2008년 학생의 날 - 학생의 날을 진정 학생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라> 성명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요식적인 학생의 날 행사를 비판하며, 학생의 날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발표함.

날짜	사건 내용
2008.11.08.	<p>2008 인권선언 밀붙이기 워크숍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인권선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밀붙이기 워크숍’을 진행함. 강연, 인권끝 말잇기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를 엮어 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의 내용과 가치, 연대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자리로 꾸려짐.
2008.11.10.	<p>2008청소년인권선언 작성을 위한 나뭇잎 모으기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느끼는 권리들을 모아내기 위해 ‘나뭇잎 권리’ 모으기 캠페인을 시작함. - <2008청소년인권선언> 내용을 작성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며 총 50여장의 다양한 권리가 담긴 ‘나뭇잎’이 모임.
2008.12.10.	<p>세계인권선언 60주년 맞이 2008인권선언 및 2008 청소년인권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비정규직노동자권리선언, 빈곤에 맞선 권리선언, 성소수자 선언, HIV/AIDS감염인 선언, 이주노동자 선언, 장애인권리선언, 환자권리선언 등의 릴레이션언이 진행되었고,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당일, 2008인권선언과 함께 청소년인권선언 발표가 이루어짐. - 이후 문화제를 진행하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오늘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내일의 과제를 함께 밝히는 시간으로 이어감.
2008.12.13.	<p>빨강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팀이 기획한 첫 사업. 성별권력과 나이권력(청소년/비청소년 권력)이 뒤집힌 세계 ‘유스 이갈리아’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황들을 통해 현재의 권력관계의 불합리함을 위트 있게 전하려 노력함. 가족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이나 그 ‘대안’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 가족을 ‘여성’의 눈으로 또는 ‘청소년’의 눈으로 분석하는 것과 ‘여성 청소년’의 눈으로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됨.

날짜	사건 내용
2008.12.16.	<p><인천 예일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와 관련해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2월 1일~3일에 인천 예일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학생인권 보장 요구 학내시위와 이후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 같은 날, 학교에 직접 의견서 전달과 면담 요구.
2008.12.24.	<p>안티크리스마스 직접 행동 1차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에 출몰하는 4가지 악령들을 퇴치하는 내용으로 기획. 저항 캐롤 창작. 저항하지 않는 순종적인 청소년에게만 선물 주는 산타, 크리스마스 때만 반짝 기부하는 기만적인 사회, 이성애 커플 중심주의, 정상가족(엄마, 아빠, 자식)만을 가족으로 강조하는 분위기 등을 풍자함.
2009.01.20.	<p>진보신당과 여성주의 팀의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신당과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화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 ‘걸(girl)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정치 주체화, 청소년 노동권 등 꾸준히 네트워크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눔. 이어 2008 청소년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진보신당 청소년 강령 초안 작성 작업을 함께 함.
2009.02.04.	<p>여성주의 팀 세미나 2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대 여성 관련 정책 및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대한 논문 읽기 진행.
2009.02.04.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개인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단체로 위상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하는 단체들의 소멸이나 위치 변경, 개인활동가들의 증가, 청소년 대중조직으로서의 이수나로의 강화 필요성 등 변화하는 청소년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위상을 개인 활동가 네트워크로 변경하기로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함.
2009.03.	<p>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 경험,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준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이후 면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함.

날짜	사건 내용
2009.03.08.	3.8 여성의 날 행사 참여 - 반차별 공동행동에서 마련한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의 방법” 행사에 참여. 당일 발행한 전단지에 여성주의 팀 이름으로 주장을 싣기도 함.
2009.04.01.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연재 시작 -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의 만남을 기사로 기획. 여성주의 매체 <이프>의 제안으로 2009년 9월부터는 <이프> 뉴스레터에도 공동 연재. - 1차 기고 ‘소녀’를 권하는 사회
2009.04.25.	10대 여성 관련 타 단체 활동 조사와 내부워크숍 진행 - 10대 여성의 입으로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의 것, 페미니즘으로 10대 여성의 삶을 그려보는 것의 의미를 탐색함. 지금까지 여성단체/성소수자단체/대안교육단체들에서 벌였던 10대 여성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짐. 여성주의 팀에서 1차로 내부 토론을 했고, 논의를 정리해 전체 내부워크숍 “걸 페미니즘, 너는 어디로?”를 진행함.
2009.04.29.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2차 기고 야오이, 그 곳에서 소녀 그리고 여성들이 만나야했던 이유
2009.05.01.	노동절 집회(메이데이)에서 1차 청소년 노동인권 퍼포먼스 진행. - 매년 5월 1일, 노동절에 진행되는 집회에서 청소년 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운동을 알리는 퍼포먼스 진행.
2009.05.27.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3차 기고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1)
2009.05.30.	경인고등학교 토론 동아리 인권 교육 진행 - 경인고 토론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함. 학생 인권, 학교 안 성별 분업을 통해 본 성차별 등을 이야기 함.

날짜	사건 내용
2009.06.12.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내부 워크숍 진행 - UN사회권위원회 위원 2인의 한국 방문을 맞아 NGO 간담회 개최함. 한국의 사회권 상황 의견서 전달을 앞두고 교육권, 청소년노동, 빈곤청소년, 문화권 등을 살피는 내부 워크숍 진행함.
2009.06.13.	제 10회 퀴어문화축제 “십년감수” 참여 -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알리는 피켓을 만들어 감.
2009.06.24.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4차 기고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2)
2009.07.27.~ 2009.07.31.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 청바다 UCC 창작 강좌 운영 - 청소년들이 인권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청소년 인권 아카이브(홈페이지) 개설을 앞두고 UCC 창작 강좌 꾸림. 영상, 사진, 만화 강좌 운영 후 작품 발표회 치름.
2009.08.06.~ 2009.08.09.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시즌2> 진행 - 2008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의 기억을 이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를 비롯한 몇몇 청소년·교육단체들이 모여 인권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함. - 3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푸른꿈고등학교에서 2박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함. - 첫째 날엔 청소년들의 인권이 뭔지 고민하고 우리 생활에서 인권들을 찾아보는, 별을 낚다! 둘째 날엔 청소년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별을 쏘다! 셋째 날엔 그간 함께 찾아본 권리와 힘들들 가슴속에 새겨보는, 별을 새기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음.
2009.08.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발표 - 7월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학생과 인권단체가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다산인권센터·인권교육센터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동 명의로 전달
2009.08.19.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5차 기고 신데렐라이길 거부한다

날짜	사건 내용
2009.08.20.	<p>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 네트워크 활동가 참여</p> <p>- 4인이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되면서 네트워크 활동가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가 참여. 학생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p>
2009.09.	<p><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중 이동권 부분 작성</p> <p>- 지난 약식보고서 제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보고서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함.</p> <p>-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중 이동권 부분을 작성함.</p>
2009.09.16.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6차 기고</p> <p>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p>
2009.09.19.	<p>여성주의 교사모임 <빼빼 통스타킹>과 ‘교권을 강화해야 성폭력이 사라진다’ 간담회 진행</p> <p>-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학생의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사건. 대부분의 언론은 교권 추락을 운운하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당사자인 여교사의 목소리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여교사의 무능을 지적하는 글들이 눈에 띈.</p> <p>- 이에 여성주의 팀은 여성주의 교사모임 <빼빼 통스타킹>과 함께 좌담회를 열고 이 사건은 교권 추락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임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담론은 결국 여교사를 소외시킨다는 것을, 학생인권을 억누르는 교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폭력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p>
2009.09.20.	<p>여성주의 팀 세미나 3차 진행</p> <p>- 고미숙 외,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인물과 사상사, 2009) 읽기. “청소년은 순수하고 미성숙하다는 관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에 대한 물음을 한국의 근대사를 통해 추적해 봄.</p>

날짜	사건 내용
2009.09.23.	<p>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갬> 개설</p> <p>- 10대 여성의 눈으로 교감하는 각종 연재, 10대 여성과 걸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블로그 링크, 삶의 고민을 나누는 자유 게시판 등 만들. 여성주의 팀의 활동을 알리는 통로도 사용. 2011년 초까지 활성화 되다가 현재는 거의 휴면 상태.</p>
2009.09.23.	<p>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대응 준비 및 운영 실태 예비조사 진행</p> <p>- 교육과학기술부가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를 추진함. 이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함.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 중 세 군데 학교를 정해 예비 조사를 실시함.</p>
2009.09.28.	<p>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개발 연구용역팀에 네트워크 활동가 참여</p> <p>-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조례안 개발’ 연구용역팀으로 선정됨. 네트워크 활동가 유윤중(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p>
2009.10.05.	<p>청바다 베타 홈페이지 오픈</p> <p>- http://www.youbada.net/(현재는 운영되지 않음.)</p>
2009.10.05.~ 2009.11.17.	<p>청바다 UCC 공모전 <제 1회 개기니즘 콘테스트> 개최</p> <p>- 청소년들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UCC를 직접 제작해 청바다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하는 콘테스트 개최. 홍보 부족과 참여율 저조로 콘테스트를 마무리하지는 못함.</p>
2009.10.14.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7차 기고</p> <p>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대체 어찌라고~</p>
2009.10.16.	<p>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7차 협의회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학생참여기획단 500명 확대 모집 결정</p> <p>- 학생참여기획단 운영에 네트워크 활동가, 이수나로 수원지부 활동가들이 긴밀히 결합</p>

날짜	사건 내용
2009.11.03.	<p><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주년 학생의 날을 기념해 명동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퍼포먼스와 선언 발표 - ‘학생인권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해직교사 복직’ 등의 요구안이 담긴 소형 열기구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함.
2009.11.07.	<p>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1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신여중고 앞에서 첫 선전전을 진행. “3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여자가 무슨 주변 정리를 이렇게 못해? 어떻게 시집가려고?” “술집 나가려고 화장했어?” 등과 같은 언어 성폭력 예시에 공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 홍보
2009.11.10.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8차 기고 괴물들과 공주님들?</p>
2009.11.20.	<p>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팀이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기도내 초·중·고·고생 1086명 등 학생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고교생의 경우 응답자의 35.2%가 거의 매일 수시로 체벌을 경험한다고 답하는 등 인권 침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009.11.21.	<p>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2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여상, 문영여중·고 앞에서 진행.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언어 성폭력 예시에 공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 홍보
2009.12.09.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9차 기고 밀바닥에 깔린 청소년 알바</p>
2009.12.17.	<p>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 연구용역팀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례 초안 발표. 초안 발표 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망친다,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는다 등의 비판 기사 쇄도 이후

날짜	사건 내용
2009.12.24.	<p>안티크리스마스 직접 행동 2차 “깜깜한 크리스마스” 진행</p> <p>- 2008년에 내세웠던 안티크리스마스 의제들을 2009년 당시 이슈화되고 있는 싸움들과 연결 지어 좀 더 구체적인 슬로건으로 만들음.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과다노동하게 되는 백화점*마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살인재개발과 철거를 멈추고 모두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보장/ 청소년의 외박할 권리 보장/ 비장애·이성애자 커플만 환영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비판 등을 담아 말풍선을 제작해 퍼포먼스 진행.</p>
2010.01.06.	<p>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p> <p>-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이후 보수언론과 보수교육단체의 공세로 초안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어지면서, 경기지역 단체들에 연대를 요청하여 원안을 지켜내기 위한 기자회견 개최</p>
2010.01.13.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0차 기고</p> <p>스무살이 된 걸(girl)이 보내는 편지</p>
2010.01.15.	<p>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발표</p> <p>- 조례 초안을 둘러싼 혼탁한 논쟁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입장 발표. 시기상조론, 반(反)교육론, 교사 지도 불가론, 학교 통제론에 대한 답을 내놓는 한편, 두발·복장 자유 등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도 포함</p>
2010.01.19~ 2010.01.25.	<p>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 공청회, 3차례 개최</p> <p>- 자문위원회 초안에 대한 종합공청회 3차례 개최. 특히 3차 학생공청회는 학생 참여기획단과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토론자로도 참여</p>
2010.02.06.	<p>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직접행동 1차 진행</p> <p>- 직접 청소년 노동자를 만나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최저임금 등 청소년 노동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직접행동을 신촌에서 진행.</p> <p>- 올해의 최저임금 (당시 4,110원)을 홍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서명으로 모으기도 함.</p>
2010.02.09.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1차 기고</p> <p>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p>

날짜	사건 내용
2010.02.10.	<p>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 결과보고서」 발표</p> <p>- 소수학생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항 강화, 사생활의 자유 조항 신설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의 최종안 발표.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된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를 담은 초안과 삭제한 수정안 등 두 안을 내어 도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함. 조례 제정과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병행 조치에 대해서도 제안.</p>
2010.02.10.	<p>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의 출발</p> <p>- 청소년활동의 특성과 그에 따른 운동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 이 문제의식을 청소년활동, 그리고 연관운동단체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조성모임’ 사업이 제안됨.</p> <p>-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공동체 나다’,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 등의 단체가 모여서 첫 시작을 함께하였고 연대체의 이름을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활기모임)>으로 확정함.</p>
2010.02.17.	<p><‘사랑하는’ 학생들과 내숭 뚫고 하이킥> 워크숍 개최</p> <p>- 여성주의 교사모임 ‘빼빼 룡스타킹’과 공동 개최. 10대들과 교사들이 모여 ‘10대의 성과 연애’를 주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눔. 생생토크 ‘10대 연애에 관한 진실과 거짓’, 연애 고민에 대한 상담 실습 ‘연애팍 도사’ 등을 진행함.</p>
2010.03.13.	<p>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직접행동 2차 진행</p> <p>- 1차 선전전에 이어 신림에서 2차 길거리 선전전 진행.</p>
2010.03.16.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결> 12차 기고</p> <p>고객님? 됐거든!!!</p>
2010.03.23.	<p>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p> <p>- 자문위원회 최종안에서 사상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삭제된 채 입법 예고</p>

날짜	사건 내용
2010.04.06.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 진행 - 선전전을 통해 만나게 된 청소년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를 이수정 노무사와 함께 진행.
2010.04.09.	여성주의 팀 세미나 4차 진행 - 민가영, 『여성학 이야기』, (책세상, 2007) 읽기. 신규 여성주의 팀원들 중 여성주의 담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있어 여성주의 입문서를 함께 읽음.
2010.04.10.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직접행동 3차 진행 - 신림에서 3차 길거리 선전전 진행.
2010.04.12.	‘아동성폭력 친고죄 폐지’ 관련 논평 발표 - 아동성폭력 사건만을 ‘특별대우’하며 친고죄 적용 및 음주감경 조항을 폐지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논평 발표. 팀원들 각자의 한줄 논평을 첨부하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함.
2010.04.13.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3차 기고 여성 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1
2010.05.01.	노동절 집회(메이데이)에서 2차 청소년 노동인권 퍼포먼스 진행 - 노동절 집회에서 작년에 이어 2차 퍼포먼스 ‘자본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청소년 노동자’ 진행.
2010.05.06.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결성하고 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정책 협약식 참여 제안 - 네트워크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운동의 전국화를 위한 초동단위 구성.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하여 학생인권 신장 정책이 전국적인 공동 공약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정책협약식 개최를 관련 단체에 제안

날짜	사건 내용
2010.05.08.	<p><빨강 물고기가 떴다!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개최</p> <p>- 교육감 선거 대응으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기호 0번 운동(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을 비판하는 캠페인, 퍼포먼스, 정책 생산 등)진행함. 이에 연대하여 기호 0번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 진행함.</p>
2010.05.08.	<p>‘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튀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청소년 파트 발제 진행</p> <p>- 프랭크 라 튀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한국 표현의 자유 현실에 대한 간담회 개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그 중 ‘청소년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 진행.</p> <p>- 이후 프랭크 라 튀와 NGO 단체들간의 면담에도 참여,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의견 개진.</p>
2010.05.10.	<p>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개최</p> <p>-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등 12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협약 체결에 동의. 협약 체결식에는 경기 김삼곤 후보, 서울 박노현 후보, 인천 이청연 후보가 참석.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의 향후 계획도 발표.</p>
2010.05.12.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4차 기고</p> <p>여성 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2</p>
2010.05.29.	<p>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3차 진행</p> <p>- 홍익여중·고 앞에서 진행. 여러 학교들을 두루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한 학교에 다양한 주제로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선전전을 해보기로 결정. 홍익여중·고 앞에서 3차례에 걸쳐 선전전 진행함. 첫 번째 주제는 교육감 선거 시기에 맞춰 ‘여성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꼽아보는 자리를 만들.</p>
2010.06.09.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5차 기고</p> <p>“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p>

날짜	사건 내용
2010.06.24.	<p>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단 첫 모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교류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청소년활동가대회 기획단이 꾸려짐.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공동체‘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우학교인권동아리‘아우름’, 인권교육센터‘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문화공동체‘폼’,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가 공동주최단체로써 대회 준비를 함께함.
2010.06.25.	<p>청소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기자회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전을 통해 모은 서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 진행. 총 1,811명의 서명을 전달함.
2010.07.05.	<p><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이름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가대회 슬로건을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챗(chat)’> 으로 확정함. -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오덕 훈련원’ 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초안으로 나온 시간표를 보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초벌 논의를 함.
2010.07.07.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6차 기고</p> <p>잔혹한 소년만화의 테제</p>
2010.07.07.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및 기념 토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일 교육감선거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진보교육감이 6곳에서 당선.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의 전망이 밝아졌으나 만만치 않은 역풍이 예상. 민주진보교육감을 견인하는 한편, 바다에서부터의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하기로 함. - 출범식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네트워크 활동가인 난다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쟁점을 발제
2010.07.22.	<p>여성주의 팀 세미나 5차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가영,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우리교육, 2003) 읽기. 여성 청소년들의 성, 성적 욕망에 대한 토론 진행.

날짜	사건 내용
2010.08.04.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7차 기고 납량특집 -공포영화
2010.08.05.~ 2010.08.07.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진행 - 106일동안 19명의 활동가들이 준비하였고, 16개단체 52명의 청소년활동가들이 모여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각양각색의 고민과 활동을 공유함. - 로그인, 환경설정(약속 만들기), 대화하기(청소년활동가 인터뷰), 오락하기(주제별 수다), 대화창 흔들기(끝장토론) 등의 이야기마당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며 청소년인권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됨.
2010.09.04.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4차 진행 - 홍익여중·고 앞에서 진행한 두 번째 선전전. 두 번째 주제로 ‘섹스/임신’이라는 키워드를 꼽음. 청소년의 성을 무조건 비행이나 폭력과 연결 짓는 문화에 탄지를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함. 시험지 양식을 패러디한 선전물을 만들어서 가져감.
2010.09.07.	1차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청소년들(저공비행)’ 시작 - 청소년활동의 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시도으로써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강좌 및 세미나모임을 꾸림. - 제도권교육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과 저항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공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면서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청소년들(저공비행)’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9월7일 첫 모임을 시작함. - 공통과정으로는 인권과 철학, 선택과정으로는 웹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는 실용강좌를 기획하여 16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함.
2010.09.0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 발표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애초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던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가 9월 7일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킴. 이에 네트워크와 경기지역단체들이 연합하여 환영 성명 발표하고 본회의 통과를 아울러 촉구

날짜	사건 내용
2010.09.08.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8차 기고 “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2010.09.1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개최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논리를 타파하고 학생인권 교육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위한 강사단 양성 워크숍 개최
2010.09.1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환영 논평 발표 - 다산인권센터, 네트워크 등 공동명의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 학생인권보장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2010.10.06.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개최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모집 결과 발표(총 125인 참여)하고, 시민 발언대 개최
2010.10.12.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19차 기고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이란 공식을 넘어서자
2010.10.18.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 운동본부 내부에서 마련해온 주민발의초안을 발표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2010.10.18.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의식조사 결과 발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필요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담긴 권리 조항들 각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높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

날짜	사건 내용
2010.10.27.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안 최종안 확정하고 주민발의 돌입 신고</p> <p>- 교육주체 의식조사 결과와 주민발의안 초안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안 확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더 강화된 조례안 마련. 홍세화 씨를 대표인으로 한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주민발의운동) 돌입을 교육청에 신고 접수.</p>
2010.10.28.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무실 개소식 개최</p> <p>- 문래동에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오답승리의희망, 그리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세 단체가 함께 쓰는 사무공간(현 나뭇아지트 공간의 시초) 마련. 최초의 독립 사무실을 얻은 기념으로 주변 지인들을 초청하여 개소식 개최.</p>
2010.11.02.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의날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각 주체의 역할> 토론회 개최</p> <p>-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과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화를 위해 각 교육주체들의 역할을 찾기 위한 토론 전개.</p>
2010.11.03.	<p><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진행</p> <p>-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과 함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p> <p>- 81돌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들의 의지를 천명.</p>
2010.11.06.	<p>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5차 진행</p> <p>- 홍익여중·고 앞에서 진행한 세 번째 선전전. 세 번째 주제로 ‘다이어트, 몸, 복장’이라는 키워드를 꼽음. 여성/남성다운 몸 혹은 복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음.</p>
2010.11.09.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20차 기고</p> <p>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p>

날짜	사건 내용
2010.11.14.	<p>여성주의 팀 세미나 6차 진행</p> <p>- 반차별 감수성 기르기 세미나.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주최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총 6회) 자료집을 읽기자료 삼아 표현의 자유, 혐오범죄, 모욕감 등을 키워드로 논의함.</p>
2010.11.25.	<p>청소년활동가활동기반마련 후원의 밤, <핫유스 “HOT YOUTH”></p> <p>- 기금조성팀과 교육체계팀으로 나누어져 굴러가던 활기모임의 취지도 알리고 활동기반마련에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의밤을 기획함.</p> <p>- 2010년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준비하여, 청소년활동기반마련 후원의 밤, <핫유스 “HOT YOUTH”>를 진행함.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부스, 각종 먹거리, 청소년활동가들의 공연 등이 어우러진 유쾌한 파티로 진행함.</p>
2011.01.07.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 돌파 전략 워크숍 개최</p> <p>- 2010년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기 이후,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학생 지도 불가’ 등에 대한 보도가 급증. 이에 따라 주민 발의 서명운동이 크게 주춤함에 따라 돌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 워크숍 개최</p>
2011.01.12.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21차 기고</p> <p>마냥 ‘시크한 차도녀’가 될 수 없는 ‘10대 여성’, 나의 담배 연기</p>
2011.01.25.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회> 개최</p> <p>- 1월 17일 교과부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계획이 발표되자, 청소년 성토크대회 개최</p>
2011.01.26.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p> <p>-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p>

날짜	사건 내용
2011.02.08.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p> <p>-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3개월을 경과하고 있음에도 서울본부 내부의 서명운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고 교과부의 공세는 높아지는 난국 속에서도 주민발의 성사를 위해 매일 서명전에 돌입하기로 함. 영하의 추위를 뚫고 거리 서명전 시작. 주말에는 집중 서명전 전개.</p>
2011.02.16.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p> <p>-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권이 정말 추락하고 있는지를 교사의 입으로 들어보기 위한 집담회를 개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교사들은 교사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문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p>
2011.02.24.	<p>2차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청소년들(저공비행)’ 시작</p> <p>- 2010년 하반기에 진행한 저공비행에 이어 소규모 세미나를 이어감. 페미니즘, 근대철학, 정치경제학, 무기력과 안정 등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주제 별로 모여 공부모임을 만들어감. 활기모임 자체의 침체기와 청소년운동을 둘러싼 안팎의 변화된 조건으로 인해 저공비행의 진행과정이 활기모임의 다른 멤버들에게 잘 공유가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함.</p>
2011.03.06.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연재 기사 기획 참여</p> <p>- 학생인권 현실을 알려낼 기획 연재 기사가 3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의 필요성을 알림</p>
2011.03.08.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중암중학교 학생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개최하고 항의방문</p> <p>- 공립학교인 서울 중암중학교에서 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 이에 서울본부에서는 관련 증거를 모으고 학교 앞 기자회견을 개최. 학교도 항의방문하여 재발 방지 요구</p>

날짜	사건 내용
2011.03.14.~ 2011.03.31.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연속 시민특강 개최</p> <p>-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발의 서명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순회 연속 특강을 기획. 박노현 교육감(학생인권조례의 철학), 이범희 흥덕고 교장(학생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폭력 트라우마와 차별없는 교육),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노동규율과 학교규율), 백창우 시인(시와 노래에 담긴 학생인권) 등이 참여.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에 관한 높은 공감대 형성</p>
2011.03.15.	<p>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22차 기고 걸 페미니즘 “다시 보기”</p>
2011.04.07.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p> <p>-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다시 한 번 촉구</p>
2011.04.11.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p> <p>-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시민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여 기자회견 개최. 서울 조례 주민발의의 성사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주요 시안임을 널리 알림</p>
2011.04.19.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도보행진</p> <p>-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p>

날짜	사건 내용
2011.05.20.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p> <p>-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일까지 8만5281명의 서명이 취합되어 주민발의 성사(주민발의 성사 기준은 8만 1885명). 청구인 명부의 동별 분류 작업을 거쳐 교육청에 제출하고 주민발의의 성과를 보고</p>
2011.07.05.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추가 서명 거쳐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추가 제출</p> <p>-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6월 22일~26일까지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p>
2011.09.07.	<p>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의견서 제출</p> <p>- 한국정부는 2011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함.</p> <p>-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공식 NGO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킹에서 별도로 한국의 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식 의견서를 제출.</p>
2011.09.08.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 요구서 전달</p> <p>-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가 개최됨.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요구서한 전달</p>
2011.09.13.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p> <p>-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외압을 행사하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p>

날짜	사건 내용
2011.10.05.	<p>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p> <p>-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로 송부됨. 교육청의 자체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p>
2011.11.05.~ 2011.11.06.	<p><2011 학생인권심화워크숍> 개최</p> <p>-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학생인권 관련 심화 쟁점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짐. 상벌점제, 성찰교실, 학교폭력 등 주춤하게 되는 고민과 논의를 한 데 모아 토론함. 더불어 학생인권 관련 상담을 풀어내는 원칙과 기술도 나눔.</p>
2011.11.17.	<p>UN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최종견해 번역작업 진행</p> <p>-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여러 유의미한 우려와 권고가 담긴 최종견해를 10월 6일 채택함.</p> <p>- 그러나 이를 신속히 번역, 배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는 견해 채택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번역 및 배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번역과 배포를 진행함.</p>
2011.11.22.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p> <p>-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보수성향 단체들 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서울시의회에 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p>

날짜	사건 내용
2011.12.16.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등,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p> <p>-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 기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례 부결을 촉구하고 의회를 압박하자, 의원들이 조례안을 후퇴시킬 조짐을 보임. 특히 차별금지조항에 포함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손질될 가능성이 커지자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의회 농성에 돌입.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나, 교육위원회는 결국 조례안의 심의 연기. 이에 조례 통과 촉구 후속 성명서 발표</p>
2011.12.19.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기자회견 개최</p> <p>-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원안 그대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제정됨. 서울본부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p>
2012.01.05.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촉구 기자회견 개최</p> <p>- 조례가 통과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곧장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라는 압박을 지속.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조례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그러나 임승빈 부교육감은 1월 9일 결국 조례 재의를 의회에 요청</p>
2012.01.11.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제1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p> <p>-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에 투신하다 2011년 작고한 이돈명 변호사를 기려 만든 ‘이돈명 인권상’ 제1회 수상자로 서울본부를 선정.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대표 시상함</p>
2012.01.16.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촉구 촛불집회’ 개최</p> <p>- 2011년 12월말 대구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타점으로 돌리는 주장이 제기. 이에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죽음을 양산하는 교육을 넘어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임을 알리는 집회 개최</p>

날짜	사건 내용
2012.01.25.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p> <p>-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이 계속되자,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 확장과 학교폭력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집담회 개최.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혁신학교 실험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가 주목 받아.</p>
2012.01.26.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환영</p> <p>- 광노현 교육감이 출소 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면서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의 요구를 철회한 데 이어 26일 조례를 공포하자 환영 입장 발표</p>
2012.02.01.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활기의 통합, 전환에 관한 논의</p> <p>- 2011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 구성원이 접했던 활기 또한 함께 주춤하는 시기를 보냄.</p> <p>- 활기와 네트워크 모두 재정비를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거치면서 네트워크와 활기의 통합, 전환에 관해 적극 논의함.</p>
2012.02.14.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p> <p>- ‘청소년 활동기반조성 프로젝트, 활기’와의 공식적 통합 결정. 네트워크가 수행해 왔던 역할을 활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정리.</p> <p>- 이튿날 열린 활기 전체회의에 제안하고, 활기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을 대다수 이어가기로 결정</p>
2012.02.15.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기’로 전환 결정</p> <p>- 네트워크가 자체 활동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고, 활기 역시 조직 개편이 시급한 형편이라는 내부적 평가에 따라, 활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결정함.</p>

날짜	사건 내용
2012.02.23.	<p>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등, 교과부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개최</p> <p>-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곧장 무효 확인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월 16일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르면 학칙 규정 사항으로 두발·복장 규정, 소지품검사 규정 등이 포함되기에 이룸.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이 상위법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이 커지게 됨.</p>
2012.03.29.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기’로 전환하면서 공식적 마감 보고</p> <p>- ‘청소년 활동기반조성 프로젝트, 활기’, 첫 번째 월 간담회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를 개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남은 과제, 현재 활동중인 청소년 단체들의 고민을 숙성시키는 논의를 제기하는 자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6년 역사를 마감하였음.</p>

4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함께한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6년의 여정, 그대들이 있어 든든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함께한 사람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함께한 사람들

개굴(배경내) 개드플라이(양돌규) 거부기 게로게론 고은채
공기(사랑) 공현 그루 근영 김인식 나래 난다 날토 남규
남주 낭팽(영균) 도라 동소심 둠코(해솔) 득선 따이루(만성) 또또
만효(효민) 목도리 무명 므스 바람(혜민) 박조 발없는새(서원)
발칙한 변 순욱 슬기 안그라미 안단테 양아치 어쓰 엠건
옥션교주 원석 윤티 이슬 이아라 이원 전누리 정훈 조상신
조은 조제 주댕 쨍열 찰기(초롱) 참살이 췌씨 태진 한날(민진)
해밀 혁수 형우 헤림 호밀 화신